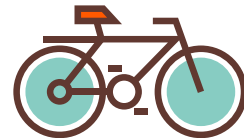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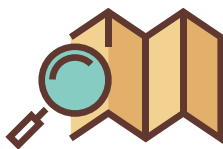


국내나눔교육 현황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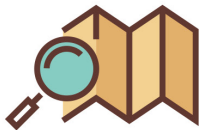
# 한국의 유스필란트로피를 찾아서





국내나눔교육 현황조사보고서

# 한국의 유스필란트로피를 찾아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아름다운재단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를 만듭니다.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으로,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건강/교육/노동/문화/사회참여와 통합사회/안전/주거/환경 영역의 4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 국내나눔교육현황조사 보고서

발행일 2018년 7월 5일  
기획및편집 아름다운재단  
주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전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http://www.beautifulfund.org)  
디자인 해든D&P  
인쇄 해든디앤피 02-2266-6372

# 차례

---

<b>I. 시작하며</b> .....	<b>007</b>
<b>II. 나눔교육을 위해 살펴본 개념들</b> .....	<b>008</b>
1. 필란트로피의 개념과 미국의 유스 필란트로피 (Youth Philanthropy)	
2. 민주주의, 시민	
3. 청소년에 대한 관점 :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4. 청소년 참여운동의 방향 : '준비참여'로부터 '지금참여'로의 변화	
5. 청소년사회참여	
<b>III. 조사개요</b> .....	<b>017</b>
1. 조사방법 및 대상	
2. 인터뷰 기관 리스트 (가나다순)	
3. 기관별 운영형태	
<b>IV. 현황 및 특징</b> .....	<b>020</b>
1. 프로그램별 특징 (참여정도, 모집방법, 연령대)	
2. 프로그램별 활동형태	
3. 활동주제와 참여방법	
4. 각 기관별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 운영 현황	
5.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 역할과 역량	
6.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7. 활동을 통한 변화	
8. 활동가들의 고민	
9.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b>V.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 탐험대의 목소리</b> .....	<b>045</b>
<b>VI. 국내나눔교육현황조사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모음</b> .....	<b>050</b>
<b>VII. 부록</b> .....	<b>055</b>
1. 기관별 인터뷰 기록	





# 탐험을 시작하며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 나눔, 배려를 넘어 나와 함께 하는 내 주변의 이웃,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나눔이라고 보고  
‘나눔교육’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사한 취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I. 시작하며

아름다운재단은 나눔교육을 2005년에 시작했다. 초기 나눔교육은 가정과 학교를 통해 자아존중감, 리더십 향상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춘 인지중심의 교육이었다. 2015년 ‘나눔교육 반디’는 개인적 차원의 나눔에서 좀 더 나아가 사회적, 구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청소년 시민교육, 사회참여 하는 나눔활동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나눔교육 반디’로 설계 실행하였다.

‘나눔교육 반디’는 청소년들이 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② 지역사회와 세계의 문제를 인식하여 ③ 공익을 위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시간, 재능, 물건(돈), 관계, 지역사회 자산을 이용하여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적으로는 모금, 배분, 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모델로 활동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영역과 적극 협력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나눔교육 반디’는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일 뿐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하며, 기부나 자원봉사 행위 자체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협동의 가치와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나눔’과 ‘나눔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통적으로 각 기관들은 모두 ‘나눔’에 대한 ‘개인적 차원’ 채러티 성격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 필란트로피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기관들이 수행하는 나눔교육의 목표를 분석해 보면, 배려와 소통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할 동기부여, 생애주기적 실천을 통해 지구 공동체를 위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까지 상당히 폭넓게 묘사되어 있다.<sup>1)</sup>

이번 현황조사에서는 첫째, 나눔교육 외에도 기부, 자원봉사, (세계)시민교육, 사회참여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실천부터 건강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참여가 청소년 스스로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와 기대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은 무엇이고,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성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활동의 어려움이나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본 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활동들을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나눔’, ‘시민성’, ‘청소년’, ‘사회참여’ 등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나눔의 의미와 관련하여 ‘채러티’, ‘필란트로피’에 대해 정의한 내용과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관련성에 대해 기존에 연구된 이론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한다. 또한 조사에서 주요하게 초점을 맞췄던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참여’와 ‘청소년의 사회참여’, ‘청소년 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다뤘다.

1) 이민영 · 윤민화(2015).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 평가 연구. 아름다운재단

둘째, 현황조사에 참여한 32개 기관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기관들이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성인 그룹의 역할, 활동을 통한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표현하는 언어와 진행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각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최근의 나눔교육 외 청소년사회참여 분야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파트너 교사 ‘반딧불이’가 기관들을 만나면서 느낀 소감과 국내 나눔교육 현황조사에 참여한 32개 기관의 소개와 인터뷰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질문지 전문을 담았다.

## II. 나눔교육현황조사를 위해 살펴본 개념들

### 1. 필란트로피 (philanthropy)

나눔교육 준비를 위해 갔던 미국연수에서 유스필란트로피를 접하였다. 미국의 유스필란트로피(Youth Philanthropy)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에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시간(time), 재능(talent), 물건(treasure) 등을 기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말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뭔가 값어치 있는 것을 줄 때 이런 행위를 ‘기부한다’라고 하며 이를 ‘자선’, ‘박애’, ‘나눔’ 등 다양한 용어로 함축해서 표현한다. 이에 상응하여 영미권에서는 일찍이 ‘채리티(charity)’ 혹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들 두 용어는 다른 용어들에 비해 더 많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각각은 서로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채리티와 필란트로피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채리티가 개인적 차원의 ‘측은지심’이라는 감성적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필란트로피란 이런 감성을 갖고 사회적, 구조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삶의 질의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위해 시간 및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받는 행위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필란트로피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 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필란트로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은 어떤 공식적 또는 법적 책임도 없는 사람을 위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나 지역사회 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필란트로피 활동 범위는 모금행사조직을 위한 직접 서비스부터 애드보커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이형진(2014),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 2014 기획연구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가치	범주	역할
협동 자발성 공익/공공성 지속성 주체성 사회변화/참여	개인적 삶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도덕적 이슈를 다룸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 어떤 공식적 또는 법적 책임도 없는 사람을 위해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기초적 수요 충족), 지역사회 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시키는 것(삶의 질 향상)	I. 서비스 역할 II. 애드보커시 역할 III. 문화적 역할 IV. 시민적 역할 V. 선구자적 역할

[표1 - 필란트로피의 개념 \*출처: RL.페이튼 & M.P. 무디(2017) 재구성]

필란트로피 교육은 미국의 시민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필란트로피의 지식, 기술, 행동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우리 일상에서 왜, 어떻게 나누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의 필란트로피 교육은 1980년대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작은 정부와 큰 시민사회를 지향한다. 즉,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인 필란트로피가 미국 사회를 발전, 지탱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더불어 세대가 바뀌면서 기부와 자원봉사 같은 시민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협동(공동체)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겼다. 그에 따라 다음 세대에게 시민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필란트로피’를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또한 필란트로피 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청소년을 ‘문제행동’을 하는 ‘미성숙한 존재’에서 ‘지역사회의 자산’이자 ‘성숙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등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자산,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스필란트로피가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sup>3)</sup>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유스필란트로피를 통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기여자로서 인정받는다. 셋째, 아동·청소년들이 기부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지역사회 활동에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들 발달을 위한 노력/리더십 개발을 한다.

## 2. 민주주의, 시민

필란트로피는 시민들 사이의 신뢰,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지속시키는 신뢰 구축을 돕고, 국가 성공 시기는 물론 위기의 모든 시기에 중요한 시민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필란트로피가 공적 문제 해결이라는 민주적 과업에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필란트로피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정치적 현상만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문화를 유지해 온 가치 중 많은 것이 정부와 시장부문에서만 아니라 필란트로피 부문에서 함께 만들어져 왔다.<sup>4)</sup>

3) 아름다운재단(2016),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해외연수 보고서

4) RL. 페이튼, M·P. 무디(2017),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 아르케, p229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인 ‘시민’없이 작동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실천 행위를 통해 추구해야 할 가장 넓은 의미의 가치이다. 민주시민성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훈련과 습관의 결과이다.<sup>5)</sup>

시민성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참여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야 한다. 시민성은 구성원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때 형성될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는 활동에의 개입, 즉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하게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와 시민적 호기심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및 일상 등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민주시민성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단순히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시민, 참여하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시민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청소년사회참여<sup>6)</sup>

청소년참여란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도출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청소년 사회참여란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을 추구해가는 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분	청소년참여 개념 정의	핵심요소(키워드)
Hart (1997)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	■ 영향력의 발휘 ■ 의사결정의 공유
Winter (1997)	■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 능동성 ■ 참여의 영역으로 생활 ■ 환경 강조
Checkoway (1998)	■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	■ 영향력의 발휘 ■ 의사결정에의 개입
천정웅 (2011)	■ 자신들의 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 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영향력의 행사 ■ 의사결정과정에 관여

[표4 청소년 참여 개념정의]

5) 심성보(2017), 한국 민주주의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제67집, p93

6) 황여정(2017), 청소년의지역사회참여모형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학교 포함)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 청소년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서 활발한 시도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체	내용
교사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들의 노력으로 공교육 안에서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후 또는 토요일 수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사례</li> <li>■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로 확산되기도 함</li> </ul>
청소년기관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참여하여 인근 주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 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변화' 등</li> </ul>
민간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 예)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li> </ul>
새로운 섹터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탐색, 사회적기업가 정신함양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활동하는 소셜 벤처 등 예) 체인지메이커 양상을 위한 어썸스쿨 등</li> </ul>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입시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탈피하여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청, 학교 주도의 노력 예) 경기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추진하는 '꿈의학교'</li> </ul>

[표5 청소년 사회참여모형 \*출처:황여정(2017),p.56]

#### 4. 청소년에 대한 관점 :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청소년 참여에 대한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성인의 역할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성인들이 가진 권한을 청소년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활동의 내용과 성격들이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진정한 청소년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과정과 공간에 청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관점	자기결정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려는 것</li> <li>■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li> <li>■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관점</li> </ul>

[표2 청소년에 대한 관점 \*출처: 최윤진(2016)]

근대 이전 전통사회에서 청소년은 단지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간주되었던 반면,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옹호사상이 증대되어 오면서 청소년들은 주로 보호와 양육의 관점에서 그 권리가 확장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청소년 권리의 논의는 점차 양육과 보호로부터 불간섭과 자율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권과 복지권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관련 UN 규범의 주요목적이 생존, 보호, 발달인 반면 청소년 관련 규범의 주요목적이 참여, 발전, 평화인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아동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참여권, 자기결정권 등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이 강조되고 있다.

## 5. 청소년 참여운동의 방향 : ‘준비참여’로부터 ‘지금참여’로의 변화<sup>7)</sup>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시민이며 사회참여를 위해 시민성 함양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그에 반해 청소년의 권리를 중요시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청소년은 현재 시민으로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성인들은 권리를 공유하고 현재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질문	준비참여 engagement	지금참여 engaging
청소년은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시민</li> <li>■ 아직 시민이 채 안된 존재</li> <li>■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적 행동자(civic actor)</li> <li>■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li> <li>■ 현재 시민</li> <li>■ 공공사업가</li> </ul>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무관심, 무흥미, 교육받지 못함</li> <li>■ 적절한 시민 지식, 기술, 태도가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은 현존 구조에 연결되지 못하고 격리됨</li> </ul>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과 교육 : 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경험 기회 제공,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기회제공</li> </ul>
어떻게 해야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보여주는 성과에 초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슈에서의 민주적 과정과 실질적 변화에 초점</li> </ul>

[표3 청소년 참여 운동의 방향 \*출처: 최윤진(2016),p24-25]

7) 최윤진(2016), 청소년 인권의 쟁점과 청소년 참여운동, 시민청소년학연구, Vol 7, No.2 pp.24-25

미국사회에서 청소년 및 청년세대들의 사회적 무관심, 투표율 저조, 정당 및 사회단체에의 불참여 등 비정치적 행태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1990년대의 상황에서 이러한 젊은이들의 사회적 무관심과 비참여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즉 기존에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부족한 원인은 청소년들이 아직 충분한 시민성을 갖추지 못하고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 참여에 필요한 능력이 미흡한데 있다고 보고,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학습 등 구조화된 참여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장차 성인이 되어 수행할 실제 참여를 대비한 교육과 훈련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민성이나 시민역량의 부족은 개인 능력의 결핍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간주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정치사회적 무관심과 비참여로 인한 사회문제에 봉착하면서, 청소년 참여의 문제는 개인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관련 학자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즉 청소년들은 실제 사회문화 정치적 사회구조, 규범, 제도와 격리된 채 일반 성인들이 수행하는 시민적(civic), 정치적(political), 공공적(public)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고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실제 적극적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탐험이야기



“우리가 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청소년 강사단은 원고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강의한 후 생각이 달라져 있었다.  
“그래도 해볼래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이들과 목소리 내고 싶어요.” 라고  
시작은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어쩌면 너무나 큰 그림이라 거부하는 반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결국 목소리 내고 싶어진 이유는 본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들꽃청소년세상 인터뷰 중에서





### Ⅲ. 조사개요

#### 1. 조사방법 및 대상

국내나눔교육 현황조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의 파트너 교사인 반딧불이 3인(박은주, 송은옥, 조영실)이 32개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였다.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에서 나눔교육, 시민교육, 청소년참여활동 영역 등 유스필란트로피와 유사한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는 111개 기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중 현재 활동 중이며 인터뷰가 가능한 곳 32개(아름다운재단 포함)를 선정하였다. 운영하는 기관들의 법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비영리기관, 청소년자치단체, 학교, 마을조직을 기준으로 1차 선별하였고, 이 중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면서 인터뷰에 응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인터뷰 형식으로 각 기관의 개요 및 대표적인 주요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각 활동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의 의미/중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조사는 연구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내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인터뷰 내용을 서술하여 담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은 아래와 같다.

#### 2. 인터뷰 기관 리스트(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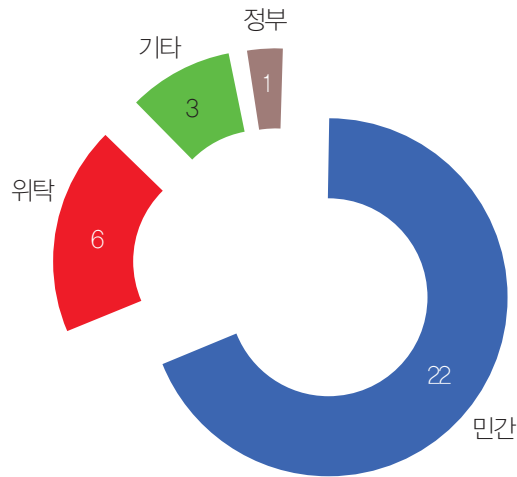
기관명	프로그램명	활동지역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우리동네에서땀땀할사람	경기도 부천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 변화	서울시 노원구
동안청소년수련관	안양청소년정책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아무거나프로젝트	서울시 동작구
들꽃청소년세상	돌봄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서울시 전역
마을탐사단 청바지	마을탐사단 청바지	서울시 도봉구
미래교실네트워크	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진짜 세상 문제해결 협력적프로젝트 수업	전국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민주시민교육	서울 수도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	전국

기관명	프로그램명	활동지역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팀프로젝트 나비효과	경기도 부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찾아가는 사랑의열매 나눔교육	전국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어린이 나눔새싹교육, Thanks to My Hero	서울시 서초구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경기도 성남시
성미산학교	나비효과	서울시 마포구
송석교육문화재단	인문학교실 콤	서울 수도권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서울 수도권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	전국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실	전국
어썸스쿨	히어로스쿨	전국
언니오빠형누나	놀이터 플레이 프로그램	서울시 광진구
열린사회시민연합북부시민회	우리지역보물탐험대, 해뜨는 집	서울시 강북구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전국
유쓰망고	유쓰벤처	전국
은평구청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사회참여프로젝트 : 신나는 상상	서울시 은평구
인생나자작업장	나눔활동 : 자원순환마을	경기도 군포시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인권기획단	대구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천시 서구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기자단 ASPECT	전북 군산시
피스모모	청소년 집시위크(GYPCI Week)	서울
하자센터	생각하는청개구리: 움직이는창의놀이터/창의클래스	서울시 영등포구
홀트아동복지회	홀트가족나눔교육	전국
희망제작소	내.일상상프로젝트	일부 지역

[표6 인터뷰 기관 리스트]

### 3. 기관별 운영형태

나눔교육현황조사에 참여한 기관별 법적형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 위탁운영, 기타형태, 정부기관 네 분류로 보았다. 민간은 기관의 법적근거 형태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기관, 임의단체로 등록된 곳이며, 위탁운영은 법적지위형태는 아니지만 정부시설의 운영을 민간 비영리기관 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기타 주식회사로 등록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별도로 보았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림1-기관별 운영형태]

현황조사 한 32개 기관 중 22개 기관은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교육 영역에서 진로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비영리기관이면서 정부 시설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6곳으로 확인됐다. 3곳은 임의단체나 사회적기업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머지 1곳은 정부 특별법으로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다. 대부분 민간에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체 운영되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현황 및 특징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공교육 시스템에서 청소년사회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민간의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 방과후 수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 IV. 현황 및 특징

각 기관에서 1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기관별 대표 프로그램 31개와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를 포함하여 총 32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현황조사에서는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 분석하지 않았다. 대략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기 위해 임의 기준을 정해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나눔교육이나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활동을 위해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참여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 기관들의 프로그램별 참여기간, 참여정도, 모집방법, 참여청소년들의 연령대를 정리하면 [표7]과 같다. 아래 표의외의 각 기관별 다양한 활동들은 부록에 실린 기관별 인터뷰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 프로그램별 특징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참여정도	모집방법	연령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우리동네에서땀뿡할사람	연간	고	지역사회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변화	연간	고	지역사회	○○●○○
동안청소년수련관	안양청소년정책학교	연간	고	지역사회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아무거나 프로젝트	연간	고	지역사회	○○●○○
들꽃청소년세상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T	연간	고	지역사회	○○●●●
마을탐사단 청바지	마을탐사단 청바지	연간(및 회당)	고	지역사회	●●●●●
미래교실네트워크	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연간	고	학교연계	○●●○○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청춘발산프로그램	연간	고	혼합모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	연간	고	혼합모집	○●●○○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팀프로젝트 나비효과	연간	고	지역사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찾아가는사랑의열매나눔교육	8회기(8시간)	중	학교연계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Thanks My Hero우리동네영웅찾기	연간	고	학교연계	○○●○○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연간	고	지역사회	○○●○○
성미산학교	인권동아리 나비효과	연간	저	학교연계	○○●○○
송석교육문화재단	인문학교실 쿼	연간	고	지역사회	○○●●○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중고등)	6~9회	고	혼합모집	○○●○○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	8회이상(16시간)	고	혼합모집	○●●●○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실	1회이상	저	학교연계	○○●○○
어썬스쿨	히어로스쿨	연간	고	학교연계	○○●○○
언니오빠형누나	놀이+터 플레잉 프로그램	연간	고	지역사회	○○○●●
열린사회시민연합북부시민회	우리지역보물탐험대	1회(6시간)	중	학교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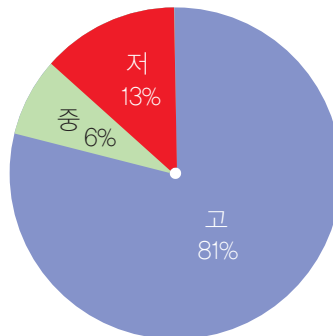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참여정도	모집방법	연령대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1회(1~2시간)	저	학교연계	●●●○○
유쓰망고	유쓰망고	연간	고	학교연계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 상상	연간	고	지역사회	○○●○○
인생나자작업장	자원순환마을	연간	고	지역사회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인권기획단	연간	고	지역사회	○○●●○○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청소년 운영위원회	연간	고	지역사회	○○●○○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기자단 ASPECT	연간	고	지역사회	○○●○○
피스모모	청소년 집시워크	5~6일	고	지역사회	○○●●○○
하자센터	생각하는청개구리:움직이는창의클래스	연간	고	학교연계	○○○○○
홀트아동복지회	홀트가족나눔교육	1회(2시간)	저	학교연계	○○●●●●
희망제작소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간	고	지역사회	○○●○○

[표7 프로그램별 특징]

●○○○○	만5~6세	유아
○●○○○	만7~12세	초등
○○●○○	만13~18세	중고등
○○○●○	만19~24세	후기청소년
○○○○●	24세 이상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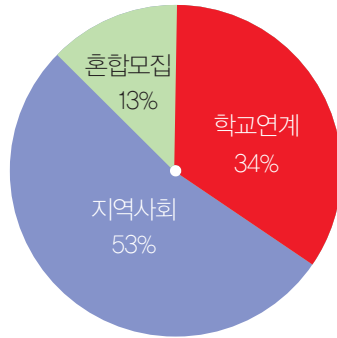
[표8 연령대 표기 기준]

첫째, 프로그램 참여 연령대는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각 기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 연령대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 따라 만 5~6세 유아, 만 7~12세 초등, 만 13~18세 중고등으로 표기하였다. 그 외,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만 9~24세로 보고 있었으므로, 만 19~24세를 후기 청소년으로 추가 하였다. 만 24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대부분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참여 연령대 폭이 넓은 경우도 있었다.



[그림2 참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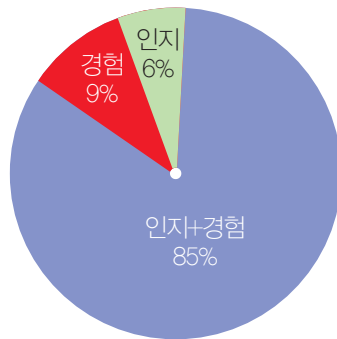
둘째, '참여정도'에서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 보았다. [그림2 참여정도] 참여의 정도를 활동 기간, 횟수, 총 참여 시간에 따라 '고, 중, 저' 순으로 기여한다고 보았다. 참여도 '고(高)'의 경우 전체 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연간 활동으로, 최소 월 1회 모임을 하며, 총 참여 시간이 1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참여도 '중(中)'은 2회 이상에 걸쳐 참여하며 총 참여 시간이 6시간 이상~16시간 미만일 경우이다. 참여도 '저(低)'는 1회이거나 총 참여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로 보았다. 아래 [그림1 참여정도]에서 보면, 87%가 '고', '중'에 해당하는 높은 기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3%는 단회차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3 모집방법]

셋째, 프로그램 '모집영역'을 학교연계와 지역사회 또는 혼합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연계'의 경우 프로그램 주최는 민간 비영리단체이나, 공교육의 자유학기제/방과후동아리/진로탐색활동 등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프로그램 주최 기관이 직접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그 외 하나의 프로그램이 두 형태 모두 진행되는 경우 '혼합모집'으로 보았다. 이를 살펴본 이유는 최근 나눔교육 외에도 청소년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53%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청소년단체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됐다. 34%는 학교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나눔교육, 공정무역교실, 세계시민교육, 자원봉사,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유학기제 또는 방과후 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 2. 프로그램별 활동형태



[그림4 활동형태]

각 기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인지’와 ‘경험’ 또는 두 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인지+경험’으로 구분해서 보았다. ‘인지’활동의 경우 나눔, 공동체, 시민, 인권, 환경, 정책제안 등 공동체와 공익을 이해하기 위해 지식, 기술, 토론 등의 인지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경험’은 별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치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인지+경험’은 프로젝트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지 활동이 동반된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85%의 기관이 인지와 경험 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9%에 해당하는 3곳은 자치운영활동 등 청소년이 직접 운영 및 실천활동을 진행하는 경험 중심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6%인 2곳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해와 토론, 탐구 활동으로 인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 3. 활동주제와 참여방법

활동주제	참여방법
나눔, 공동체, 공정무역, 되살림, 착한소비(윤리적소비), 세계시민, 사회적기업, 인성, 아동인권, 환경, SDGs, 평화, 사회참여(정책제안), 인권, 진로, 놀이, 민주시민, 자치운영, 자유주제 등	캠페인, 바자회, 기증, 윤리적소비하기, 모금, 기부, 베품시장, 봉사활동, 재능기부, 1인시위, 집회참여, 서명운동, 애드보커시, 설문조사, 인지교육, 토론, 청소년강사단, 입법활동, 지역조례만들기, 정책제안, 놀이, 공간디자인, 몸활동, 플래시몹,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자치활동, 지역사회탐방, 진로탐색연계, 기업가정신프로젝트

[표9 활동주제와 참여방법]

각 기관 프로그램의 활동 주제를 살펴보면 ‘나눔, 공정무역, 세계시민, 인성, 아동인권, SDGs, 평화, 민주시민, 자치, 자기결정권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폭 넓은 행위에 기반한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었다. 위 활동 주제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나’ 자신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청소년들의 일상의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영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와 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 관심과 선호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다양했다. 모금이나 기부, 베품시장과 같이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매개로 한 활동이 있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실천 방법 중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었다. 자신이 잘하고 관심 있는 부분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사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1인시위, 서명운동, 설문조사’와 같은 애드보커시 활동, 청소년이 공공정책 반영을 위한 ‘입법활동, 정책제안 등’과 같은 제도권 내 정치참여적인 활동, ‘플래시몹, 놀이, 몸활동’과 같은 문화예술적인 활동, 기업가정신프로젝트나 진로탐색활동을 자신의 진로와 지역사회 연계한 활동도 있었다.

기관에 따라서는 활동 주제 또는 사회 이슈의 이해를 위한 주제별 강의, 토론, 교육 등과 같은 인지 활동이 두드러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인지활동 이후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하는 모금, 기부, 캠페인, 애드보커시, 문화예술활동, 정책제안 등 경험 활동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찾아보고, 해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활동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각 기관별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 운영 현황

각 기관이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함께하는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의 유무와 역할을 살펴봤다. 기관에 따라 성인 멘토가 활동가로만 구성되기도 하고, 외부 자원(강사, 자원봉사 등)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이미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후기 청소년들이 멘토로 함께 하기도 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성인 멘토의 역할과 관계 설정이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부분은 기관별 특징을 그대로 살려 두었다.

기관명	주요내용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청년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에 활동했던 청소년이 올해 청년활동가로 참여</li> <li>■ 멘토의 역할이나 모델링이 필요하겠다 제안</li> <li>■ 사전워크숍부터 함께 참여, 진행속도에 따라 함께 호흡하고 속도 조절</li> <li>■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함께 소통하고 균형 맞추는 역할</li> <li>■ 질문하는 역할, 격려하고 지지하고, 피드백 해주는 역할</li> </ul>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대학생 멘토단 (청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0명 모집(1년 동안 활동), 자원봉사로 운영</li> <li>■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li> <li>■ 청소년 1팀을 1년 동안 맡아 멘토로 활동</li> <li>■ 대학생 멘토도 청소년 팀의 팀원으로 함께 성장. 대학생 멘토단에게 특별한 역할에 대해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한다.</li> <li>■ 월 1회 정기모임 진행, 활동일지 작성</li> <li>■ 청소년 팀과 실무자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가 되어 줌</li> <li>■ 멘토들은 &lt;시작한변화&gt;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대로 ‘청소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li> <li>■ 1년 동안 꾸준히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이라서 모집이 쉽지 않음</li> </ul>
동안 청소년수련관	참가모듬별 지도자 구성 필수 (학교, 학원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으로 팀이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li> <li>■ 실제 활동 시 전문 멘토가 5인으로 구성</li> <li>■ 전문멘토단은 수련관에서 구성</li> </ul>

기관명	주요내용
<p>동작 청소년문화의집</p>	<p>멘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하는 팀에서 멘토(지도교사, 마을교사, 학부모) 구성</li> <li>■ 멘토에게는 연간 10만원 지원</li> <li>■ 멘토 설명회 진행, 청소년 활동을 돕고 정산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li> <li>■ 서포터즈단 운영 : 청소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마을과의 연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li> <li>■ 서포터즈단은 청소년을 만나는 성인, 전문기술(의사소통, 자원연계 기술) + 지식(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이해, 동작구 지역사회의 정보, 참여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등) + 태도(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인정,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태도)</li> </ul>
<p>들꽃청소년세상</p>	<p>활동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활동가 4명과 자원활동가 4~5명이 하루에 활동</li> <li>■ 40시간의 기초교육, 매주 활동가 활동 슈퍼비전(3~5시간) 주제 이슈에 따라 수시로 심화교육이나 특강</li> <li>■ 버스에서 상담도 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도 함</li> </ul>
<p>마을탐사단 청바지</p>	<p>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인 멘토는 별도 운영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회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음</li> <li>■ 부모/청소년들이 따로 정기회의 시, 성인 1명이 회의 진행을 돕거나 회의할 결과에 대한 실행 지원</li> </ul>
<p>미래교실 네트워크</p>	<p>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들을 위한 '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연수 프로그램 진행</li> <li>■ 사최수프 기본 개념과 철학 구현</li> </ul>
<p>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결</p>	<p>민주시민교육 강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일산, 안산, 군포 YMCA와 함께</li> <li>■ 월1회 모임 및 토론, 교육지원, 강의안 만들기</li> </ul>
<p>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p>	<p>팀별 지도교사 (학교 교사, 청소년 지도사, 시민단체 활동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촉진자(피실리데이터) 역할</li> <li>■ 거대한 주제보다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li> <li>■ 지도교사들에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도서 제공 및 설명회 진행</li> <li>■ '교사 연수 프로그램' 예정</li> </ul>
<p>부천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p>	<p>청년 멘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 청소년들로 구성</li> <li>■ 역량 강화 및 전체흐름 파악을 위해 문화의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민주시민교육이나 역사, 평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참여와 운영</li> <li>■ 2017년엔 나비효과에 참여하는 팀에 멘토로 활동</li> <li>■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협약기관인 재단에서 장학금(활동비) 지원</li> </ul>

기관명	주요내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p>나눔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강사양성프로그램(30시간)을 운영, 무료 강사 양성</li> <li>■ 교육시기 : 연2회(3월, 9월)이고 회기 당 20명 이내로 모집</li> <li>■ 교육내용 : 나눔의 이해, 교육대상의 이해, 나눔교육의 이해 및 실습, 강사의 자세와 교수법 훈련 등</li> </ul>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p>Thanks My He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li> <li>■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교사가 멘토로 활동</li> <li>■ 교사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li> <li>■ 멘토의 역할은 학생들이 활동일지를 제출하면 센터와 소통</li> <li>■ 학생들을 지지해 주고 센터와 연계역할</li> </ul> <p>나눔새싹교육 진행 전문봉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양성과정을 실시(연1회/7월)</li> <li>■ 자원봉사의 새로운 이해, 어린이 발달에 대한 이해, 나눔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나눔지기의 역할, 나눔교육 시연 등으로 교육과정 진행</li> <li>■ 나눔새싹교육 참관 및 보조진행, 현장경험을 쌓은 후 주강사로 활동</li> <li>■ 교사오리엔테이션 진행</li> </ul>
성남시 청소년재단	<p>코디(청소년들과 함께 의회 활동하는 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만들 때, 타당성, 중복성, 상충성 및 유사사례 검토</li> <li>■ 입법활동 지원 및 의원 워크숍 진행시 코디 등 전반적인 의회 활동 관여</li> </ul>
성미산학교	<p>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심리적 의지할 수 있는 역할</li> <li>■ 모임을 만들고 꾸려내는 것은 모두 학생들의 자율적 모임</li> </ul>
송석 교육문화재단	<p>프로그램에 따라 다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인문학 강사 :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 선생님들은 잘 이끌어내고, 이야기를 정리하는 역할</li> <li>■ 담당강사 : 주로 질문던지기, 토론열기 등의 역할</li> <li>■ 대학생 : 인문학교실 쿼터 멘토로 분과별 워크숍 진행</li> <li>■ 인문학 강사, 재단강사 : 캠프의 전 과정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접근</li> </ul>
아름다운가게	<p>활동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교육팀에서 직접 진행, 나눔교육 서포터즈가 보조강사로 활동</li> <li>■ 기타 지역 내 매장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함</li> </ul>
아름다운재단	<p>반딧불이(파트너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 강사로 현재 7인으로 구성</li> <li>■ 나눔교육'반디' 프로그램 강의, 파트너 멘토 등의 활동을 진행</li> </ul>

기관명	주요내용
아름다운커피	<p>공정무역 시민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무역강사, 캠페이너 활동</li> <li>■ 1~6기 진행 현재 158명(전국), 자원봉사로 진행(강사비 없음, 교통비 있음)</li> <li>■ 비 상시 모집, 공정무역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li> <li>■ 2시간30분씩 8회차 교육 60% 이상 수료, 수업 시연까지 통과 시 시민대사 임명(학습교실만 투입)</li> <li>■ 심화강연, 강사교육, 정기교육, (주로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 위주, 생산지 이야기, 강사역량강화 교육 보완 필요)</li> <li>■ 강사로서의 스킬보다는 공정무역에의 관심, 가치에의 공감을 높이 사는 사람 위주로 선정</li> </ul>
어썸스쿨	<p>청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여명으로 구성</li> <li>■ 페이스북으로 모집,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 3가지 기준(스펙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개인의 우월함보다 협업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li> <li>■ 히어로스쿨 과정 이수 후, 현장실습, 연구강의 통과하면 강사임명</li> <li>■ 강사비(시간당 강사비, 교통비) 제공</li> <li>■ 역량강화 교육 분기별 진행, 소모임 지원으로 스터디, 프로젝트 직접 해보기 등을 통해 역량강화</li> </ul>
언니오빠형누나	<p>후기청소년그룹이 구성되어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약 30여명</li> <li>■ 대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다양하게 구성</li> <li>■ 뜻을 같이 하는 자원봉사자 선발, 봉사시간(4시간)부여</li> <li>■ 참여자들이 함께 스터디, 개별아동 및 놀이예의 피드백</li> <li>■ 강의식 교육보다는 직접 가서 현장에서 서로 배움이 일어남</li> <li>■ 방학마다 워크샵 년2회 5~6시간씩 놀이, 아이들 사례, 놀이 아이디어 등에 대해 진행</li> </ul>
열린사회 시민연합 북부시민회	<p>강사와 학교 선생님, 학부모 교사 2인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인 경우 4시간의 사전교육수강</li> </ul>
월드비전	<p>재능강사 700명(전국 20여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년 단위 활동 강사 선발 및 인증</li> <li>■ 24시간 워크숍, 지속적인 스터디와 보수교육 진행</li> <li>■ 지부를 통해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li> </ul>
유쓰망고	<p>체인지메이커 교육자(가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li> <li>■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줌</li> <li>■ 청소년 체인지메이커와 마찬가지로 공감과 행동이 가장 중요, 지도교사는 임의로 판단, 주제 선정 지양, 팀 구성 지양,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도록 함</li> </ul>
은평구 청소년문화의집	<p>상상서포터즈(청소년팀과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지지해 주는 서포터즈) 기획팀은 지역사회 활동가, 프로젝트팀은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활동</p> <p>팀별 1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모르는 정보만 알려주고 개입을 가능한 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교육(청소년의 이해/사회참여의 이해 교육) 필수 참석</li> <li>■ 상상서포터즈 정기회의/사회참여활동 서포팅</li> <li>■ 신나는상상 활동발표회 기획 및 진행</li> </ul>



기관명	주요내용
인생나자작업장	멘토라기보다 함께하는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하고 마당 열어 준비하고, 필요를 파악하며 챙기고, 좀 더 다양하게 표현, 드러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아이들의 활동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서 공유해 주기도 하고 널리 알려주는 역할</li> <li>■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및 활동 마무리에 대한 고민</li> </ul>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일꾼(자원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꾼들이 각 활동을 담당, 모임 진행, 사업이 잘 굴러 가도록 보조역할. 즉, 일꾼들은 사업비를 지원 받아오는 큰 바람막이 역할</li> </ul>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멘토라는 개념보다는 청소년들과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있음</li> <li>■ 청소년들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청소년들 개개인의 재능들을 발견하고 지지해주는 역할</li> <li>■ 기수별로 함께 하는 성인의 역할이 다름. 서포트 해주는 역할, 동기부여, 지지하는 역할</li> </ul>
청소년 자치연구소	자치기구별 담당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해주고, 임파워먼트를 주는 역할</li> <li>■ 네트워크(청년이음)를 통해서 지지하고 힘 받는 시간을 갖고 있음</li> </ul>
피스모모	성인멘토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음. 2017년의 경우, 피스 액티비스타(자원활동가), 평화교육 진행자4인, 길잡이 5인(필드워크 안내자), 필드워크 진행자 1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운영 관련자 모두가 청소년 참여자와 수평한 관계에서 만나고 서로배움을 나누고자 함</li> <li>■ 워크숍 진행자와 길잡이는 피스모모의 평화교육 진행자되기 프로그램 수료자가 담당</li> <li>■ 워크숍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진행으로 이루어짐</li> <li>■ 다양한 진행자를 통해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기획</li> <li>■ 길잡이의 경우, 청소년참여자와 함께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 필드 워크 시 안내자 역할 및 팀별동행</li> </ul>
하자센터	성인멘토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기획자가 있으나 모임이 자발적으로 운영</li> <li>■ 4~5년 활동한 활동가들이 4~5명. 선경험자들이 새로운 활동가를 맞이하고 이끌어주는 방식</li> </ul>
홀트아동복지회	나눔교육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16~20명 구성</li> <li>■ 서류심사 후 면접, 강의 시연 절차로 선출</li> <li>■ 일반강사, 전문강사, 책임강사로 진행(강사비 지급)</li> <li>■ 역량강화를 위한 반기별 봉사활동, 교육 및 외부 특강. '강의력 증진대회' 진행 예정</li> </ul>
희망제작소	지역 파트너단체 실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자원을 연결, 탐방 인솔, 회의 진행 등 역할 진행</li> <li>■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li> </ul>

[표10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 운영현황]

## 5.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 역할과 역량

역할	역량
<p>홍보역할, 정보제공자                      질문하는 사람, 촉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필요한 자원 연결하는 사람                      돕는사람(청소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p>	<p>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자기주도성 인정                      수평적 소통, 직접 개입 최소화하기                      '청소년=시민'으로 인정                      시민으로서 역할/참여 돕기                      임의판단 or 주제제시 지양하기                      기관의 활동 가치에 공감하기                      도움을 요청할 때 까지 기다리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하기                      스스로 발견한 문제에 대한 공감하기</p>

[표11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 역할과 역량]

각 기관이 지향하는 멘토 또는 성인활동가(이하, 성인그룹)의 역할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보았다. 기관마다 청소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성인 그룹의 구성, 관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달랐다. 크게 네개의 그룹으로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외부 자원을 통해 기관의 가치와 취지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있었다. 이 경우 기관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입과 질문,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별도의 외부 자원 없이 기관의 활동가가 중심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체를 진행하거나,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장(場)만 마련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곳도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청소년이 중심이 된 그룹으로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되거나, 기존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수료 후 해당 활동의 멘토로 구성된 그룹도 있었다. 후기 청소년 그룹의 경우, 신입 활동 청소년들과 유대 및 프로그램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이는 기타 성인 멘토들이 갖추기 어려운 역할로, 자치 운영에 목적을 두는 활동일 경우 구성되었다.

현황조사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멘토 또는 성인그룹의 역할이 무엇인냐는 물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안내하고, 촉진하고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거나 실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주입식, 수직적인 지식전달 교육의 한계를 발견하고 참여자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배움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역할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주변에 홍보를 하는 등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성인 멘토나 성인그룹이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요구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하는 학교, 지역사회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성인 멘토가 특별하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청소년과 성인 그룹을 나뉘지 않고 서로 배우는 존재로 대하고 함께 하는 관계로 활동하고 있었다.

## 6.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한 참여를 경험하고, 책임감과 주체성을 갖는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신뢰성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주체적인 사고와 경험을 통한 시민성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각 기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은 다르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모아 봄으로써 현황조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나눔’ 과 ‘사회참여’, ‘유스필란트로피’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 활동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역할로 이해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스필란트로피 활동에 있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청소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공익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1)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존재자체로 지지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충분히 누리면서 다양하게 자신의 색깔로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또 공동의 목표나 공동의 과제, 넘어야 할 주제가 있을 때는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청소년기에 작은 결정이라도 내려 보고 실행해 본 친구들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결정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힘, 디자인 하는 힘을 갖고 협력하는 것을 배워가길 바란다.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주체성은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주체로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 사회참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주인이 되는 것, 공동체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활동들을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중략) 연대와 협력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연대단체와 펼쳐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며, 현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것,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아는 것,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청소년들 모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스모모에서 허공에 뜬 세계시민성이 아닌, 글로컬(Glocal)시민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피스모모

청소년들이 최대한 자치활동으로, 자치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센터지기들이 좀 더 기다려주는 편이다. 자치력이라 하면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이다.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자치라고 생각한다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자기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삶의 공간 안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리가 있어서 참여한다는 것의 요체는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하는 거다.

- 청소년자치연구소

## 2) 공익적 활동

나눔교육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커서 사회를 구성할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 중요성을 아는 어른이 많아지는 거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가장 큰 효과는 학습성이라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참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시민이 되길 바란다.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아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이슈와 주제에 대해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주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눔교육의 의미는 공동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해 본다는 것이다. (중략) 생각을 펼치고 대화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 아름다운가게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나, 우리 가족, 친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보는 것. 내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기에 알게 되는 것 중요하다.

- 아름다운커피

처음 세계시민을 들었을 때는 세계문제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점차 내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시민에서 처음에는 '세계'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시민'에 방점을 찍는다.

- 월드비전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은 스스로가 내가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자, 사회적 책임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마을 주민들 또한 청소년을 함께하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시민성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들을 시민참여운동,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도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직접 참여해서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공감하고 확장하는 작업도 있고 문제만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범위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활동을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때부터 그런 건강한 경험들이 많아야 한다.

-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나로부터 시작한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고 아이들도 느껴 가는 것 같다. 진짜 지역사회를 바꿔놓을 거야라고 활동을 시작하다가도 이게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고 그때 개개인은 ‘나부터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가는 것, 이게 단순히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것이 바뀌고 성숙한 시민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 알아차리거나, 다른 삶을 고민해보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다. 보통의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건 아니지 않아? 알아차리고, 실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본다면 좋겠다.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계속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역량과 능력, 삶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남’이 아닐까 싶다. 사회에 의미 있는 ‘길’과 ‘장’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청소년과 많이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이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개척해가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자센터

진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또래 청소년들과 협동과 연대하면서 시민의식이 강화된다.

- 희망제작소

### 3) 민주시민으로 성장

나와 내 가족만 좋은 삶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존재들, 자연, 동물, 여성, 소수자, 장애인 같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좋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양성을 버리면 안 된다. 청소년들은 궁극적으로 이 다양성 안에서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지향점을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 보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더 많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청소년들의 앞으로 활동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이나 관계, 만남은 배운다고 해서 터득되거나 소통되는 게 아니다. 결국엔 어릴 때부터 자꾸 만나고 스킨십도 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 어떤 다양성의 성장과정이 필요하다.

- 인생나자작업장

청소년기에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즐겁게 하게 하는 것,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내고 네트워크의 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학생 때 학교를 변화시켜본 경험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중략)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내가 속한 곳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어썸스쿨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나만 성공해서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간다.

- 인천청소년인문도서관 느루

체인지메이커 활동으로 학교에서는 해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 이런 경험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도와준다.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아이들은 전통적인 시민단체, NGO활동가와와는 또 다른,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소셜 섹터의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래의 자신들의 직업을 생각할 때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 유쓰망고

## 7. 활동을 통한 변화

활동을 통해 참여했던 당사자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물었다. 청소년들은 활동 초기에는 큰 의미 부여나 기대를 갖지 않고 참여를 하였지만, 활동을 통해 나 외의 주변을 돌아보며 학교 수업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 하며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청소년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터뷰내용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의 변화

활동가나 멘토가 늘 질문을 던지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발표하는 능력이 느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고 가는 것 같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처음에 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 점수'를 위해서 오게 되지만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팀원들과 협업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변화, 성장한다. 7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서 초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된 경우도 있는데 자기 삶의 주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공동체에서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세상으로 시선,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인 것 같다. 실천단의 경우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달라지기도 한다.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힘, 삶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그때 실천단 활동 1주기 이후에 집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나서 그 가을에 갑자기 뭔가 새로운 시도, 일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다짐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중략) 하위욕구부터 하나씩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 아닌 오히려 상위욕구를 건드려 줄 때 그 필요에 의해 스스로 하위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변화가 보인다.

-들꽃청소년세상

교사나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종합적인 역량의 성장이다. 일단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이 크게 신장하고, 자신감과 회복탄력성이 생기고 자기효능감이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게 나타났다.

-미래교실네트워크

청소년도 봉사활동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인식해가고, 본인들의 사소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알아간다. 본인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알아간다. (중략)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는 활동이 봉사활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간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활동을 끝까지 함께 한 청소년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변화,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보여진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물론 선배나 부모님의 권유로 봉사활동 기록하려고 멋모르고 왔던 청소년들도 활동을 마친 후에는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느낀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들은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통해 '처음 해보는 활동'이 많아진다. "처음 옆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처음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처음 행정실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처음

지하철을 타봤어요”, “처음 모르는 어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체인지메이커 활동으로 학교에서는 해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 이런 경험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도와준다.

- 유쓰망고

아이들이 마을에, 마을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한번 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꾸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실천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게 변화다. 장만 마련해 주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생각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질문을 하기도 한다.

- 인생나자작업장

청소년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활동 홍보 포스터나 안내문을 보고 연락 오는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어난다. 자신이 경험하는 부당한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들이 동네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 문화복덕방 사업을 하면서 마을 잡지를 만들었는데 동네 철물점, 문구점 찾아서 인터뷰하는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보고 가좌시장에서 ‘골목형시장’ 사업으로 동네 잡지를 만들 때도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런 것은 어른들만 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활동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달그락에 깊게 참여한 청소년들이 성찰한 내면의 이야기이다. 이를 통한 사회의 변화는 자연스럽다. 정책, 조례 등을 만들어 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궈내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변화의 과정을 목격한 후원자와 지역의 이웃들은 연구소의 활동들을 당연히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든다.

- 청소년자치연구소

1년 후 버려진 화분을 가꾸고 나니까 ‘우리가 공공의 장소를 바꿀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공은 행정의 영역이며 행정 담당자가 해결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의 시설물들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 마을탐사단 청바지

## 2) 지역의 변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성공이든 실패든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 경험을 통해 얻어가는 것들로 인해 이 동네에서 청소년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동네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니 인식도 높아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청소년들이 던져 주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느껴가는 것, 그러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다. 결과를 평가받는 활동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성공도, 실패도 맛보면서 청소년들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득이 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의미인 것 같다.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 되었고 지역주민들도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며 청소년들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관점은 이중적이다.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부만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함께하는 부모들의 변화이다.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엄마와 아이들은 서로의 활동을 보면서 함께 성장한다. 평소 칭찬보다는 잔소리를 하던 엄마-아이 관계도 서로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된다.

- 마을탐사단 청바지

지역사회의 변화라면 캠페인을 통해서 - 캠페인을 가능하면 서초구에서 하는데 상황, 주제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이 활동이 사람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캠페인으로 인식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도 했었고 버스기사 아저씨를 영웅으로 선정하여 다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버스기사아저씨에게 더 인사하는 인식도 형성되었다. 영웅으로 선정된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말이 있는데 '안전한 우리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것이다. 이분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모든 영웅들이 같은 말을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아이들에게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체인지메이커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지만 교사들이 먼저 반응한다. 체인지메이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사들도 정체된 교직문화 속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 유쓰망고

어린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활동을 통한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된 점이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린이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활동가도 있었다. 그랬던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린이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어린이를 가르침의 대상으로밖에 대해 보지 못했던 활동가는, 놀이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와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생각과 몸을 바꿔가고 있다.

- 하자센터

버스에 오는 청소년들은 사회를 온몸으로 겪고 경험하면서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알려준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때 버스에 오는 청소년이 토론회 참석해서 전문가들 앞에서 청소년이 거리의 상황을 리얼하게 이야기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다. (중략) 청소년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들이 직접 일터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면서 활동가들은 필요한 활동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잘못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다.

- 들꽃청소년세상

## 8. 활동가들의 고민

인터뷰를 통해 기관들의 어려움, 고민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청소년들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 구조로 인해, 청소년들이 교과과정외의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다보니, 지속적이고 꾸준한 참여가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절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일상을 바라보고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어 사회 이슈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기관의 활동가들은 유사한 활동하는 하는 단체들과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하고자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 1) 활동의 어려움 / 바쁜 일상, 지속성

이 활동을 하면서 팀원끼리 모여서 상의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과 관련하여 서로 일정 조정하는 게 어렵다. 만남 횟수 정하면서 스케줄 조정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바쁘다. 행복의회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맡은 역할과 학원을 병행하다 보니 이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중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 성남시청소년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처음엔 솔직히 참가자 모집이 어려웠다. 기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아이들과 같이 했으면 해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모집을 했는데 잘 안되었다.

- 인생나자작업장

친구들이 잘 모이지 않을 때 힘들었다. (중략) 구성원 대부분이 12학년이라 12학년 졸업 후 이 동아리의 방향성이 고민이 된다.

- 성미산학교

아이들과 활동을 마치고 아이들 문제 이외로 더 큰 문제로 확대해 나갈 때 시간적 제약, 집안일이나 자기 아이보다는 우선순위에 밀려다 보니 과정 만들어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건데 (중략) 중학교 3학년 이후의 활동이 담보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 확보가 힘들다보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힘들다.

- 열린시민사회연합 북부시민회

얼마 전 한국정책연구원의 연구원과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청소년 활동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고, 청소년들의 절대적인 시간부족이 자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였다. 요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 월드비전

활동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은 시작부터 끝까지 참가자들이 같은 내용과 고민으로 큰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흐름이 제각각이다. 뒷담화의 경우 대구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만드는 순서를 기획했지만 개개인의 일정에 따라 참가여부가 달라지며 순서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 나눔교육의 경우 가까운 매장과 연계해서 나눔장터, 캠페인, 일일가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 아름다운가게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 주어진 시간은 짧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의미를 나누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한다. 한 번에 한 존재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환경에서 무엇을 나누고 올 것인가를 고민한다.

- 피스모모

## 2) 활동의 어려움 / 일상의 연계, 자기결정

초중학교에서 요청이 많아 나눔교육은 주로 초중학교 대상이다.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따른 타인에 대한 관심 없는 것을 한계로 본다.

- 홀트아동복지회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발견 하기이다.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다.

- 유쓰망고

아이들이 주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지역을 부끄럽다.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의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터를 이해하고 가꾸는 일에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문제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중략) 아이들은 주제를 선정할 때 선협적으로 선하고 착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활동이 자기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한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청운위 운영할 때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 것인가? 처음 기수 친구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제안했을 때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른들의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기수 친구들에게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진행과정이나 모임 안에서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나길 바란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강압이나 간섭으로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실무자로서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의 속도나 그 때그때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 흐름을 읽는 게 어려운 것 같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진로라는 주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세대들이 진로를 모색할 때를 생각하면서 가능한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지만 당장 한국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간혀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더라도 고민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다.

- 희망제작소

### 3) 네트워크의 필요

행정의 개입 유무에 상관없이 마을에서 관련 활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나 파트너를 맺기도 하지만 그 또한 짜여진 사업일정에 맞추어 나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조율은 쉽지 않다. 좀 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서로의 필요성과 자발성의 의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연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의 주체들이 시작은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활동의 과정 속에서 성장의 지향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원 가능한 기관이나 행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 마을탐사단 청바지

많은 다양한 시설에서 팀 프로젝트나 사회참여프로그램이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기존의 교육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교육과정에 녹아드는 것이 아닌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시도인 만큼 성과도 많을테지만, 보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로 좋은 건 그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고, 이를 학교 바깥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중략) 또한 기존의 학교 안의 성과가 외부역량과 연결되었을 때 큰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단체의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하는

그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래교실네트워크

청소년들은 제안만 하는 존재(필요하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안을 할뿐 그 제안에 대한 답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안을 넘어서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런 판을 만들어도 좋겠다.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활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은 연대와 조직하는 거다. 사람들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 안에서 가치나 생각들을 같이할 수 있도록 진한 관계와 소통, 안내도 해야 하고 중요한건 일만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닌 삶을 공유해야 한다. 내 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약간 개방도 하고 다 모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있고 그걸 전략화 하는 거다.

- 청소년자치연구소

## 9.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현황조사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같이 지향하고 모색해야 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을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시민으로 인식하는 사회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훈련의 대상이나 보호하려는 관점의 활동이 아닌, 청소년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누리는 경험을 통해서 주체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의 활동이 필요하다.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스필란트로피 활동이, 또는 청소년 활동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와 다양한 접점들을 찾아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시민으로

학교의 공교육만으로는 청소년 교육이 실현될 수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 밖 지역공동체에서, 교사가 아닌 다양한 마을 구성원들과 만나는 배움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중략) 청소년을 문제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적인 시민, 마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은 스스로가 내가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자, 사회적 책임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마을 주민들 또한 청소년을 함께하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이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해서 가르쳐야 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도 사회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고 교육이나 학습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주체성, 생각, 이런 것들은 스스로 고민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 들꽃청소년세상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 실제 참여를 어느 만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신청서를 쓸 때부터 청소년을 배제시키지 않는지, 형식은 바뀌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듯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들로 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 청소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많다.

-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청소년들은 이미 사회의 구성원들이고, 사회와의 관계는 늘 상 이뤄지고 있고 사회와 늘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아니고 이때부터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분절적인 것은 어른들의 시각인 듯하다.

청소년들이 현재 개인적, 친구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몇 살이 되면서부터 사회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송석교육문화재단

## 2)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의 인식, 뭔가 서로의 마음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청소년들은 관심과 응원, 이런 존재의 이유를 알았을 때 더 열심히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일 수도 있고 사실 청소년들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스들이나 인적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무거나 프로젝트>라면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청소년을 문제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적인 시민, 마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교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실행하는 교사들도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변화를 보고 함께하는 교사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면서 체인지메이커 문화는 계속 확장된다. 지역에서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안, ppt자료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스로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사들이 너무 바빠서 추가 업무로까지 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과 교과 과정 혁신, 교사 환경 개선 등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 유쓰망고

반딧불이(단체)가 살아있어야 한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활동하는 일꾼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도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다져져야 한다.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우리의 프레임과는 달리 관리자들은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면 시설 환경 개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했는데 때때로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중략) 학교 파트너와 서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접고 타협해야 할 때 가장 힘들다. 어린이를 시민으로 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사업을 하고 나면 공허해진다. 우리가 뭘 한 건가, 공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한 건가? 고민이 들기도 한다.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외부 자원을 받아들이고 협력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하자센터

# 한국의 유스필란트로피를 찾아서 “목소리를 듣다”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언제 시작되었든, 청소년들과 만나는 우리의 현실은 생동감 있게 변화하고 있고 더 다양한 주체들이(학교,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비영리단체, 학부모 등) 만나 청소년들의 ‘필란트로피’ 활동의 장을 함께 만들고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기관들은 각자의 활동영역을 기반으로 유스필란트로피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 V.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 탐험대 반딧불이 소감

## 1. 반딧불이 박은주

‘나눔교육’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자선, 배려를 넘어 나와 함께 하는 내 주변의 이웃,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나눔활동’ 찾아 나섰다. 이듬하여 한국의 유스필란트로피 원정대, 우리의 역할은 국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잘 ‘듣는 이’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의 유스필란트로피’를 찾기 위해, 묻고 싶은(듣고 싶은) 질문들을 챙겨들고 기관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31개의 기관들을 만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흔쾌히 우리를 맞아주시고 (준비한) 질문에 (듣고 싶은) 대답보다 더 큰 응답을 보여주셨다. 그 덕분에 대화를 통해 듣고 간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들을 받아들고 오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함께 답해보기도 했다. 각 기관의 다양한 환경과 조금씩 다른 언어들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나는 ‘듣는 이’가 되어 갔다. 나는 총 31개의 기관 중 9개의 기관을 방문해 인터뷰 했다. 9개의 기관과의 만남은 이 지면에 정리해 담은 것 이상의 감응의 시간이었다.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들의 열정과 공간의 분위기,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유스필란트로피란 생소한 단어가 더욱 생생하게 채워졌다. 유스필란트로피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자선과 배려를 넘어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참여’ – 그 다양함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잘 들을 뿐이다.

‘듣는 이’는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맥락있게 기록하고, 성찰한 내용들을 다시 나눌 몫을 가졌으니 그동안 시간을 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기관의 담당자 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해본다.

기관들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청년실업, 고용불안의 문제는 심각해져 삼포세대라는 말이 생겨났고, 4차 산업 혁명 이후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불안은 지금 당장 새로운 진로교육과 학교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그에 따른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소개해주는 소셜벤처들이 등장하고 공교육 내에서는 자유학기제, 교육혁신지구, 혁신학교, 프로젝트 수업 방식 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입시 제도는 수시로 변화되고 사교육 시장의 빠른 변화는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꾸준히 늘어나게 했다. 입시제도의 다양화는 성적은 기본이고 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 점수도 챙겨야 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삶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해야 할 목록’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 담당자들의 말처럼 요즘의 청소년들은 예전과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 자란 청소년들은 우리와는 다른 소통의 기술과 언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서 더 자유롭게 살아간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의 변화도 크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교문이 조금씩 열리고 학교 밖 배움의 기회가 많아지기도 했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다양한 어른들과 마을 공간들이 생겨났다. 촛불 이후 광장을 경험한 친구들은 최근 청소년 참정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언제 시작되었든, 청소년들과 만나는 우리의 현실은 생동감 있게 변화하고 있고 더 다양한 주체들이(학교,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비영리단체, 학부모 등) 만나 청소년들의 ‘필란트로피’ 활동의 장을 함께 만들고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기관들은 각자의 활동영역을 기반으로 유스필란트로피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내가 만난 9개의 기관들이 말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 가치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자신들이 결정한 것들을 실천한다. 자신의 삶의 문제들(진로, 환경, 한반도 평화, 학교 공간, 청소년 성교육, 놀이, 청소년 운동부족/수면부족, 도서관, 우리 동네 시장, 화단, 놀이터, 축제, 길고양이 등)을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참여’의 시작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이야기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활동은 더욱 의미 있어 보인다.

두 번째 가치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적 가치이다. 청소년들의 공익활동은 학교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학업 이외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모둠별로 이루어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배려와 공감, 존중, 나눔, 책임의 가치를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성장에 대해 표현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 모든 활동 과정은 성적으로 평가 받지 않는 배움으로 청소년들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배움의 주체로 성장한다. 이런 학교 밖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위해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함께 협력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익 활동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물론 서로 다른 정체성(예를 들어 교육행정-시민사회)을 가진 주체들이 만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하지만 이 협력의 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있었다.

세 번째 가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청소년들은 마을 축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자신들이 이용할 도서관 공간과 학교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한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정책을 제안하고,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활동(일본군 위안부)을 하고, 사회적 이슈(폐미니즘, 소방관 실태, 유기묘, 세월호, 환경문제 등)를 알린다. 이제 청소년들의 기발하고 즐거운 필란트로피 활동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9개의 기관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결과적으로 얻어진 세 가지 가치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의 일면을 보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관점을 가지기보다는 청소년들을 훈련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구조화된 참여경험을 제공하거나 교육적 효과에 더 주목하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어른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졌다. 그들이 말하는 유스필란트로피의 가치는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은 불안한 미래,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입시-취업의 외길을 걸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고 청소년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각 기관들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두터운 철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기관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31개의 다양한 기관들의 활동과 목소리는 그 자체가 “유스필란트로피를 위한 무브먼트”이다. 유스필란트로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31개의 기관들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2. 반딧불이 송은옥

나눔교육(Youth Philanthropy) 현황조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나 교육관이 나눔교육 강사로서 부합되는지 같은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활동가와 단체를 만나보면서 점검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다. 처음엔 기대와 설렘으로 기관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보냈으나 계획처럼 나의 관(觀)을 정립하기엔 시간의 촉박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눔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여러 기관을 찾아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싶다. 함께 하는 청소년들을 친구로 받아들이든, 동지로 받아들이든, 나와 같은 시민으로 받아들이든, 학생으로 받아들이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체성에 대한 가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은 활동 내용은 달라도 그 밑면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방법과 절차, 표현 방법은 달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다.

청소년들이 내신이나 스펙을 위해서 처음 받을 담가도,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로 첫발을 내딛어도 스스로 선택하여 찾아온 것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아무런 관심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로 찾아가는 시간까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더 확신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귀한 시간 내어 주신 기관과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현황조사를 하면서 좀 더 자주 만나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더라면 내가 느꼈던 감흥과 감정, 의미 같은 것들을 더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든다.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의 감정,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이나 심리적인 부분엔 차곡차곡 쌓여진 부분들이 더 많아 지금 시점에서는 공유하기가 쉽지는 않다. 나 혼자 성장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

처음부터 포맷이 명확히 정해져서 계획적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지만 어찌 첫술부터 배부를 수 있겠는가.

시작은 했으니 앞으로는 함께 했던 기관들과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네트워킹으로 인해 내가 성장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귀한 기회를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3. 반딧불이 조영실

“아름다운재단에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라는 한마디에 다들 바쁜 선뜻 시간을 내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둘 다 나왔어요.”라며 팀장님에 실무자까지 다 나와서 프로그램의 역사,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주신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참여하는 청소년이 되었다가, 진행하는 활동가가 되기도 하며 묻고 또 묻고, 같이 웃다 울컥하기도 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현황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들으러 간 거였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자극을 받았고, 아름다운재단 반딧불이에 적용하면 좋을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 환대와 배움의 시간

무역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확산하려는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실’에서는 정확한 주제의식과 관련한 즐거운 활동들, 페이스북을 통한 서로 배움의 확장을 배울 수 있었다.

탄탄한 커리큘럼, 전국단위의 넓은 범위로 활동의 파급력을 가졌지만 한 사람 한사람의 만남과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월드비전의 세계시민교육’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보다 가치가 우선하는 삶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말의 울림이 컸다.

수평적인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분위기와 색상, 참여자들이 느끼는 낯설음까지도 고민하고 배려하는 ‘피스모모의 집시워크’를 만나며 반딧불이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공간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게 되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의식을 고취하는 착한 인성교육 ‘홀트 가족나눔교육’을 만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다.

인문학 관련 책읽기에서 토론하기, 우리의 삶과 연관된 실천하기를 넘어 이틀간의 워크숍으로 2박3일의 캠프까지... 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송석문화재단의 인문학교실 쿨’에서 우리 나눔교육의 방향과 확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스스로 무엇을 해보는 경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하나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한 교육지원중간단체인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결’을 만나서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이 아닌 운동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언니오빠형누나’와 ‘어썸스쿨’은 기존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가고 있었고, ‘성미산학교 나비효과’에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 사람과 사람

“사람 만나는거 좋아하시나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나누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곁이 되어주고 싶어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을 만든 권복희 활동가,  
자기가 사는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교육받고 밥벌이가 가능한 세상을 꿈꾸며, 지역에서 아이들과 인문학  
교육을 하고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싶다는 이지훈 팀장님,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한자리를 지키며 활동을 해오고 있는 월드비전의 이진영 과장님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채성현 간사님,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교육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름다운커피의 이정화 간사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 언니오빠형누나의 채진백  
대표, 자기 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찬 열정적인 어썸스쿨의 이지섭 대표,

인권의식의 향상되고 사회문제가 줄어들어 이런 인권동아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을 꿈꾸는 성미산  
학교 나비효과 여인서 학생, 평화에 대한 감수성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감수성이 인터뷰 내내 배어있던  
피스모모의 박은경 팀장.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인터뷰이들은 내게 자신들의 시간을 거슬러 돌아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내게 그들과의 만남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가로서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자극이었으며,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들으며 나도 그 길을  
같이 걸어온 듯 한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 충만함이 글로 다 드러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보고회에서의 만남을 통해 내가 받았던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뷰 한 달 후, 손으로 쓴 연하장이 왔다.

“한해가 가기 전에 참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모처럼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동시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을지, 같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함께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찰나의 만남이었지만 선생님과의 인연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길 조심스럽게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꽃길이길!..“

그리고 다시 여름, 자작나무 숲이 담긴 엽서 한 장,

선생님, 잘 지내시죠?

지난해 선생님과의 만남이, 인연의 끈이 이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선생님과의 짧은 만남, 긴  
인연이 저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힘을 주고 있어서 늘 감사해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여름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 VI. 국내 나눔교육현황조사 기관별 프로그램현황(가나다 순)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방법	키워드	활동	지역	사이트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집	우리동네에서 평평할사람	홈페이지, SNS, 학교 연계를 통해 참가자 모집 3~10월까지(8개월)활동	자원봉사, 주도성, 지역사회변화	캠페인 부스운영, 놀이 기획 진행, 문화예술활동(벽화그리기) 등	경기 부천	www.kumayouth.or.kr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사작된변화	그룹별(4~7) 개별신청, 연속지원우선	지역사회참여, 실천과 변화, 마을, 더불어 살아가기, 삶의 주인, 마을의 구성원 되기, 민주시민	동네돌아보기 변화계획세우기- 실천하기-성찰하고 퍼뜨리기 (지원금 25만원)	서울 노원구	www.gycenter.or.kr
동안 청소년 수련관	인양 청소년 정책학교	홈페이지 공지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 학교 : 학교장 승인 후 전자문서 접수 · 시설 : 청소년시설, 복지관 등 시설 장 승인 후 전자문서 접수 · 개별 : 담당지도자(대표자) 승인 후 이메일 접수	공공정책제안, 지역사회 의사결정참여, 청소년참여	정책워크숍, 정책제안대회 청소년정책학교 오리엔테이션→ 집중워크숍(박경일)→ 전문가멘토링→ 정책학교 제안대회	경기도 인양	www.ayf.or.kr/dongan
동작 청소년 문화의집	아무거나 프로젝트	초중고 10인 이하 팀 공모선정	청소년 자치, 참여활동, 지역사회 변화및기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역공동체	사전설명회-공모-심사-사전교육, 사업실행-중간컨설팅- 참여자네트워킹-보고서-공유회	서울 동작구	www.djyouthcenter.or.kr
들꽃 청소년세상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매주 목 20~01시 수원역 매주 금 20~02시 신림역 자유롭게 참가	위키지원, 인권, 자립, 청소년 주체성, 청소년사회활동	드래활동가, 집회 및 캠페인 활동, 청소년강사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	서울	http://wahaha.or.kr
마을탐사단 청바지	청바지	회원(학부모+청소년)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지역문제탐색	마을축제, 게릴라 가드닝, 마을청소, 마나책방 등	서울 도봉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모둠투구성 대회 참여(지도교사)	프로젝트 시즌, 민주시민교육, 변화를이끌어내는 실천활동, 정책제안	문제찾기-기존정책조사- 공공정책만들기- 정책제안을 위한 활동발표대회	전국	www.kdemo.or.kr
미래교실 네트워크	사회수프 (사상최대수업 프로젝트)	교사 신청 동아리 또는 수업	문제해결, 사회참여프로그램, 협력적문제해결능력	프로젝트별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활동	전국	www.futureclassnet.org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결	청춘발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사업 중간지원단체	민주시민교육, 직접경험, 운동성을 가진 교육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민주시민교육 촉진자 과정 운영지원, 안산지역 NPO 공익동아리 지원사업	서울 수도권	http://cafe.daum.net/2014citizenship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	모둠투구성 대회 참여(지도교사)	프로젝트 시즌, 민주시민교육,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활동, 정책제안	문제찾기-기존정책조사- 공공정책만들기- 정책제안을 위한 활동발표대회	전국	http://youth.kdemo.or.kr/
부천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팀 프로젝트 대비효과	사이트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민주시민역량강화, 청소년자치, 청소년 주체성, 팀프로젝트, 공동체, 사회참여활동	팀프로젝트별로 캠페인 활동, 정책제안 형태 등 다양한 활동, 사전설명회-청소년사회참여사전교육 → 활동계획보고회-팀별프로젝트 진행 → 팀프로젝트 활동보고회	경기 부천	www.sndyouth.or.kr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찾아가는 사랑의열매 나눔교육	수요기관(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강사파견요청	나눔, 유아, 초등, 나눔강사양성, 나눔체험관, 나눔교육콘텐츠	유아(3회차) : 나눔이뭐예요? 나누면행복해요, 나눔은 쉬워요 초등(4~8회차) : 자기이해, 타인이해, 나눔실천방법	전국	www.nanumsam.or.kr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Thanks My Hero 우리동네 영웅찾기	학교 공문발송 동아리/학급단위모집(3월) 11월에 활동 마무리	자기주도성,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이슈, 건강한 시민, 청소년주도형봉사활동, 지역사회변화	캠페인, 프리마켓 등	서울 서초구	www.seochov.or.kr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방법	키워드	활동	지역	사이트
성남시 청소년 재단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매년 3월에 위촉, 1년 임기	청소년 자치, 청소년참여정책, 청소년정책제안, 청소년입법활동, 청소년 참여와 성장지립,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대회 및 입법활동, 토론회, 청소년포럼, 전문교육(의화활동) → 예비의제발굴 → 정책과제 발굴 체계화 및 의정활동, 지문 → 상임위원회 활동 → 주무부서협의(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등) → 본의회 운영(행복의회) → 성남시의회 입법추진	경기 성남	www.snyouth.or.kr
성미산학교	나비효과	교내 학생 6~12학년	인권, 토론, 교내동아리, 대안학교	인권관련 토론, 여성 청소년인권 강의, 설문조사	서울 마포구	www.sungmisan.net
송석교육 문화재단	인문학교실 쿤	온라인모집 16세~24세	인문학교육, 토론하기, 질문하기, 실천하기, 인문캠프	생각하는데이, 책읽는데이, 실천하는데이, 나누는데이, 가치체험캠프, 청소년인문캠프	서울	www.songsuk.org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센터	교육실무자 신청, 학급, 동아리	공동체와 나눔, 윤리적소비, 세계시민, 되살림, 재사용, 참여학습법	캠페인 나눔바자회	전국	http://edu.beautifulstore.org/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	11월 접수, 1-2월 활동, 2월 학교 실무자 신청, 3-3월 파트너 기관모집	나눔, 공동체, 시민, 비영리기관, 모금, 배분	캠페인, 베품시장, 재능기부, 온라인기부 등	전국	http://edu.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실	중고등팀단위(3명이상) 연중상시 참여가능	공정무역, 시민대사, 공정무역발표대회	학습교실, 실천교실(공정무역 탐험가, 기업가, 기획자, 발표대회)	전국	www.beautifulcoffee.org
어썬스쿨	히어로스쿨	학교단위로 신청, 중등학생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체인지메이커, 청년강사	히어로의 탄생(진로탐색프로그램), 히어로의 도전(기업가정신 프로젝트), 히어로스쿨(진로탐색기업가정신) 1년과정	전국	http://awesome-school.net/
언니오빠 형누나	놀이터 플레이 프로그램	관심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선발	아동 놀이, 놀이터, 놀권리, 청년사회활동, 자원봉사	아이들의 놀권리 확산을 위한 청년활동, 매주 일요일 놀이터에서 대학생자원봉사자(아이들과 놀이활동)	서울 광진구	http://blog.naver.com/sisterbrother
열린사회 시민연합 북부시민회	우리지역 보물탐험대	학교에서 신청, 방과 후 특별활동	시민참여와 소통, 나눔, 풀뿌리공동체 운동, 마을커뮤니티, 지역사회변화, 열린공동체, 자원활동, 마을북카페, 청소년사회참여, 자원봉사학교	지역사회 탐방	서울 강북구	www.openb.or.kr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온라인모집, 유아, 초, 중, 고 / 전국	세계시민교육, 인성, 아동인권, 환경, SDGs, 평화, 세계시민총회, 재능강사	세계시민학교, 교원연수, 재능나눔, 전문강사양성, 세계시민총회	전국	www.worldvision.or.kr
유쓰망고	체인지메이커	학교, 단체별로 진행 / 교사, 학생	공간,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 체인지메이커 생태계 구축	문제발견-솔루션찾기-행동하기-퍼뜨리기	전국	http://youthmango parti.xyz
은평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상상	매년 4~5월에 모집, 은평구소재 중고등학생	청소년 자치, 지역사회참여, 마을, 더불어 살아가기, 삶의 주인, 마을의 구성원되기, 실천과 변화, 민주시민	캠페인, 모금, 기부, 마을축제 등, 특별 사회참여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서울 은평구	www.epyouth.org
인생1차 작업장	자원순환마을	온라인모집 또는 기존청소년지속참여	청소년인권옹호활동, 생태적 삶, 나눔실천, 지립, 자원봉사, 자원순환	마을축제, 체험부스 운영,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 공유회	경기 군포	cafe.daum.net/inseangnaja
청소년교육문화 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인권 기획단	홈페이지 학교 공문/포스터 홍보(3월), 활동기간 내내 상시모집(4월~12월/매월1~2회모임)	인권, 주체성, 스스로의 삶, 인권감수성, 청소년 자립	인권캠페인, 토탈회 등 모임을 기획, 정책워크숍, 인권캠페인, 설문조사, 정책제안	대구	www.band1318.org
청소년 인문도서관 느루	청소년 운영위원회	자유롭게 참여가능, 기수	청소년인문도서관, 청소년 이치트, 프로그램계획운영, 마을공동체	청소년 캠프, 하고 싶은 프로젝트 실행	인천 서구	www.neuru.org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방법	키워드	활동	지역	사이트
청소년 자치연구소	ASPECT 청소년기자단	매년 3월에 모집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운동, 청소년활동가,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진로	기자단 및 작가단 등으로 활동하며 정책 제안, 캠페인 언론활동	전북 군산	<a href="http://www.youthauto.net">www.youthauto.net</a>
피스모모	청소년 집시워크	매년6월모집, 7~8월 활동 14~20세 20명	글로벌 평화감수성, 자기결정권 지속가능한 공동체, 필드워크, 캠프	5일간 진행(마지막 1박 캠프) 평화감수성 워크숍, 필드워크(주제별 직접방문)	서울	<a href="https://peacemomo.org">https://peacemomo.org</a>
하자센터	생각하는 창개구리	1)놀이타: 청소년청년 2)창의클래스: 학교 학급단위	1)놀이활동가 2)참여디자인 프로젝트, 어린이 시민, 민주적의사결정 과정	1)놀이제안, 관찰기록, 놀이제작 2)공간디자인	서울	<a href="http://haja.net/">http://haja.net/</a>
홀트아동 복지회	홀트가족 나눔교육	온라인신청 학교, 단체별로 진행 성인 기업연수 가능	나눔교육, 인성교육, 전국	나눔교육, 자존감교육, 소통교육, 공감교육, 가족공동체교육	전국	<a href="http://www.holt.or.kr">www.holt.or.kr</a>
희망제작소	내일 상상프로젝트	거점 지역 파트너 단체별 모집 운영	창직,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 프로젝트	거점 지역	<a href="http://www.makehope.org">www.makehope.org</a>

# 발견한 보석들



#나눔 #사회참여 #자원봉사 #윤리적소비 #공정무역 #평화 #인권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진로 #토론 #자기결정권 #주체성 #자치운영  
#시민 #민주주의 #체인지메이커 #진짜문제찾기  
#더불어사는사회 #공익을위한참여 #작은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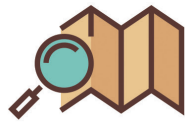




## VII. 현황조사 기관별 인터뷰 모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057	아름다운커피	171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065	어썸스쿨	175
동안청소년수련관	071	언니오빠형누나	181
동작청소년문화의집	077	열린사회시민연합북부시민회	187
들꽃청소년세상	083	월드비전	195
마을탐사단 청바지	091	유쓰망고	201
미래교실네트워크	097	은평구청청소년문화의집	209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걸	105	인생나자작업장	2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1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223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119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2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125	청소년자치연구소	235
서초구자원봉사센터	131	피스모모	243
성남시청소년재단	141	하자센터	251
성미산학교	149	홀트아동복지회	259
송석교육문화재단	155	희망제작소	265
아름다운가게	163	아름다운재단	271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운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청소년지역사회변화프로젝트>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는 청소년들이 맘껏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관계를 맺으며 지역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청소년지역사회변화프로젝트> ‘우리동네에서땡땡할사람’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의식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들 스스로 우리 동네에서 재미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팀프로젝트 활동으로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 132번길 28
조직형태	기타형태_부천여성청소년재단 위탁운영
설립연도	2001년
대표자	신용식
가치	개성과 관용을 겸비한 청소년, 지역사회에 시민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부천시 오정지역 청소년 활동의 플랫폼
단체주요활동	<p>[꾸마의 민주시민 역량강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운영위원회 꾸마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이 직접 자문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청소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활동내용으로 청소년 운영위원장 선거, 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연2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정기모임, 역량강화교육, 상하반기워크숍, 교류활동, 기관 운영위원회 참석(연2회)</li> <li>• 지역사회변화프로젝트 ‘우리 동네에서 땡땡할 사람’: 우리 동네에서 재미있고 의미있게 할 수 있는 팀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의식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주요 내용은 마을이해교육 및 워크숍, 마을변화 프로젝트 팀별 활동지원, 프로젝트 활동결과보고회 및 마을 공유회 ‘우리동네 땡땡축제’</li> <li>• 오정지역학생회지원: 학생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요 내용은 학생회 리더십교육지원, 오정지역 중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의, 여름/겨울 학생회 일일캠프</li> </ul>

단체주요활동	<p>[사회환경변화대응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역량강화 3355 '셋이 모이면 자치조직(동아리)지원, 다섯이 모이면 교육지원' : 청소년 욕구에 기반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자치조직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활동</li> <li>• 진로활동지원 '꿈 메이커' : 자신과 직업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진로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습득을 통해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여행활동지원 '해바라, 여행학교' :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여행과정을 기획하고 여행 지역의 공동체를 찾아가고 만나는 활동을 통해 '나'에 대해 성찰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경험하고 주체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li> <li>•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 부천과 가와사키 청소년들의 정기교류를 통한 상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아시아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국제화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li> </ul>
온라인	<a href="http://www.kumayouth.or.kr/">http://www.kumayouth.or.kr/</a>
문의	032-682-1886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 '우리동네에서땡땡할사람'
주제	자원봉사, 주도성, 지역사회변화
목적/목표	<p>마을과 관련된 교육, 경험, 활동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여 청소년의 권익증진,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나와 마을과의 상호관계성을 이해하고 마을에 대해 관심을 높여 마을 내 다양한 문화형성 및 문제를 발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청소년 마을 참여활동의 기회 제공</li> <li>• 청소년 대상 교육, 경험, 활동을 토대로 직접 변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인권 신장 및 참여의식 확대</li> <li>• 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며 상호이해(신뢰) 형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증대</li> </ul>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지역사회변화프로젝트 '우리동네에서 땡땡할 사람'에 대한 소개 지역사회프로젝트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팀프로젝트.</p> <p>오픈워크샵 - 프로젝트실행 - 하루워크샵(피드백) - 최종평가워크샵 - 결과공유를 위한 제작 - 마을공유회</p>



<p>프로그램 소개</p>	<p>1) 오픈 워크숍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와 동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참가자 간 마을의 개념과 중요성, 마을공동체에 대한 토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변화부터 할 수 있을지, 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변화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돌아보며 서로 어떤 문제들이,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며 팀별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피드백</p> <p>2) 프로젝트실행 : 팀별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실행</p> <p>3) 하루워크숍 : 팀별 프로젝트 진행 중간에 집단지성을 위한 하루 워크숍 진행. 활동하는 팀에게는 격려를, 주춤하고 있는 팀에게는 힘을 실어줌. 각 팀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유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상호 피드백 시간.</p> <p>4) 최종평가워크숍 : 팀별 프로젝트 마무리 10월 초에 마을의 변화와 자신의 변화에 대한 정리를 통한 프로젝트를 최종평가하는 평가워크숍 진행.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각 팀별로 활동한 내용들을 발표하며 나와 마을의 관계성을 정리해 보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상과 실천방법을 정리.</p> <p>5) 결과 공유를 위한 제작 : 평가 워크숍이 끝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료집이나 영상(UCC)를 제작, 배포하거나 영화제,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p> <p>6) 마을공유회 : 마을 내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마을에서 환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변화프로젝트 활동 마을 공유회를 함으로써 이 활동이 마무리. 평가장이 아닌 오신분들이 활동한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기관들, 학교, 아이들이 참여한 학교, 교육복지사 선생님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단체 시민단체 등을 초대. 이 과정의 환류나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느낀다. 올해는 책자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 중.</p>
<p>참여방법</p>	<p>홈페이지, SNS, 학교 연계를 통해 참가자 모집.          활동시기는 모집기간 포함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활동          학교에 포스터를 배포하여 붙여 놓으면 청소년들이 보고 팀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하면 포스터만 보고 결정 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이 프로젝트 설명과 이 활동의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사전인터뷰를 진행하여 선발한다.</p>
<p>참여대상</p>	<p>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청소년(만 13세~ 만 18세)</p>
<p>참여형태</p>	<p>캠페인, 부스운영, 놀이 기획 진행, 문화예술활동(벽화그리기) 등</p>
<p>회당참여학생수</p>	<p>회당 25 명</p>
<p>연간참여학생수</p>	<p>총 20 명</p>
<p>성인멘토</p>	<p>멘토의 역할을 하는 성인을 청년활동가라고 부른다. 작년에 활동했던 청소년이 올해 청년활동가로 참여하는데 본인이 이 활동을 하면서 멘토의 역할이나 모델링이 필요하겠다고 활동에 대해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로 함께 할 예정이다. 이 활동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이 하는 것이다보니 팀별로 나이나 팀웍으로 인한 속도차가 있다. 멘토의 역할은 사전 워크숍부터 함께 참여해서 그 흐름을 읽고 진행과정을 통해 속도가 늦거나 더디게 활동하는 팀에 들어가서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속도차를 조정해 준다. 사전 워크숍 때 멘토가</p>

<p style="text-align: center;">성인멘토</p>	<p>몇 팀에 들어가서 함께 팀원으로 활동할지 보통은 결정이 된다. 팀의 회의도 참석하고 팀 내의 사정이나 그 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도 해 주고 그 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준다.</p> <p>참여하는 모든 팀을 실무자가 맡으면서 팀 안에서 조율이나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팀에 멘토가 추가인원으로 활동한다. 그 안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함께 소통하고 그 흐름 안에서 균형을 맞춰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멘토인 청년활동가는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해 주는 역할. 모든 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늘 피드백 해주는 역할을 한다.</p> <p>사전교육이나 필요 역량은 딱히 조건이라 하면 활동에 대한 관심도나 취지를 설명을 듣고 본인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이 맞으면 된다. 사업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도 흥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하고 있다. 사실 청년활동가도 참여하는 청소년들보다 더 월권하거나 본인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나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팀의 리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인지시키면서 주의시키고 있다.</p>
<p>예산규모(연간)</p>	<p>약 280 만원</p>

### 프로그램 생겨난 배경

이 활동이 공익활동이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시간의 부여가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기존에는 수동적이거나 단순 활동을 하던 것을 적극적으로 지역 안에서 나를 위해, 남을 위해서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 속에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보는 시간을 통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도록 하고 지역 안에서 의미 있게 자원봉사활동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자원봉사 활동인데 수동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봉사라는 게 내가 남으니까 나눠주고,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퍼주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없으니까 도와주겠다는 사회적 편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핍이라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로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보자 해서 한 것 같다. 청소년들 본인 스스로 활동 안에서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해야 동네가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본인들에게 나오게 하는 것, 느껴 가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 꾸마에서 생각하는 동네, 자원봉사의 의미

사실 이 의미에 대해서 팀원들끼리도 자주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동네라는 것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 친구, 가족, 학교 이외에는 따로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기엔 동네,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공간이라는 거다.

그렇게 그 공간을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 환경들을 좀 더 열어보는 것. 이 안에서 시작일지라도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크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에 각 팀에서, 본인들 팀에서 또는 개개인이 생각하는 공간, 개념을 동네로 바라보고 있다. 각자마다 팀마다 동네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동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동네에 대한 개념을 모두가 공유하는 차원, 그 안에서 내가 내 주변, 더 확장된 곳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부터 시작된다.



자원봉사라는 개념도 사실 능동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든 거다. 자원봉사라는 단어에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봉사라는 게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소진, 소모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나한테 이득 되는 게 없어', '시간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서 시간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내가 직접 만드는 재미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드는 활동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게 당연히 깔려 있으면서 거기에 재미까지 있는 것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바꿔주고 싶다.

### 이 활동을 한 청소년들의 변화나 지역사회 변화

이 활동에서는 활동가나 멘토가 늘 질문을 던지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발표하는 능력이 느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고 가는 것 같다.

주변의 변화는 우선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활동가들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점이나 언어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것이고 활동을 하기 위해 마을로 나갔을 때 지역 주민들의 반응들이다. 전에는 그냥 지나치고 다른 관심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주민들이었다면 활동을 통해 만나신 분들은 활동하는 모습이 '이쁘다'고 응원과 격려(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떡볶이도 그냥 주시기도 한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이러한 호의적인 반응들이 아이들에게는 인상 깊게 남는다. 청소년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연령층인 것 같아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였다.

### 참여한 친구들에 대한 혜택

자원봉사시간인데 활동을 한 만큼 부여되기 때문에 팀별로 다를 수 있다. 활동을 한 만큼이더라도 무조건은 아니다. 활동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다. 그리고 활동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전체지원을 한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에 청구하기도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본인들이 부담하기도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것은 기관이 본인들을 위한 것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지원이라고 해도 캠페인 물품 준비비용이 대부분이고 평가회 때 간식비용,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워크샵 때는 식비 등을 지원한다. 결국 봉사시간, 본인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추구하는 가치

큰 변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고 아이들도 느껴 가는 것 같다. 진짜 지역사회를 바꿔놓을 거야라고 활동을 시작하다가도 이게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고 그때 개개인은 '나부터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가는 것, 이게 단순히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역 안에서 청소년들이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청소년들이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생각을 가져야 하고 생각을 가지려면 관심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동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하니까 뭔가 그 안에서는 나를 위한 것, 남을 위한 것, 봉사를 생각해보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걸 고민해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다. 이런 기회(경험)를 가져보도록 도와주고 싶다. 결국 이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 **이 활동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단은 지역사회의 인식, 뭔가 서로의 마음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청소년들은 관심과 응원, 이런 존재의 이유를 알았을 때 더 열심히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일 수도 있고 사실 청소년들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스들이나 인적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우리가 분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의미는**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 그리고 활동가들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성공이든 실패든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 경험을 통해 얻어가는 것들로 인해 이 동네에서 청소년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동네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니까 인식도 높아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청소년들이 던져 주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느껴가는 것, 그러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다. 결과를 평가받는 활동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성공도, 실패도 맛보면서 청소년들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득이 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의미인 것 같다.

### **프로젝트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고민되는 지점이나 힘들어 하는 지점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지역에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 한다.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이 아닌 평소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낯설기도 하고 두려워한다. 처음에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땐 입장을 바꿔서 낯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경우에 대답해 주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은 이 활동을 하면서 팀원끼리 모여서 상의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업과 관련하여 서로 일정 조정하는 게 어렵다. 만남 횟수 정하면서 스케줄 조정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 **진행하는 입장에서 활동가가 힘들어 하는 시점이나 어려운 점은**

실무자로서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의 속도나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 흐름을 읽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밀착해서 활동을 함께 해야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극복할 때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흐름이나 계획, 평가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서 질문부터 모든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다음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면 그 친구들의 속도나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나 더 재미있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중간 워크샵이나 평가 워크샵에서 그런 주제나 흐름들도 일상적인 그 팀의 분위기를 읽어야 중간중간 필요로 하는 것들이나 평가할 때도 보고를 듣는 입장이 아닌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활동가가 모든 팀들과 함께 해야 하는 입장이라 전체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버거울 때도 있다. 아무리 실무자가, 활동가가 있다하더라도 온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들어가야지만 파악하기가 쉬우니 그 부분이 고민이 되기도 한다.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활동가가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닌 그때그때 적당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청소년들도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재미를 더해 간다. 그 정도도 적당하게 지키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책임감도 실어주어야 하니 활동가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

활동했던 팀 중에서 한 팀이 놀이터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활동하기 위해 놀이터를 방문했는데 놀이시설은 좋아졌으나 그 놀이터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함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놀이 공간에는 어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생들이 부모들과 함께와서 놀고 있었고 휴식공간 의자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둑도 두시면서 담배도 피우시고 막걸리도 드시고 계셨다. 놀이터는 금연공간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성인들 간의 욕설도 오고 가는 상황이라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놀이터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놀이터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놀이터 벽에 금연과 관련된 미로 같은 것들을 그려서 담배의 끝은 없다, 나갈 수 있는 출구 없다 등의 문구로 금연에 대한 홍보와 놀이터를 시끌벅적하고 재미있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기구 놀이가 아니라 바닥놀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활동을 했다. 그 팀은 종이테이프와 분필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분필로 바닥에 땅따먹기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모이기 시작했다. 함께 온 엄마들에게는 익숙한 게임이다 보니 부모들이 게임 룰을 설명해 주기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세대가 교류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다. 분필로 그림하나 그렸을 뿐인데 서로 인사하게 되기도 하고 모르는 애들끼리 같이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시도 하나라도 '이 공간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바닥놀이 더 알아보자했는데 많이 나가지 못했다. 애들은 또 언제와요라고 관심을 보여줬는데 더 많이 나가지 못해 좀 아쉬움이 남긴 했다. 자주 만나지 못해 아쉽다고 스스로도 평가를 했는데 몇 번의 시도로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시작점을 본 것 같아서 의미 있었고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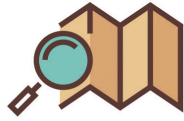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 향후방향

일단 올해는 활동을 기록물로 남길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과 이 활동을 공유할 생각이다. 첫 해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이어서 올해는 작년의 활동 포맷을 안정화시키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곳곳에서 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활동을 체계화하고 안정화시켜서 활동 팀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메시지가 많은 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올해의 목표이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생각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공릉청소년문화정보 센터의 시작된 변화라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관련 분들을 뵙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거기서 강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올해까지 꾸마에서도 워크샵을 진행해 주시면서 처음과 중간, 끝을 함께 해 주셨다. 그 강사님이랑 이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부분을 꾸마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이다.

인터뷰이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정수연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Gongneung Youth Center For Culture & Information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시작된변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과 도서관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청소년 건전 육성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작된변화>는 청소년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회참여활동이다. 현재는 노원의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으로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문화공동체 쉬는시간>, <상상이룸센터>, <상계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 단체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87-5
조직형태	위탁운영_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연도	2010년
대표자	이승훈
가치	자주적이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 지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청소년센터 꿈, 열정,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공릉동
단체주요활동	청소년 활동: 진로, 체험, 자치, 유스카페(청소년공간), 학교연계 도서관 운영 마을활동: 마을여행, 마을축제, 마을공동체, 청소년휴카페 마을배움터
온라인	<a href="http://www.gycenter.or.kr">http://www.gycenter.or.kr</a> <a href="https://www.facebook.com/gycenter">https://www.facebook.com/gycenter</a>
문의	070-8797-1732 hyeyoung@gycenter.or.kr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작된변화
주제	지역사회 참여활동
목적/목표	<p>청소년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회참여활동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p> <p>더불어 살아가기</p> <p>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p> <p>마을과 만나기</p> <p>마을의 당당한 구성원되기</p> <p>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p>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p>활동의 4단계</p> <p>① 모여서 동네 돌아보기 : 친구들과 모여 동네 걸어보면서 우리 마을의 좋은 점,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찾는다.</p> <p>② 변화계획세우기 : 마을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로 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계획을 세운다.</p> <p>③ 실천하기 : 프로젝트 계획을 실천한다.</p> <p>④ 성찰하고 퍼뜨리기 : 발표회 진행, 한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면서 글쓰기, 보고서 제작하여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모임 &lt;시시한 모꼬지&gt; 진행 : 활동 중간 점검 시간</li> <li>● 원하는 팀에는 (대학생멘토 매칭</li> <li>● 활동 지원금 25만원</li> <li>● 자원봉사시간 등록</li> </ul>
참여방법	<p>모집시기 : 연초 2월(연속 참가 신청을 우선)</p> <p>지역 : 노원구 중고등학생</p> <p>신청방법 : 그룹신청 (4~7명)</p> <p>활동기간 : 1년</p>
참여대상	중고등학생 (노원구 소재 아니어도 가능)
참여형태	주제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 봉사활동, 캠페인, 기부, 베품시장, 문화활동 등등
회당참여학생수	100명 여명 (약 20*4~5명팀) 2017 네트워크 단체 포함 (41팀 참가 * 200여 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100여 명
성인멘토	<p>대학생 멘토단 (청뜰) 모집 운영: 연 10명 모집 (1년 동안 활동), 자원봉사로 운영</p> <p>청소년에 관심을 가진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p> <p>청소년 1팀을 1년 동안 맡아 멘토로 활동</p> <p>성인멘토도 청소년팀의 팀원으로 함께 성장</p>



<b>성인멘토</b>	<p>월 1회 정기모임 진행, 활동일지 작성</p> <p>청소년 팀과 실무자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가 되어 준다.</p> <p>멘토들은 &lt;시작된변화&gt;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대로 '청소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1년 동안 꾸준히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이라서 모집이 쉽지 않다.</p>
<b>예산규모(연간)</b>	<p>약 2200만 원 (2017년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비) 이외+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lt;시작된변화&gt; 사업예산</p>

### 워크숍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

- 워크숍은 2주 (2회-6시간)
- 외부강사들의 강연 : 학교 공부를 하면서 정답만 생각하던 청소년들이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강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 (예를 들어 피스모모 대표,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 운영자, 체계바라 기획사 운영자 등)
- <시작된변화>프로그램 진행 안내/ 사례 발표
- 이전에 참가했던 선배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
- 동네 돌아보기 : '여러가지연구소'에서 워크숍 진행, 공공예술 활동을 통해 동네를 둘러보고 마을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떤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었나

처음에 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 점수'를 위해서 오게 되지만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팀원들과 협업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변화, 성장한다.

7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서 초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된 경우도 있는데 자기 삶의 주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공동체에서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활동 주제찾기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 아이들이 주제를 정할 때는 재미와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 익숙해서 자신들이 어떤 것을 재밌게 하고 싶은지 잘 알지 못한다. 일단 아이들과 수다를 많이 떠다. 자신들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지,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누는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성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주제를 선정할 때 선형적으로 선하고 착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활동이 자기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한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청소년들이 <시작된변화>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2~3년씩 활동을 지속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평소 자주 못 보는 친구들을 매주 만나 우정을 쌓을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치열한 경쟁과는 달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아이들이 이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다.

### 〈시작된변화〉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학업이나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나 혼자 멋지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해서 얻은 결과의 의미와 기쁨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청소년기에 작은 결정이라도 내려보고 실행해 본 청소년들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결정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힘, 디자인 하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협력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신들의 활동과 경험을 글로 써보고 공유회에서 표현하는 활동 또한 중요하다. 특히 나와 내 가족에게만 좋은 삶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존재들, 자연, 동물, 여성, 소수자, 장애인 같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좋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마을과의 연계가 이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들이 주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지역을 ‘부끄럽다, 별로다’ 라고 생각은 청소년들의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터를 이해하고 가꾸는 일에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문제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청소년센터와 달리 이곳은 마을과의 연계 사업이 많고 어른들의 참여활동도 많다. 청소년들의 활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신뢰하고 함께 해줄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을배움터나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활동에 참가한 어른들은 센터에서 ‘자원활동단’이나 ‘동아리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 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활동을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청소년들의 활동에 호응해주시고 격려해준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던 부모들도 내 아이 옆에 있는 아이까지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공간은 〈시작된변화〉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센터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대여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 공간을 오가는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고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실무자들은 어른들의 활동 중에서 청소년들의 주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기도 한다. 또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활동들을 역동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마을에서도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기억에 남는 활동은? 실패한 사례는

우리 동네의 굴다리에 벽화를 그렸던 사업. 통행량은 많은데 너무 낙후되어 보기 싫은 시설물이었다. 아이들은 그 곳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벽화를 그리기로 했다. 마을에 있는 서울여대와 과학기술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림을 함께 그려줄 지역주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신이 직접 꾸민 마을공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당일 많은 지역주민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했고 주변 상인들도 음료수도 주시면서 호응해주셨다.



실패한 사례란 없다. 팀원이 팀을 나간 경우는 있지만 팀의 활동이 중단된 적은 없다. 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시작한 활동이고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은 성장한다.

### 마무리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0월에는 글쓰기로 한 해 동안의 팀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실행한 경험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본 구성이 있기는 하지만 팀원들이 구성을 직접 기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글쓰기를 한다. 이 과정도 3주 정도가 걸린다. 매년 보고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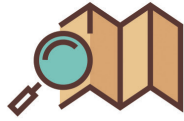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11월에는 발표회를 하고 12월에는 함께 했던 멘토와 친구들 센터 식구들이 송년회를 연다. 마무리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성장과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친구들의 주제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엔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미리 사전 신청을 받기도 한다.

### 향후방향

〈시작된변화〉 프로그램을 지역에 더 확산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2016년 부터는 노원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문화공동체쉬는시간〉, 〈상상이룸센터〉가 네트워크 단체로 프로그램을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네트워크에서는 〈시작된변화〉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 상호학습 하면서 〈시작된변화〉가 본래의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에 확산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인터뷰이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이혜영**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동안청소년수련관



안양시청소년재단  
동안청소년수련관



##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

### <안양청소년정책학교>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안양을 만들기 위해 1999년 2월에 개관하였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는 'Do it youth 수련관', 지역사회의 청소년 중심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욕구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양청소년정책학교>는 정책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고 팀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주변의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공공정책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배우며 직접 찾은 정책 내용을 제안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안양시청소년재단 동안청소년수련관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5 (비산동)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조직형태	재단법인
설립연도	1999년
대표자	이석구
가치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거리 제공으로 지·덕·예·체를 겸비한 밝고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
단체주요활동	2017주요사업 •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연합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모사업 [우리 고장 바로알기] • 국가인증프로그램 [솔로몬의 지혜], [꿈이루미], [경제체험], [민주엔티어링] •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 [청소년 UP로드] • 안양청소년정책학교 정책제안대회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역사회대응프로그램 장애 비장애 통합활동 [함께걷기] • 안양시청소년축제 • 청소년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뮤지컬단], [주니어합창단], [프리미에발레단]
온라인	<a href="http://www.ayf.or.kr/dongan">http://www.ayf.or.kr/dongan</a>
문의	031-8045-4932 활동사업팀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안양청소년정책학교
주제	정책제안
목적/목표	정책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현실성,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성장 도모
활동형태	경험, 대회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공공정책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배우고, 준비한 정책내용을 제안하는 장이자 대회이다.</p> <p>개강식(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집중 정책워크숍, 두 달 간의 1대1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청소년들의 공공정책 제안 내용을 완성하여 정책제안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정책학교 오리엔테이션</li> <li>• 집중워크숍(1박2일)</li> <li>• 전문가멘토링</li> <li>• 정책학교 제안대회: 참가팀별 발표 및 토론, 시상</li> </ul>
참여방법	<p>참가 대상 : 안양시 관내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p> <p>팀구성 : 지도자 1명, 청소년 4~7명으로 구성(지도자 1명 필수)</p> <p>모집인원 : 선착순 25팀</p>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안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li> <li>• 학교 : 학교장 승인 후 전자문서 접수</li> <li>• 시설 : 청소년시설, 복지관 등 시설장 승인 후 전자문서 접수</li> <li>• 개별 : 담당지도자(대표자) 승인 후 이메일 접수(parkpbd@ayf.or.kr)</li> </ul>
참여대상	안양시 주소지를 둔 중고등학생
참여형태	정책제안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160 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800 명
성인멘토	참가조건인 기본요소로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는 보통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로 구성되어 온다. 지도자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팀이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멘토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한다. 전문멘토단은 수련관에서 구성
예산규모(연간)	본선 진출팀 팀당 10만원씩 지원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여러 해를 걸쳐 참여해온 친구들을 만날 때와, 대회를 통해 제안한 '학원가 금연거리 지정' 건을 안양시에서 바로 반영해, 2017년 평촌학원가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것이다.

2016년 '학원가 금연거리 지정'이라는 공공정책 내용을 제안한 중학생 팀이 있었는데, 안양시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로 다음 해 2017년에 평촌학원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 사례는 안양청소년정책대회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안양시가 이 대회를 운영하여 정말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안양시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 기억에 남는 사례는 중학교 때 참여했던 팀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들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 대회에 참여하기 어려워졌는데, 그 중 한 명이 중학교 후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참가하도록 권했다. 그런데 이 팀이 대회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추천해줬던 선배가 이 사실을 알고 수련관에 전화해서 "후배들이 좋은 프로그램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왜 떨어진 건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활동 영역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고 활용되어지는 영역만이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며 청소년활동을 살아나게 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이론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2016사회참여역량 조사결과 학년 높아질수록 사회참여역량 수준은 오히려 낮아짐이 밝혀졌다. 이는 다양한 청소년 발달 단계별 참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16). 그런 점에서 청소년정책학교 및 평가 프로그램은 사회참여역량 향상을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권리와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사회적 관심, 문제인식 능력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정책학교는 그동안 수동적이었던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환경을 능동적으로 인식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제6회 대회를 진행해오면서 청소년들이 매년 제안하는 정책은 안양시차세대위원회가 모니터링 하는 과정으로 진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정책학교에서 제안한 안건 중 하나인 청소년의회 설립은 현재 조례추진 과정에 있어 내년에는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청소년정책학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참여자,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류심사의 어려움이다. 서류심사를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 진정성 있는지, 의지는 강한지 등 '과정'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이 어려운 과제다. 이 부분을 위해서 심사 기준을 새롭게 보완하려 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는 '공공정책'이라는 부분이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이다. 아이들이 분명 불편함을 느끼고 '아, 이걸 이랬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구체화하면 '공공정책'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어렵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류심사에서 전문가멘토단이 주로 체크하는 항목은

그 부분은 전문가 멘토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실현가능성과 지역 정책과 국가 규모의 정책과 자치단체 규모의 정책의 구분, 문제점 발굴 과정, 진정성, 자료조사 과정의 검토와 조언, 정책제안서 작성 등 다양한 항목을 체크하고 조언한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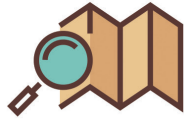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안양청소년정책학교의 집중 정책워크숍은 본선 진출팀만 참가하도록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참가 팀이 참가하여 함께 교육받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전문가 멘토링과 같이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제공된 프로그램 내용을 예선팀까지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인터뷰이 •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김진희, 김문주**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DongJak Youth Center  
동작청소년문화의집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 <아무거나 프로젝트>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 및 학습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질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하는 학교 밖 문화의 장이 되고자 동작구청에서 설립하고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에서 위탁운영 되고 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무한하고 거대한 꿈 나라'의 줄임말로, 청소년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구상·계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상상력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 기관개요

기관명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바길 5
조직형태	(사)청소년교육전략 21 위탁운영
설립연도	2005년
대표자	이영수
운영가치	스스로 꿈꾸며 행복한 청소년 동네 만들기 동네에서 가장 잘 꿈꾸고 행복한 청소년 만들기 New 3R을 통한 By the Youth! For the Youth! • 믿음의 마음(Mind of Reliability) : 청소년에 대한 믿음과 성장을 지원하는 마음 • 책임의 마음(Mind of Responsibility) :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대한 무한한 책임 • 존중의 마음(Mind of Respect) :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모범적인 운영
단체주요활동	• By the Youth! :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사업(참여행복사업) • For the Youth! : 청소년을 위한 사업(행복연계사업, 행복동행체험사업)
온라인	<a href="http://www.djyouthcenter.or.kr">http://www.djyouthcenter.or.kr</a> <a href="http://blog.naver.com/djyouth7">http://blog.naver.com/djyouth7</a> <a href="http://www.facebook.com/djyouth7">http://www.facebook.com/djyouth7</a>
문의	02-816-7971~2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아무거나 프로젝트
주제	청소년 자치, 참여활동
목적/목표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무한하고 거대한 꿈 나라'의 줄임말로, 청소년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구상·계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상상력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동작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사업이다.
활동형태	인지 + 경험
프로그램 소개	<p>1) 주제에 제한 없이 초중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계획, 실행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단순 여행활동 및 먹거리탐방 관련 주제 지양) 기획하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 ~ 10인 이하</li> <li>• 역사·문화, 진로·직업, 봉사활동, 자기개발 4개의 분야 중 선택</li> <li>• 멘토(지도교사, 학부모, 마을교사)를 포함 (선택사항)</li> <li>• 총10개팀, 팀 별 3만원~200만원 내외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2017년 기준)</li> </ul> <p>2) 공모공고 - 드림업 아카데미 I (선정 전 교육) - 공모마감 - 심사(상호심사) - 선정자 발표 - 드림업 아카데미 II (선정 후 교육) - 사업실행 - 중간 컨설팅 - 참가 청소년 교육 - 참가 지도자 교육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발표회</p> <p>3) 심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청소년의 주도성 : 어린이·청소년이 프로젝트의 구상, 계획, 수행, 평가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가?</li> <li>• 프로젝트의 창의성 : 프로젝트가 어린이·청소년의 꿈과 끼와 독창적인 상상력을 담고 있는가?</li> <li>• 사업계획의 적절성 : 프로젝트를 계획과 구상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체계성, 추진일정 준수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안전 계획 등)</li> <li>• 지역사회 변화 및 기여 여부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기여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가?</li> </ul>
참여방법	3월 공모공고, 4월 선정, 11월까지 활동 (약 7개월) 공모공고문에 의한 지원서 제출, 심사 선정
참여대상	동작구내 청소년 초중고 19세미만 5인 이상 ~ 10인 이하
참여형태	청소년들의 직접 계획한 활동으로 기부, 모금, 정책제안, 베품시장,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활동
참여학생수	총1,039 명(101팀)

성인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 : 참여하는 팀에서 멘토(지도교사, 마을교사, 학부모)를 선정해서 지원. 멘토에게는 연간 10만원 지원, 멘토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진행, 청소년 활동을 돕고 정산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li> <li>• 서포터즈단 운영 : 청소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마을과의 연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li> <li>• 서포터즈단은 청소년을 만나는 성인으로서 전문기술+지식+태도가 필요하다. 전문기술로는 의사소통과 자원연계 기술이, 지식으로는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이해, 동작구 지역사회의 정보, 참여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인정하고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도 만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 상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서포터즈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청소년 팀을 만나기 위해서 각 팀별 상황과 연령, 활동에 맞는 배려라고 생각한다.</li> <li>• 현재 서포터즈단은 '동작구혁신교육지구' 전반을 서포터즈하고 있는 마을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거나 프로젝트' 별도의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자 한다.</li> </ul>
예산규모	약41,600천원(2017년 기준)

### 혁신교육지구에서 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나

교육 공간은 학교,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 교사라는 틀을 깨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만들어졌다. 학교의 공교육만으로는 청소년 교육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 밖 지역공동체에서, 교사가 아닌 다양한 마을 구성원들과 만나는 배움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동작구 혁신교육지구에서는 2015년, 청소년 자치와 참여활동을 위한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해 왔다. 1,2년차에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3년차 2017년부터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 3년간의 성과는 무엇인가

<아무거나 프로젝트> 브랜드화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 되었고 지역주민들도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며 청소년들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관점은 이중적이다.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부만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스스로 도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았다는 것도 성과이지만 동작구 주민들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이 활동이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3년 차부터는 '아무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만 사회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무거나 활동할 수 있다고 하니 드론 날리기, 먹방 탐험이나 여행 등의 주제가 많았다.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성장 이야기가 없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나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경험을 지역에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3년차부터는 설명회 이외에 <드리밍업 아카데미>를 열어서 참여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왜 그 활동이 하고 싶은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기준에도 사회적 변화와 기여 항목을 두었다.

### **〈아무거나 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한 것 같다. 멘토, 서포터즈단의 컨설팅, 사전교육, 이끔이네트워크, 예산집행과 결산,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청소년들이 힘들어 하지는 않는가**

구청에서 기획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운영자로서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공적 자금을 쓰는 것의 의미와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정기적인 공모와 심사. 청소년들에게 서류를 요구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재밌게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정산이나 서류 작업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다. 더 간소화 할 필요도 있다. 필요 시 형식적인 서포터즈단과 멘토단의 역할을 축소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무거나 프로젝트〉라면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청소년을 문제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적인 시민, 마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은 스스로가 내가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자, 사회적 책임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마을 주민들 또한 청소년을 함께하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시민성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 2002년부터 청소년을 문제적 관점이 아니라 역량적 관점으로 보자는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기도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동안 학교 밖에서 정책제안이라는 형태로 소수로 활동하다보니 주목 받지 못했으나 교육혁신지구로 각 지자체에서 〈아무거나 프로젝트〉와 유사한 다양한 청소년 자치, 참여활동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들 입장에서 어떤 기대와 동기로 참여하게 되는가**

청소년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다. 활동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했다. '학교 밖에서, 무엇인가 도전해 보았다' 라는 것에 많은 만족감을 가진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는 자신들의 경력 쌓기에 대한 성취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진로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기획하는 친구들이 많다.

###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2016년도에 탈락한 팀 중 6개 팀을 추가 모집하여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각 팀에게는 1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하였다. 이때 초등학생 팀이 지원하였다. 이 팀은 처음에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든다고 시작했는데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들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수신호를 배워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공모의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잘 이어간 사례였다.

### **향후방향**

2018년도에는 그동안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마을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유스벤처-체인지메이커'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 활동했던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이 사회변화 활동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변화를 강조하다보니 청소년들의 주제 선택이 무거워진 면이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진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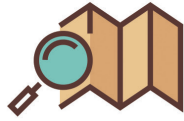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싶은 것을 가볍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버전인 아무거나 속의 아무거나(가칭)를 기획 운영해 볼 예정이다. 아무거나 속의 아무거나(가칭)는 〈아무거나 프로젝트〉 기본 팀 지원 금액은 줄이고 청소년들에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예를 들어 '번지점프를 해 보고 싶다',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보고 싶다', '10만원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떠나보고 싶다.', '용기가 필요한 친구를 응원해주고 싶다', '거리 버스킹을 해보고 싶다' 등 청소년들이 '처음' '시도' '도전' 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더욱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동작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아무거나 프로젝트〉 청소년들의 도전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믿어주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청소년 자치와 참여 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해 보고 싶고, 청소년 단체들과의 교류하면서 청소년 자치 활동에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인터뷰이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이영수**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들꽃청소년세상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 들꽃청소년세상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들꽃청소년세상>은 청소년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계를 꽃피워가는 마당이다. 청소년은 오늘의 시민이기에 들꽃청소년세상은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루고 있는 세계로부터 부름 받고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한다. 배려 깊은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저마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들꽃청소년세상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각자의 다양한 삶으로 자립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난우16길 17(미성동 594-17)
조직형태	사단법인
설립연도	1994년
대표자	김현수
가치	“어린 청소년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눅18:16) 청소년은 오늘의 시민이다. 사랑에 감싸인 청소년의 상처는 보물이다. 배려 깊은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저마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단체주요활동	청소년 • 돌봄 : 그룹홈, 안산시청소년쉼터한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립팜 이상한나라 • 배움 : 들꽃청소년연구소,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 • 자립 : 들꽃피네카페, 자립관비상 • 해외 : 네팔(그룹홈, 자립지원센터), 탄자니아(그룹홈), 몽골(지역공동체)
온라인	<a href="http://wahaha.or.kr">http://wahaha.or.kr</a> <a href="http://blog.naver.com/wahahabus">http://blog.naver.com/wahahabus</a>
문의	02-863-8346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돌봄: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T
주제	위기지원, 인권, 자립
목적/목표	<p>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각자의 다양한 삶으로 자립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핵심가치는 청소년의 주체성, 성장, 평화, 연대와 협력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로 활동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버스의 활동을 구성하며 청소년들 개개인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li> <li>• 온 세상이 배움터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상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관심과 주제로 교육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는다.</li> <li>• 밤시간 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를 한다.</li> <li>• 청소년의 위기를 지원할 다양한 활동가를 조직하고 교육활동을 통해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갖게 한다.</li> <li>•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li> </ul>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의 주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운영회의: 들꽃청소년운영회의활동 지원, 버스 활동 기획 및 운영, 버스 활동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 및 워크샵</li> <li>• EXT 지도 느린 길 찾기(청소년사회활동):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li> <li>• 청소년평가회의 및 운영보고서</li> </ul> <p>성장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별프로젝트/청소년강사 활동</li> <li>• 문화프로젝트: 여행프로젝트, EXT 파티, 문화체험</li> </ul> <p>평화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T 버스 긴급구조 활동: 먹거리지원 및 기본생활용품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긴급상담 및 사건 처리, 사례관리, 인터뷰</li> <li>• 활동가와 청소년의 1:1데이트</li> <li>• 버스 리모델링 프로젝트</li> </ul> <p>협력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조직: 신입활동가 교육(섹슈얼리티, 청소년인권, 노동인권 교육)</li> <li>• 활동가교육: 활동슈퍼비전, 활동가 역량강화지원 사업, 활동가 워크숍, 실무자교육 및 워크숍</li> </ul> <p>연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회내청소년 유관기관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 연합거리축제, 유관기관 네트워크, 유관기관 방문, 연대 활동, EXT방문, 청소년이용 업소 홍보활동, 본 사업에 필요한 지원 연결 등</li> </ul>

참여방법	현재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1시 수원역,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2시 신림역에서 활동가들이 아웃리치로 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참여하기도 하고 EXIT 방문했던 청소년들이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자유롭게 참가한다. EXIT 버스 활동 지역은 지역의 이슈에 따라 이동함
참여대상	굳이 제한하지는 않지만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함
참여형태	도래활동가, 청소년운영위원회, [416기억과 행동 청소년실천단]으로 집회 및 캠페인 활동, 청소년강사단(토론회 토론허로 참석하기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
회당참여학생수	-
연간참여학생수	총 1832 명 (2015기준) / 3,774명 실인원 2017년 기준
성인멘토	멘토라는 개념보다 활동가로 함께 한다. 버스에 상임활동가 4명과 자원활동가 4~5명이 하루에 활동한다. 활동가는 40시간의 기초교육을 받고 매주 활동가 활동 수퍼비전(3~5시간)을 통해 활동하면서도 주요이슈나 필요하다는 욕구가 생기면 수시로 심화교육이나 특강을 받는다. 활동가들은 청소년들과 다양한 역할을 한다. 버스에서 상담도 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버스에 오는 청소년들과 도래를 피하기 위해 나이 제한(23세 이상)을 두었었는데 굳이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 활동가 모집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40시간의 사전교육을 통해 걸러진다. 청소년들이 활동가들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고 본인들이 애칭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예산규모(연간)	-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에서의 청소년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가

EXIT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3년 정도 활동을 해 온 <416기억과 행동청소년실천단>이 있다.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건 아니다. 버스를 계속 이용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해 보자 해서 시작되는 거다. 버스운행을 5년 정도 하니 여기 오는 청소년들끼리 사귀 친구들도 있고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가기도 하고 구조가 있지 않은 오픈된 집 같으니까 놀러오기도 한다.

<416기억과 행동청소년실천단>은 그들의 활동에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 416참사가 있었을 때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매스컴으로 나오는 정보들과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다 보니 사회에 문제가 있나 싶어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위도 하고 유가족들도 만났다. 그러다 이 문제가 사회문제이고 사회의 비리 문제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다. 사회적 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내자라고 해서 사회에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함께 모여 도보행진을 하면서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명도 하고 416 집회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고 싶었던 문제들 - 성소수자, 장애인, 위안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보면서 스스로 깨달아 가는 거다. 우리가 거리에 가서 보니까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진행할 때는 질문을 던지면 친구들이 눈을 피하거나 하는데 이 친구들과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올해 활동 어땠는지, 활동가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여기를 오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될까 질문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서 약간 놀랍기도 했다. 이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다양하고 파란만장한 많은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겪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표현을 하는 거다.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이들에게 들어야 할 것들도 많다. 이 청소년들은 교육을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가 같이 길을 가면 될까로 바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한번은 인권교육센터 들을 만나서 이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부탁했다. 들은 인권교육을 하는 분들이니까 방향이나 이슈들이 다양하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펼쳐놓기만 해도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나름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도 사회에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대체적으로는 교사, 청소년들을 만나는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책도 만들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의견은 없기에 이들이 직접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416 참사에 대해서 이들과 이야기 하면서 많은 의견을 내며 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청소년들을,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격분하기도 했다. 활동가들이 감동 먹었던 것은 이러한 활동을 1년하고 처음으로 이들과 집회를 간 거다. 세월호 1주기 때 집회를 갔는데 한번 다녀온 뒤 그 다음 주부터 이 친구들이 오히려 활동가들에게 '게으르게 하지 말고 계속 집회를 가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래야 세상을 바꾸지 책상 앞에서 일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면서.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쫓아서 집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멈치니까 우리에게 '비겁하다'고 하더라. '사회문제에 대해서 불의라고 생각하면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이야기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활동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했다.

버스의 운영을 담당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면접을 하는데 답변하기를 운영위원을 하면 집회를 열심히 갈거라고 하더라. 그 이유를 물으니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삶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라가 나빠서 그럴거라고 생각했는데 집회를 하는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니 힘없는 약자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다. 버스를 찾는 청소년들은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작은 우리가 조금 애를 쓰기도 했지만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왔다. 실천단 활동할 때는 활동가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곤 했는데 그 다음해가 되니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치했다. 지금은 기획부터 평가까지 스스로 그들이 다한다. 처음에는 버스의 주인은 청소년이기에 뭔가 운영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름만 우리가 가져오긴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청소년들에게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처음 시작의 세팅은 우리가 했지만 모든 의견들은 청소년들이 한다.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

청소년강사단 : <말하는대로>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걷어내고, '비청소년 중심적 사고'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권리의 당사자로서 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주체적인 말하기를 하는 활동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받았던 차별과 혐오를 상처로 혹은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 번의 강사 활동 참여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지지보다는 무시로 자존감이 떨어졌던 청소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로 작용되어 스스로의 꿈을 만들어가거나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청소년강사단의 의미 있는 말 중

“우리가 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며 원고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이후 그들의 생각은 달라져 있었다.

“그래도 해볼래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이들과 목소리 내고 싶어요.”라고 시작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어쩌면 너무나 큰 그림이라 거부하는 반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결국 목소리 내고 싶어진 이유는 본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그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고 그러다보면 결국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과 계속해서 말하고 싶다.

###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3년 전부터 시작된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동절, 박근혜 탄핵 집회 등 다양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2017년 활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장애인차별철폐운동,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이슈가 확장되었다. 버스현장에서 위안부 문제와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서명을 받았고, 도보행진을 통해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우리와 시민들의 목소리로 2018년부터 장애인등급제의 차등폐지가 실행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다!

### 활동가는 몇 명이 활동하며 역할은

하루에 8~10명 정도 활동한다. 38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버스 안을 테이블을 놓고 천막으로 칸막이가 있는데 활동가들은 그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한다. 누군가는 청소년들과 삶을 나누며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별별프로젝트 - 청소년들이 사회나 버스에 도움이 되고 약간 그런 활동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도 한다. 활동가 중에 상임활동가는 4명, 나머지는 자원활동가 대학생이다. 연령대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밤샘작업이 힘들어지다 보니 지금은 2~30대로 많이 바뀌었다.

###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진행되는 교육은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질이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버스에 오는 청소년 들이랑 나이가 같거나 어리면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해 할까봐 23세 이상으로 정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교육을 일 년에 40시간의 사전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걸려진다고 생각했었다. 교육을 하면서 이 활동을 왜 하고 싶은지 듣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거나 하려는 활동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버스에서 위기지원이 기본적인 활동인데 그 위기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뭔가 자주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위치가 생기기도 한다. 그 위기지원이 누군가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이 있고 그것을 같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의견들을 존중하고 싶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엔 청소년들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이 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위기 지원을 하는 보호시설 같은 쉼터는 사회를 바꾼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위기 지원을 하는 것이 급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뭔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기존 쉼터와 우리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다. 활동가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같은지 다른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다.

또는 활동을 하고 끝나고 평가를 길게 하는데 그 시간동안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다. 생각이 같아지기 힘들어서 떠난 활동가들도 있다. 그러면 헤어지기도 한다. 물론 일차적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같아지기 위해 노력과 조율을 한다. 몇 달이 되도록 너무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더 준비해서 오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 편이고 버스에 오는 청소년들이 매우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들이 친구들을 우리보다 더 잘 위로해주기도 하고 어떤 청소년들은 정보가 엄청 많다. 때론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러 왔다가 이들에게 배우고 가기도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우리보다 더 확장되어 있다는 것들을 느끼니까 활동이라는 건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오픈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 활동의 지향점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맞춰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은 열려있고 사전교육으로 40시간 기본교육을 하고 기존 활동가들도 그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따라 와서 받기도 하고 자유롭다. 교육내용은 매년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청소년인권, 학생인권, 성소수자 파트 나누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이런 교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하면 따로 받기도 하고 보수교육을 중간 중간에 받는다. 현장에서의 이슈 중심으로 간다.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에서 추구하는 가치**

주체성, 연대와 협력과 평화이다.

주체성은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주체로서,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 사회참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주인이 되는 것, 공동체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활동들을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버스가 버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대와 협력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연대단체와 펼쳐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 공간을 통해서 누구든 함께 성장해 가는 공간이면 좋겠다. 청소년들보다 청소년들을 통해 활동가들과 지역사회가 더 성장해 가기를 꿈꾸는 것 같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갈등이 없는 게 평화는 아니다. 힘 썬 이가 약한 이를 조용히 시켜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할 때도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좀 시끄러워져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야기되고 노력하는 장을 만드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자라고 정한 거다.

### **청소년들에게 느껴지는 변화의 시점을 어떻게 느끼는가? 느껴지는 타이밍이 있다면 어떤 때인가**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세상으로 시선,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인 것 같다. 실천단의 경우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달라지기도 한다.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힘, 삶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그때 실천단 활동 1주기 이후에 집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나서 그 가을에 갑자기 뭔가 새로운 시도, 일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다짐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과업이어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동기가 생기지 않는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펼쳐질 때 이 친구들이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남을 케어해주거나 남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며 챙기게 되는 것 같다. 하위육구부터 하나씩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 아닌 오히려 상위육구를 건드려 줄 때 그 필요에 의해 스스로 하위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변화가 보인다.

우리는, 특히 청소년은 단계적으로 교육하려고 한다. 가령, 돈을 벌어서 잘 쓰려면 경제 교육이 필요하니까 경제 교육을 시키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청소년들은 자꾸 뭔가 교육을 해야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EXIT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돈을 벌면서 약간 내 삶을 꾸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들로 오히려 거꾸로 변화시키면서 하는 걸 보는 것 같다.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지역사회의 변화된 모습은**

버스에 오는 청소년들은 사회를 온몸으로 겪고 경험하면서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알려준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때 버스에 오는 청소년이 토론회 참석해서 전문가들 앞에서 청소년이 거리의 상황을 리얼하게 이야기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것 같고 활동가 교육을 일 년에 한번 할 때 청소년들에게 강의 요청을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사회, 세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 줌으로써 활동가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배우기도 한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다. 청소년들이 우리를 향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활동은 별로더라 어떤 활동은 좋더라 이런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청소년들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다. 내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과 들어주는 것도 스스로의 변화라고 생각하더라. 최근에는 청소년강사단 활동도 하고 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대학이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촛불청소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도 청소년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들이 직접 일터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면서 활동가들은 필요한 활동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잘못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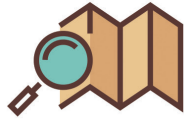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최종목표는 문 닫는 것, 버스가 없어지는 게 목표이기는 하나 우리는 즐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이다. 살기 좋은 세상이란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존중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은 세상,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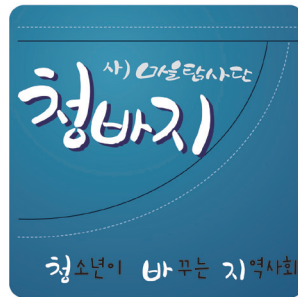
EXIT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해서 가르쳐야 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도 사회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고 교육이나 학습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주체성, 생각, 이런 것들은 스스로 고민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화하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운동을 하는 거다. 청소년들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정책에 실제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자는 거다. 두 번째는 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생인권법이다.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다. 청소년들의 의견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소년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터뷰이 • 들꽃청소년세상 **황인성, 변미혜**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사단법인 마을탐사단 청바지





## 사단법인 마을탐사단 청바지

### <마을탐사단 청바지>

마을탐사단 청바지(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는 2012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만든 단체로 청소년과 학부모들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마을탐사단 청바지>는 단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마을을 탐사하며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을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게릴라 가드닝, 청소년문화놀이장터 ‘놀장’, 마나책방(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사단법인 마을탐사단 청바지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창4동 쌍용상가 지하3호
조직형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연도	2012년 03월
대표자	최소영
가치	소통과 참여중심의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키고 청소년이 자랍니다
단체주요활동	자원 봉사, 지역사회참여, 마을공동체 활동
온라인	-
문의	010-5478-4120 (최소영 대표) csyoung02@naver.com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마을탐사단 청바지
주제	청소년 마을만들기

목적/목표	지역의 문제를 탐사로 찾고, 봉사로 해결 소통과 참여중심의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키고 청소년 성장 느리지만 과정 중심활동 단체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기획하는 자원봉사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의 리더로 성장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를 부모와 함께 기획, 실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한다.</li> <li>• 봉사인증 기관으로 지정. 봉사시간 인증</li> <li>•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가족 1화분 : 마을에 버려진 화분에 버 심기</li> <li>- 청소년 문화놀이장터 놀장 : 벼룩시장</li> <li>- 마나책방 : 마을로 나온 책방, 놀이터에 책방 설치</li> <li>- 한평 마을정원 (게릴라 가드닝)</li> <li>- 마을 청소</li> <li>- 청소년 시민 시장님 되다</li> <li>- 청소년 뮤지컬 도전</li> <li>- 마을수다방 공감 운영</li> </ul> </li> </ul>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회원 모집.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회원 가입 가능</li> <li>• 롱바지 회원(정회원) : 월 1만원 또는 연회비 10만원 납부, 청바지 운영 및 기획 참여, 공간이용 및 프로그램 이용의 다양한 혜택</li> <li>• 반바지 회원(준회원) : 연회비 5만원 납부, 월 정기회의 참여, 공간이용 및 프로그램 이용의 (*정회원과 차이나는) 혜택</li> <li>• 숏바지 회원(비회원) : 연회비 없음, 청바지 봉사활동 정보제공, 누구나 참여가능</li> <li>• 비회원 참여 가능 : 봉사포털사이트 1365 통해서 자원봉사 모집</li> </ul>
참여대상	초중고 가능. 그 외 마을의 관심있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가능하다.
참여형태	벼룩시장, 게릴라 가드닝, 기금 조성, 마을 청소 등 마을 만들기 활동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45명 내외 명(회원) 60~70여 명 (비회원)
연간참여학생수	총 1,000명
성인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인 멘토는 별도 운영하지 않음 부모 회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음 부모/청소년들이 따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 중 1명이 회의 진행을 돕거나 학생들끼리 회의할 결과에 대한 실행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산규모(연간)	약 300~400만 원

##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9년부터 지역 활동을 했고 이전에는 '청소년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센터에서 저소득층 친구들을 많이 만나왔다. 리더십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변화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결론은 변화의 주체인 아이들만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환경을 둘러싼 부모가 바뀌고 지역사회도 함께 바뀌어야 함을 알았다. 이후 2009년부터 지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나중엔 마을에서 직접 활동을 펼치고자 청바지를 만들게 되었다. 마침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 자원봉사를 할 시기였고,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해 본 결과, 주로 시간 때우기 식, 부모 대리봉사, 허드렛일이거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이라면 장시간 먼 거리의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는 것 등 자원봉사의 기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왕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라면 활동을 통한 의미 전달과 과정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마을의 청소년도 한 주체로 여기고 성장기 시절 자라왔던 마을이 잠시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성장 시기에 지냈던 마을에서 동료와 어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도시에서 고향 만들기' 같은 활동으로 진행해보고 싶었다.

첫 활동은 또래 친구들과 엄마들이 모여서 마을을 둘러보는, '마을탐사'를 시작. 내가 우리 동네를 알고 내가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해보는다는 모토로 마을 탐사단을 운영하였다. 탐사단은 주는 청소년, 청소년들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조력과 활동의 실행 협력을 위해 참여자들의 엄마들과 어른들이 했다.

시민단체 활동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보니 지원받은 예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은 예산이 없으면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겨서 지원금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하되, 사람 중시의 운영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지금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처음에 한 활동은 마을을 탐사하며 찾아 낸-마을에 버려진 11개 화단(아파트 큰 화분)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우선 1가족 1화분을 정하고 벼를 심어 1년 동안 관리하였다. 학교 가는 길에 물을 주고 멀리 여행가기 전에도 꼭 물을 주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공공의 물건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나' 걱정을 많이 했다. 1년 후 버려진 화분을 가꾸고 나니까 '우리가 공공의 장소를 바꿀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공은 행정의 영역이며 행정 담당자가 해결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의 시설물들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 학부모 회원과 청소년 회원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부모 회원과 청소년 회원들은 따로 회의를 진행한다. 처음에는 함께 진행하였으나 부모들이 잔소리를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낯선 어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해서 따로 운영한다. 학부모 회원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는 한다. 청소년 회의에서는 리더는 없다. 누구나 활동하고 역할을 나눠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자연스럽게 자기 역할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한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역할을 나눠서 활동한다. 맡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기도 한다. 전문적이지 않지만 과정을 겪어 보는 게 중요하다.

##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활동할때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장점으로는 부모들의 변화이다.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엄마와 아이들은 서로의 활동을 보면서 함께 성장한다. 평소 칭찬보다는 잔소리를 하던 엄마-아이 관계도 서로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된다.



사춘기가 시작되어도 대화거리가 생기고 더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부모와 아이 관계가 좋아진다. 물론 단점도 있다.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어른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더 잘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거나 대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바지에서 만큼은 욕심을 내려놓는다. 우리 안에서도 회의할 때나 현장 활동 시 아이들이 쑥스러워 하거나 얼어 있기도 하는 등 잘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랑비 옷 젖듯이 행사나 자원 활동을 통해 조금씩 어른들과 함께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 그 모습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고 한다. 기관에서는 청소년 전문지도사에 의해 기관 프로그램 일정에 맞게 잘 진행되고 보기도 좋게 운영 되지만 청바지에서는 때론 의존하기도 하고 서툴러 잘 하지는 못해도 경험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예로 학교 운동회 행사를 하고 지저분한 운동장에서 아무도 줍지 않던 쓰레기를 '나라도 주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 운동장 청소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아이를 통해 들었다. '변화가 있을까'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실천에 옮기던 아이들. 스스로 참여 하며 보고 느낀 것들은 어른들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잘 해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았다 싶다. 앞으로도 화려한 성과보다 작고 부족한 것에서부터 시작과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을 지지하고 기다려주려고 한다.

###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변화 성장하였는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시작하지 몇 년 되지 않아 벌써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 라고 생각한다. 최소 10년은 활동을 해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초등5학년에서 시작한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마을에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 잘 했고 잘 자랐다 생각한다. 마을에서 격한 사춘기를 또래와 어른들과 부대끼며 함께 겪어 왔고, 때론 즐겁고 때론 아침 잠을 포기하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귀찮음에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활동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모두를 위해 개인의 긍정적 희생(?)이 필요한 것을 알아 가고, 작은 실천이 지역변화의 중심점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닌 너'에서 '너가 아니면 나라도'라는 생각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장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 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어느새 앞장서서 주도적인 자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깜짝 놀라고 한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간 것 같다. 책상머리에서 배운 이론적 학습보다 현장에서 저절로 익혀져 더욱 값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청소년들의 변화를 무엇이라고 꼭 짚어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남을 배려 할 수 있는 인성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활동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마을 어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마을에서 활동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적 희망은 참여를 함께 했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되돌아보아도 청바지 활동을 잘했다는 생각이 녹아나 또 다음세대를 잇는 활동의 주체로 그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행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바지는 가급적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여 자립적 모델을 만들어 보려했다. 그래서 운영비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점이 어렵다.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곳과 비교를 해 보면 규모나 활동의 내용에서 부족해 보일 때도 있다. 그리고 행정 지원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활동의 성과공유나 관리와 관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다보니 아무리 좋은 활동, 선진적인 활동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우리들만의 활동을 끝나버리거나 거대예산을 투여하는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몰랐거나 악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유지해 나가고픈 소규모 단체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고 회원이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마을 틈새에서 좋은 의미와 가치를 살리며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를 발굴하는 기준이 공모 참여 단위가 아니었으면 한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지지와 성장을 꾀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유지를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청바지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부모회원들이 활동을 그만 두고 점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다.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단체에 함께 해 달라고 부탁 할 수도 없다. 활동하며 경제적 부분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마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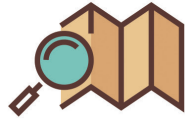
## 향후방향

1) 예전과 다르게 마을 활동의 흐름이 시민단체 중심에서 행정의 공모사업지원 중심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자발적 주민활동(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같다. 정보 공유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행정의 광범위한 공모 참여자 중심의 지원으로 자발적 소수 단위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거나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의 개입 유무에 상관없이 마을에서 관련 활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나 파트너를 맺기도 하지만 그 또한 짜여진 사업일정에 맞추어 나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조율은 쉽지 않다. 좀 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서로의 필요성과 자발성의 의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연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생각했다.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의 주체들이 시작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활동의 과정 속에서 성장의 지향점을 찾았으면 좋겠고 지원 가능한 기관이나 행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부모회원들이 활동을 그만 두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비취어 볼 때 같은 비용 대비 더 큰 효율성이 있음에도 소모성(일회적인)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사람에 대한 지원은 쉽지가 않다. 향후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성장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마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한다.

2) 내년에는 청소년 도시재생활동을 함께 해보고 싶다. 리사이클, 업사이클, 마을생태 활동 등 청소년들과 마을에서 펼칠 수 있는 활동이 많을 것 같다. 무엇인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인 인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마을이 토양이 되어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빛과 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인터뷰이 • 마을탐사단 청바지 **최소영**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미래교실네트워크



## 미래교실네트워크

# <사최수프: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미래교실네트워크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 모두가 삶에 필요한 진정한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의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회원의 절대다수는 초중등 교사들이다.

실천 전략으로서 미래교실네트워크는 현재 한국의 교육위기를 세계적 시야에서 재조명하고, 위기의식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동시에 위기를 돌파할 혁신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교사들을 통해 이루어내고 확산하려 한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혁신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으로 교육혁신의 그치지 않는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꾸로교실>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이하 사최수프>는 학생들의 교과교육을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교육 기법이다. 배움이 교실과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도록 모든 교과목을 연결, 확장시킴으로써 학생들은 교과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동기를 새로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내게 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미래교실네트워크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 공공일호 3층
조직형태	사단법인
설립연도	2014년
대표자	최명숙
가치	미래교실네트워크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 모두가 삶에 필요한 진정한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주요활동	미래교실네트워크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 모두가 삶에 필요한 진정한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 검증된 <거꾸로교실>의 성공과 확산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단체주요활동	적합한 인재양성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혁신방법을 전국의 교육현장에 전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혁신, 미래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li> <li>• 교육혁신, 미래교육 성과측정 및 실행방법 연구</li> <li>• 교육혁신, 미래교육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및 활용도구 개발, 보급</li> </ul>
온라인	<a href="https://www.futureclassnet.org">https://www.futureclassnet.org</a>
문의	info@futureclass.net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최수프(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진짜 세상 문제해결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
주제	교과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 프로젝트로 정규교육과정 내 앵터프리너십 교육 실현
목적/목표	사최수프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고도화된 교육방법으로 고안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짜 문제를 찾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함께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동형태	인지+경험
프로그램 소개	<p>〈사최수프〉는 학생들이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배움이 교실과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도록 모든 교과목을 연결, 확장시킴으로써 학생들은 교과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동기를 새로 발견함은 물론 자존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p> <p>미래교실네트워크의 선생님들은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이 수업혁신 프로젝트인 〈거꾸로교실〉로 되살아나고, 학업 성적도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질문에 빠져들었다.</p> <p>‘내가 가르친 것들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p> <p>‘사최수프’는 이 고민에서 시작했다. 이 수업은 〈거꾸로교실〉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진짜 문제라고 느껴지는 주제를 찾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함께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학생들은 각자가 정한 주제와 성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Maker Movement”, “Design Thinking”, “S/W교육”, 아쇼카의 “Changemaker” 등 세계적인 교육혁신 방법과 철학을 접목하도록 유도한다. (사)미래교실네트워크는 이 방법들을 〈사최수프〉에 잘 녹여내도록 돕기 위해 교사 간의 소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래교실네트워크 핵심활동회원인 〈주변〉그룹을 중심으로 이 수업방법을 전국의 모든 교실에서 쉽게 적용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실제 〈사최수프〉를 운영해본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2015년 1월,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사최수프〉 캠프가 운영되었다.</p> <p>이 수업은 2015년 최초로 13개 학교에서 실현되었고 그 결과 25개의 프로젝트가 나왔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p>



<p>참여방법 및 형태</p>	<p>초반에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강조해도 아이들이 바깥의 문제로 넓혀나간다. 우리가 남의 문제 신경쓰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공감능력을 길러주는데 강한 자극을 주게 된다.</p> <p>문제의 패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학급 안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공간, 학교시스템, 지역커뮤니티까지 문제의식에 따라서 확장성이 굉장히 강하다.</p> <p>또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캠페인을 솔루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캠페인이나 설문조사처럼 호소하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방법을 직접 찾으라는 의미이다.</p> <p>해결방법이 없거나 찾을 수 없다면, 문제에 대한 정의에 다시 집중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종종 한번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p> <p>프로젝트 과정에서는 내가 아닌 우리로 접근을 한다. 팀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팀에서 찾아낸 솔루션을 투입해서 일단 해결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다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이 문제해결방법이 올바른 방법을 검증해보는, 검증해보고 다시 찾아보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p> <p>보통 교사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동아리형태로 진행하다가 수업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p>
<p>참여대상</p>	<p>초중고 학생</p>
<p>회당참여학생수</p>	<p>-</p>
<p>연간참여학생수</p>	<p>-</p>
<p>성인멘토</p>	<p>성인 멘토는 교사다. 시도해보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 연수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에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선생님들한테는 허들이 굉장히 많기에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단계단계 마다 아이들과 부딪칠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최수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 같이 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연수를 받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p> <p>처음에는 방송용 프로젝트로 시작해 파일럿을 돌리면서 의미있는 경험을 추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은 5회 정도 진행했다.</p> <p>사최수프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워크샵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중간에 경기도의 지원 받아서 경기도 교사들 대상으로 오픈한 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회차도 많지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p> <p>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요청하거나 지원한다고 해도 기본개념이나 철학은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가 가져간다. 만약 우리가 운영하는데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면 아예 운영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또한 멘토풀을 만들고, 펀딩 플랫폼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교육적 시도에 대해 사회적 지원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는 거다. 아이들의 프로젝트에 외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서 같이 키워나가는 그림을 그려본다.</p> <p>사최수프의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규모를 볼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를 모두 탑재할 계획이다. 거꾸로 교실보다 사최수프는 쉽지 않고 교사가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혼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사최수프다.</p>
<p>예산규모(연간)</p>	<p>-</p>

## 프로그램 생겨난 배경

기존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해결,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유사한 동아리 활동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주목했던 것은 이게 왜 정규교육과정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 있을까,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접근이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교육 방법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대개는 동아리활동 형태로 정규교과 외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주목했던 건 공교육에서 일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내부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 게 미션이었다. 사최수프는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다. 일상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자기 수업시간을 통해 진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으로 전환시켜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이다. 사최수프의 본질은 21세기 교육의 핵심인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기르기가. 그래서 21세기 교육과 바로 연결된다고 보면 된다.

##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

처음에 기획한 게 2013년도, 그 당시 2월에 교육혁신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거기서 21세기 교육에 대한 개념, 프레임워크를 처음 봤다.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국교육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건 문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못 풀고 있다는 의미였다. 사교육, 입시과열 등 대부분의 교육 문제 이면에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지체현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읽었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은 학교 교육의 지체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교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니, 기존 학교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 변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거꾸로교실과 사최수프라는 프로젝트로 이어진 것이다.

##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참여하나

이상적인 교육모델들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플립드러닝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한국에서 재해석한 것이 거꾸로교실이고, 이에 참여한 교사들의 모임이 미래교실네트워크이다. 지금 붕괴되어 있는 교실 환경의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고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가장 기본적인 역량인 소통능력의 문제를 거꾸로교실로 인한 수업방법 전환을 통해 길러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사최수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최수프는 우선 완전한 학생중심의 교육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시도하는 모습이 된다.

미래교실네트워크 핵심적인 선생님들이 150명인데, 이들이 우선 시행하고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재확산해 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의 이유

우리 미래교실네트워크 시작했을 때 확산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외부에서 추가적인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정책적으로 대단히 큰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큰 장비나 인프라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교사들의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의 전환, 간단한 방법들의 도입으로 아주 혁신적인 변화들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지속가능성이 있고 확산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거다.

다른 어떤 보상보다 교사들 스스로 프로젝트에서 경험하는 아이들의 변화에서 교사의 동기가 나오는 거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동력은 교사들의 행복감이다. 학생들이 행복해진다고 해서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힘들어지고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한데, 미래교실네트워크의 방법들은 학생들의 변화 과정에서 교사 역시 자기 효능감, 말 그대로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줄 아는 교사였구나라는 교사로서의 만족감, 행복감을 준다. 이것이 실적으로 포장된 교육혁신 방법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 사회수프 진행 사항

작년 말까지도 파일럿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확산하는 추세와 거기서 나오는 결과 체크해보니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걸 모아서 올 1월 초에 30개 정도의 팀과 함께 전국 사회수프페어를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걸 한 이유는 참여한 팀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성과의 일정한 패턴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교사나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종합적인 역량의 성장이다. 일단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이 크게 신장하고, 자신감과 회복탄력성이 생기고 자기효능감이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페어는 이를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거꾸로교실의 확산상황에 비해 미루어보면 사회수프는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사회수프의 교육적 효과가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번 경험을 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고 말을 한다.

### 프로그램 진행한 교사들의 변화, 학교의 변화는

〈거꾸로교실〉에서부터 아주 큰 변화 사례가 많이 나온다. 30년 경력의 교사가 명퇴하려고 준비하다가 2014년에 〈거꾸로교실〉을 처음 시도해보고 아이들과 수업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며 명퇴 대신 학교생활 계속 하시다가 작년 말에 교육부총리 표창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아이 뿐 아니라 교사의 인생까지도 수업으로 인해 바뀌어 가는 거다. 이런 사례들은 무척 많다.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학교생활을 완전히 즐기는 상태로 바뀐다는 것, 그게 제일 큰 현상이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고 수업을 아이들과 노는 시간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 스스로도 일상적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주 화제 내용이 학교 이야기와 수업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 아이들의 변화는

제일 큰 변화는 말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보니 소통능력도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 보여진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웃고 소통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교실 안에 있던 갈등들이 없어진다.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쉽게 풀어내고 교실에서 있었던 왕따나 학교폭력 등도 거짓말처럼 없어진다. 교실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긴장관계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학습능력도 올라가다 보니 쉽게 사교육에서 탈출을 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긍정적인 연쇄반응으로 교육이 본연의 궤도를 찾아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교사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그 해결방법은

사실 수업혁신을 하는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본인들도 해보지 않은 문제해결의 경험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이 발생해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네트워크가 다양한 선생님들로부터 해결책을 얻게 되고 더 진화된 수업 방법을 만들어 공유하는 생태계 역할이 된다. 네트워크를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 국내의 이런 교육혁신, 본질적인 수업에 대한 핵심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기에 교사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였다. 특히, 초반에 많은 선생님들이 다른 사례를 보고 그대로 했는데 우리 애들은 왜 안돼요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뭔가 빠뜨렸거나 잘못하고 있는 거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에 교사가 주도하던 몸에 벤 습관을 버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게 거의 99%이다. 한번 시작하고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면 그 이후에는 어렵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스스로 깨닫고 진화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것이라 한번 아이들이 움직이는 변화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된다.

###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수프는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이기에 연수프로그램은 더 확산이 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교육청의 관심으로 교사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움직이는 교육청이 없다보면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전 압축된 프로세스로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1박2일의 과정으로 진행하다보니 개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최근 고민이다. 수업혁신은 교육정책이 핵심이다. 그걸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것을 개인에게 맡긴다하는 건 교육관계자들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확산을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 하고 싶은 한마디

많은 다양한 시설에서 팀 프로젝트나 사회참여프로그램이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의 가장 큰 전제가 기존의 교육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육과정 에 녹아드는 것이 아닌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좋은 시도인 만큼 성과도 많을테지만, 보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진짜로 좋은 건 그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고, 이를 학교 바깥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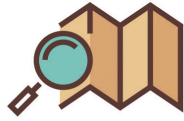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또한 기존의 학교 안의 성과가 외부역량과 연결되었을 때 큰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단체의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하는 그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변화 자체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서 자칫하면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향후방향

2016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지원, 선정되어 구글에서 5억원의 후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구축한 것이 사회수프의 온라인 플랫폼이고 올해는 본격적인 확산모드로 들어가려고 한다. 일단은 연수프로그램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강화시킬 것이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케이스들을 다 모으려고 한다. 플랫폼 역할 자체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고립된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다. 플랫폼의 역할이 아이들의 커뮤니티의 장이기도 하고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이 • 미래교실네트워크 정찬필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Democratic Civic Education Project SIDE



##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결은 “시민의 결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결에, 시민교육활동가의 결에” 함께 하자는 의미로, 개인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개인 네트워크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체의 상황과 조건이 핵심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경험 속에서 다른 기관에 교육을 기획,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직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몇 분들이 모여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결을 만들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결은 청소년과 시민 대상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하고자 하는 단체 지원과 다양한 주제에 참여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요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자체사업 보다는 단체 및 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청소년민주시민교육>사업의 경우 경기도 안산 지역의 단체들과 공동 협력하는 ‘안산청소년 NPO 동아리지원사업’과 ‘안산품은학교(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포YMCA, 구리YMCA, 청주YWCA 등 지역 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촉진자 양성을 공동기획 운영하였다. 최근 자치단체의 시민참여 공론장을 기획 운영하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조직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연도	2016년
대표자	이 호
가치	누구나 학습자이면서 교사이다. 동네 전체가 배움터다. 생활 속의 민주시민교육 지향.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감성을 참여자 중심으로 키움.
단체주요활동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시민교육 #민주시민

온라인	<a href="http://cafe.daum.net/2014citizenship">http://cafe.daum.net/2014citizenship</a> <a href="https://www.facebook.com/edu.side.2017">https://www.facebook.com/edu.side.2017</a>
문의	010-9653-2014 (권복희) / kde-side@naver.com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민주시민교육
주제	민주시민교육, 참여, 자치
목적/목표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치활동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역량의 강화, 공공성을 강조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교육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운동
활동형태	인지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은 학교(학생회 임원연수 등), 캠프, 동아리지원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성인은 아카데미 형식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양성 공론회, 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대화모임
참여방법	지역 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육진행 및 지원
참여대상	청소년 (초등학교는 5,6학년부턴~), 성인
참여형태	교육, 토론
회당참여학생수	30여명 이상
연간참여학생수	17년, 안산 47개교 60건 도봉구 4개교 12회
성인멘토	경기도는 일산, 안산, 군포 YMCA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강사단 구성 월회 모임 및 토론, 교육지원, 강의안 만들기
예산규모(연간)	학교 강사비, 기관의뢰시 사업비 일부지원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춘발산프로그램
주제	민주시민교육
목적/목표	얽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하고, 관계 안에서 민주적인 감수성을 담아내고 실천 스스로 무엇을 해보는 경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하나의 주체라는 인식하게 하는 것



목적/목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이야기를 해보는 경험, 어른들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며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계기
활동형태	인지+경험
프로그램 소개	<p>기본교육(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례, 토론과 워크숍 형식)과 직접 경험 형태로 활동</p> <p>안산지역 NPO 공익동아리 지원사업 학교동아리, 마을 안 청소년 동아리, 각 기관(수련관 복지관)의 청소년동아리의 활동을 공익활동의 시선으로 보고, 안산시민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산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었는지 등 그 과정을 지원함.</p> <p>5~11월 동아리 활동, 여름캠프, 발표회</p> <p>동아리 별 활동 진행 후 캠프, 발표회 때 전체 모임</p>
참여방법	안산 지역 내 동아리(5명이상)가 자발적으로 지원
참여대상	중, 고등학생
참여형태	지역사회 문제찾기, 정책제안, 봉사활동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60~70 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150 명
성인멘토유무	각 동아리 담당자가 멘토로 있고, 곁에서 지원나가는 형태.
예산규모(연간)	안산희망재단 TOP기금 운영(안산 세월호 유가족 위탁)

### 민주시민교육은 다른 교육들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시민교육은 강의가 아니라 교육운동이었으면 한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 강사는 강의만 하고 나오면 되지만, 운동이라면 교육의 변화를 고민해야한다. 단순히 2시간을 강의하고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고 이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회성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해야한다.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사실 교사들은 모른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을 정리하고 학교 교사들과 공유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변화를 발견하고 제안은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이나 제안으로 끝나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친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금개구리 서식지 탐구했던 동아리 친구들이 금개구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알았는데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발표했는데, 그걸 보며 '위해서'가 늘 좋은 것 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걸 지원하는 것'이 나의 역할임을 알았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것이 바뀌고 성숙한 시민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 알아차리거나, 다른 삶을 고민해보지 않을까 싶은 바램이다.  
 보통의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건 아니지 않아? 알아차리고, 실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본다면 좋겠다.

###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청소년들의 한계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 실제 참여를 어디만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형식은 바뀌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의 변화는 아닌듯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 청소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많다.

###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할까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동아리 지원사업이 기금 지원이 있어 신청서에서 담당교사 없이는 신청할 수 없는 구조이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이럴 때 드러난다.

청소년들에게 이 기금이 공공의 자원이고 잘 쓰도록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사업 부분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들을 가뒀두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한다.

청소년들의 자발성이 갖게 하는 것, 촉진하는 것은 필요하나 질문하고 보여주는 것과 이끌어가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다.

강을 건널 때 돌 하나씩을 놓으며 강을 건너는데, 강의 건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어떤 돌을 하나씩 놓을 것인가? 늘 고민이다.

토론의 주제와 질문을 던져주는 것, 주제를 던져주고 스스로 이야기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제안만 하는 존재(필요하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안을 할뿐 그 제안에 대한 답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안을 넘어서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런 판을 만들어도 좋겠다.

청소년 참여권을 통해 4년에 한번 참여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말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 (예, 시의 정책 자문단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기 등)

10년 넘게 교육부문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큰 방향, 물줄기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 닿을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고 본다.

### **올해 계획은**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민주화운동사업회가 인큐베이팅 하는데 곁이 함께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조직을 잘 만들어보는 것이 큰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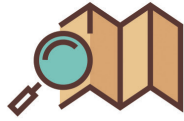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요청 사업, 지원사업 지속하고, 대화모임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을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이다.

### **향후방향**

민주시민교육 – 공론회, 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대화모임의 확대

청춘발산프로젝트 – 발표회 때 동아리 참여한 청소년과 담당교사들만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동아리 주제 관련 담당자(예, 교통문제면 안산시 교통계 담당 공무원)를 초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면 좋겠다. 또한 정책제안대회도 열어보면 좋을 듯 하다.

인터뷰이 •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권복희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 10053호)를 발의,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및 학교 등 청소년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도록 실천하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고 자신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재지	경기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조직형태	기타형태_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연도	2000년
대표자	지선 스님 (이사장)
가치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동반자 참여, 협력, 자긍심
단체주요활동	민주시민교육, 민주화운동 조사 연구, 민주화운동사료 수집 및 보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 국제협력, 민주주의 전당 건립
온라인	<a href="https://www.kdemo.or.kr">https://www.kdemo.or.kr</a> <a href="https://www.facebook.com/minjustory">https://www.facebook.com/minjustory</a>
문의	031-361-9500 ourstory@kdemo.or.kr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
주제	사회참여(정책제안)
목적/목표	지역사회 및 학교 등 청소년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도록 실천하는 활동 청소년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고 자신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모둠(4명~8명)을 구성하여 자기 주변(학교,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제안 및 실천 활동</p> <p>*사회참여 4단계 방법 1단계 : 문제점 찾기 : 학교나 지역사회 문제 찾기, 문제의 원인과 정보찾기 2단계 : 기존 정책 조사 : 현행 공공정책 및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정책, 또는 해외 사례 조사 3단계 : 공공 정책 만들기 : 정부에게 제안할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그 장점과 한계 살피기 4단계 : 실행계획 실천하기 : 공공정책 제안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p> <p>*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 프로젝트 시티즌 학생/교사용 지도서 온라인_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원격연수 프로그램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설명회 개최 (전국/5월)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자료집, 발표영상 사회참여 안내서 사회참여 활동 도움 자료(정보공개 청구 / 시민기자 활동)</p> <p>*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된 강의 요청 시 강의제공(2시간)</p> <p>*매년 &lt;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gt;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 내용을 담은 원고를 제출하여 대회 참여, 원고 심사인 예선을 통과한 팀들은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상한다. (2017년 제8회 대회 개최)</p>
참여방법	5~6월 : 설명회 개최 (전국 광역시), 교육부 공문발송, 학교별 홍보 9월 : 대회원고 마감 _ 모둠(4명~8명)을 구성하여 자기 주변(학교,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제안 및 실천 활동을 원고로 제출 (1월~9월까지 활동내용 포함) 11월 : 본선 발표대회 개최
참여대상	11세 ~ 19세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청소년 4~8명으로 구성된 모둠)

참여형태	정책제안 _ 정책제안을 위한 실천활동 _ 해당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제안, 캠페인, 서명, 봉사, 설문조사, 비영리단체 활동, 1인 시위, 투고, 편지쓰기 등
회당참여학생수	72개팀_385명 (예선) 12개팀_67명 (본선) 2017년 기준
연간참여학생수	총 385명 (2017년)
성인멘토	팀별 지도교사 각 팀별 지도교사(학교 교사, 청소년 지도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촉진자(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다. 거대한 주제보다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지도교사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도서 제공 및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 할 예정이다.
예산규모(연간)	약 3,500만원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금년(2017년)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광주 수완초 학생들의 길말쪽에 대한 제안. 수완동의 길말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길말쪽의 재질과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명확한 기준들이 없다는 점을 발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고 광산구청에서는 기준을 마련하여 수완동 뿐만 아니라 광산구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많이 알려진 사례로는 수송초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시락 쉼터, 학교 주변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다. 작년(2016년) 대상을 받은 안산 단원구 원곡고의 경우 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 개선안을 제출해서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었을 때의 자신감과,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활동을 직접 해보는 경험은 중요하다.

박물관 쉼터를 제안한 수송초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박물관 관련법과 박물관 이용자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 등을 찾아서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이후 박물관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활동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들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의 의미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찾고 이웃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이면서 지속성을 갖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 민주시민역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사회문제는 훌륭한 사람들이 해결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활동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을 갖는다. 청소년들의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학교의 문턱이 지역사회로 넓게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으면 한다. 교사가 청소년들과 역할 분담을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역공동체의 일 주체로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울타리 안에서 관리되고 공부만 하는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일원으로 상호간에 느낀다면, 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동아리 차원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급차원으로 협업하면서 이 활동이 진행된다면 학교 내 커다란 문제인 소외, 왕따 문제도 상당부분 없앨 수 있다. 학급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을 해보고 역할 분담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경험으로 쌓이면 경쟁적인 관계만을 맺은 학급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교실 단위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꿈이다. 의견들을 모아서 논쟁도 하고 '정책을 만들어 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며 어른들에게 인정받으면 청소년들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이 활동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장점, 재능을 발견하고 이 활동을 통해 이웃사회와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민주시민의 자질이기도 한다.

한 번의 활동이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미래의 일-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일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 삶,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진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설명회, 강의 시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는가

설명회는 대회 안내를 위해 전국 5곳의 도시에서 5월에 진행하고, 강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연간 30~40회 진행한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보면 실천 활동을 담은 보고서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연구 소논문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를 찾고 직접 이해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조사해야 설득력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데 기사, 논문, 한 두명의 전문가 견해를 담아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강의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하고 그 해결방안이 지역의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한다. 설명회에서도 이 대회의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설명회에 참가한 팀들이 확실히 보다 더 취지에 맞게 구체적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강의와 설명회에서는 대회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 지도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도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팀을 짜서 선생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이끄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직접 주변의 문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팀이든 지도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도교사는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촉진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교사 가이드북에도 이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정한 주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안내하는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다.

###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의 심사기준(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대한 문제를 피해서 주제를 선정하라고 이야기한다.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큼 효능감이 큰 것도 없다. 너무 거대한 주제를 정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지는 경우가 많다. 심사위원들도 너무 큰 주제보다는 작은 문제 하나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격려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다. 올해 대상을 받은 ‘탈북민’관련 주제도 거대한 주제인데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1년 동안 ‘물망초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 문제로 해결하고자 했던 점을 주목하였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 이 사업을 진행할 때의 어려운 점, 고민이 되는 점은

대회형식으로 시상을 하면서 경쟁이 가열되지는 않을까? 하는 자기 점검, 비판이 생긴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선생님께서는 ‘주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다. 이 활동을 확산시킬 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보이텔스바흐’를 학교 현장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좋은 의도에서 불구하고 서열화의 잣대로 쓰이게 되면 논쟁발표대회, 논술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경계하게 된다. 늘 긴장을 하게 된다.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이나 서열화의 잣대로 쓰이게 되면 본래의 취지보다는 외적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늘 경계하게 된다.

보이텔스바흐 :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 정치가, 연구자 등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립한 교육지침. 좌우 진영 관계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 본래 학교 정치교육의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나 모든 공교육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서 기능. 세 가지 원칙 : 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② 논쟁성의 유지(수업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③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이텔스바흐 협약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청소년 사회참여대회>의 향후 계획은

#### ①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

청소년 사회참여가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교사연수(15시간 이상이어야 교사연수 가능)가 없는데 별도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점점 대회 참가자들이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 중심이 아니라 소수 학생들의 소논문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교사 연수를 통해서 ‘학급’단위로 이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한다.

2009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가져온 미국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CCE)의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연수 프로그램과 매뉴얼화를 통해서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 활동가들이 다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확산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 ②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축제, 박람회 형태 고민

광주,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는 이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사회참여발표 대회를 개별 진행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사회참여발표대회를 각 광역 시도별로 진행하고 우수 사례들을 서울에서 축제나 박람회 형식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중이다. 실질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갤러리 워크처럼 정책제안 내용을 둘러보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공유의 장,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 ③ 정부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한 확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강의요청이 많고 시도별 사회참여대회가 많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통합되어 운영되면 좋겠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활동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학생들이 제안하는 정책 중에 좋은 정책들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지만 확산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본다.

### 촛불이후 학생 사회참여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현재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일 것이다. 광장에서 촛불(민주주의의 가치)을 어떻게 일상으로 가져와 확장, 심화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공동체, 주변을 둘러보며 사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마을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성인들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더 이상 탐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찾고자 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단체들과 이런 사업을 함께 진행해보고 싶다.

### 향후방향

우선 학교교육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 동아리 형태 보다는 학급활동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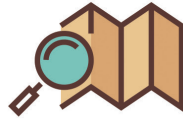
민주시민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광역시도별 예산을 치른 후 그 결과를 공유하는 축제나 박람회 형태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지원, 공교육(학교)에서의 활성화, 청소년 정책 제안 시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제안의 경우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성일**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팀프로젝트 나비효과>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업과 꿈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옆 친구들과 경쟁하기보단 더불어 상생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민으로 우리 마을에서 커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팀프로젝트“나비효과”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날개짓으로 주체적인 청소년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팀을 이루어 청소년의 관심사와 현세대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14회째 진행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3층
조직형태	기타형태_정부 청소년수련시설 부천YMCA 위탁운영
설립연도	1994년
대표자	조윤령
가치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실현한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민주시민으로 성장
단체주요활동	<p>초등대상으로는 주로 문화적인 프로그램과 기행 활동을 하고 주 활동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은 나비효과 팀프로젝트형 프로그램 활동을 한다. 후기 청소년들은 민주시민 교육을 주로 진행한다.</p> <p>민주시민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학교: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캠프 등을 통한 청년-청소년 정서지원멘토링활동</li> <li>• 청소년팀프로젝트 나비효과: 청소년의 관심사와 현 세대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프로젝트</li> <li>• 인문학강좌: 생태, 평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역, 국가, 세계를 탐구하는 인문학 강좌 진행</li> </ul>

단체주요활동	<p>길위의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에서 놀자: 통일될 그날까지 국토사랑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국토순례</li> <li>• 청소년평화기행: 평화기행을 체험하며 평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평화활동가를 양성</li> </ul> <p>청소년자치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의 주체성 및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li> </ul> <p>문화감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amp;DOWN: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UP)하고 스트레스를 다운(DOWN)시키는 문화감수성 함양활동</li> </ul>
온라인	<a href="http://www.sndyouth.or.kr/">http://www.sndyouth.or.kr/</a>
문의	032-656-8085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팀프로젝트 나비효과
주제	민주시민역량강화
목적/목표	청소년의 관심사와 현세대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어 공익성과 정의로움, 주체성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의 관심사와 현세대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팀프로젝트</p> <p>[세부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프로젝트 사전설명회</li> <li>• 청소년사회참여사전교육</li> <li>• 활동계획보고회</li> <li>• 팀별프로젝트 진행</li> <li>• 팀프로젝트 활동보고회</li> </ul>
참여방법	<p>활동대상: 부천관내 중고등학생</p> <p>활동시기: 5월~12월</p> <p>신청방법: 사이트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p>
참여대상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

참여형태	캠페인활동, 정책제안 형태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6~70 명
연간참여학생수	약 6~70명
성인멘토	2017년에 청년 멘토들과 함께 활동했다. 청년멘토는 2015년도에 수능시험을 마친 20세 청소년들로 멘토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의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민주시민교육이나 역사, 평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참여와 운영하면서 역량을 키워 2017년엔 나비효과에 참여하는 팀에 멘토로 활동했다. 멘토들이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센터의 재단에서 지원 받아서 활동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예산규모(연간)	-

### 나비효과 프로그램에서 팀프로젝트를 지향하는 이유는

나비효과 프로그램의 중요한 3개의 키워드를 들자면 주체성, 실효성, 공동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청소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발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일들, 실제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러한 활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사회참여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팀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모집하는 과정에 교육청과 함께 진행할 때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지시로 내려졌나보다. 그러다보니 원치 않는 선생님들의 불만도 많았고,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건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성인데 선생님 주도로 끌고 가려하니까 내용은 좋긴 했지만 평가할 때는 이견 아니다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와 연결되어서 그 당시 좀 과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원래 취지대로 가져가자 해서 진행했는데 수시 영향 없는 중학교에서 호응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에서 활동하면서는 나름 한계도 있고 입시와 연계하여 경쟁 위주로 진행하기 싫어 문화의집으로 오는 청소년들에게는 순수하게 처음 취지대로 가려고 노력 중이다.

###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팀이 있다면

한 명의 청소년과 한 팀이 있는데 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영특한 친구였는데 도서관 에서 공부하다가 나비효과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나 책으로 배움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생태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부천에서 습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공장단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었다. 그와 관련한 생태 활동을 나비효과를 통해 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고등학생인 그 친구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발표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러워하며 몇 년 동안 활동을 했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그 친구의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후배들까지도 꾸준하게 활동하게 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나비효과는 꾸준히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무대가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대안을 찾는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무대가 되기도 한다. 나비효과와 이름처럼 파급효과가 인간적인 만남을 다양한 루트로 찾을 수 있는 활동이다. 또 기억에 남는 팀이 미쁘다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팀이다. 처음에 문화의 집에 올 때는 본인들이 악세사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악세사리를 만들어서 문화의집에 오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그 팀에게 본인들이 잘하는 악세사리 만드는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 청소년들도 고민해 보더니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세월호 귀걸이와 목걸이를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 다음해 활동으로는 멘토단 청년들의 활동인 위안부 관련 문제로 할머니들의 아픔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생겨서 위안부 관련 활동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위안부 관련 활동 내용들을 찾아보다 전쟁으로 연결되고 그러다보니 베트남전때 한국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베트남 할머니 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확장해 가더라.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활동하는 만큼 청소년들도 잘 따라온다.

### 청소년들의 활동에서 추구하는 가치

나비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 활동에서 30년 비전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청소년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것, 건강한 민주시민이란 이 사회의 구성원 혹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참여할 수 있고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이 행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공익성과 정의로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체성과 평화라고 할 수 있다.

###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변화나 지역사회의 변화를 느끼는 시점이 있었다면

나비효과 팀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활동보고를 한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활동계획 발표할 때와 활동을 마무리 하고 활동보고를 하는 청소년들이 물론 발표기술도 매우 좋아지고 활동내용이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다보니 말에서도 느낄 수 있고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으로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 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가 있다면 4년 전쯤에 청소년들이 골든타임에 대한 주제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신문에 나온 기사를 통해 사례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다. 계획서를 작성할 즈음에 부천에 큰 병원이 있는 소사쪽이 교통체증이 심한데 한번은 엠블런스를 타고 가던 환자가 차가 너무 막히고 길을 안 비켜줘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그걸 본 청소년들이 캠페인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변화가 보인다. 그 지역에 엠블런스가 지나가면 모세의 기적처럼 차들이 양 옆으로 양보해 줘서 길이 열린다. 그 상황을 접하니 소름이 확 뚫더라. 물론 마스크의 효과도 크겠지만 그 청소년들의 활동도 분명 한 몫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옆에서 본 나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다워 보이는데 경험한 그 청소년들은 내가 느낀 것보다 그 감동이 더 클 것 같다. 그런 걸 경험해 본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작은 활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의 의미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사용하지 못해서인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불의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를 사용하는 거다. 또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중요하다. 굉장하다는 것을 알면 규모가 커져서 올라갈 수 있다. 청소년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말로만 있고 당연하지가 없으니까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법을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즐겁게 하게 하는 것,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내고 네트워크의 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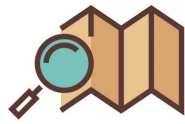
## 향후방향

나비효과의 진화를 자주 모색하고 있는데 나비효과와 경우는 파급효과가 있는 행동하는 청소년의 그룹, 규모는 아직 클 필요 없지만 자기 시간과 자기노력을 써서 왜 하는지 보다 활동자체를 즐거워하고 주변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청소년의 그룹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활동하는 멘토단으로는 아직 작은 것 같다. 그 그룹을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거다. 같이 상생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은 그러기 위한 규모로는 약하다. 나비효과에서 그런 걸 만들고 싶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사회참여인데 이게 경쟁이다. 이걸 아닌 것 같다. 즐거운 마을을 같이 만들기 위한 활동이기에 나비효과 팀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지금 방식의 경진대회형태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다. 나비효과와 경우 기획기가 있었고, 성장기, 융성기, 파생기를 거치면서 단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부천 지역의 하나의 문화를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사회적인 욕구가 있었다. 사회참여 팀프로젝트가 청소년이나 청년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넓히려려고 했는데 활동 후 평가에서 사회참여 프로젝트는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에 우리는 이름처럼 지역 곳곳으로 씨앗을 퍼뜨리려고 한다. 즉, 크게 키우기보다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곳곳에 심어주는데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후기청소년, 청년활동을 하려고 한다. 멘토로 활동했던 청년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보통 두 가지 과제를 준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스스로가 만드는 민주시민활동이다. 같은 공간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그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 청년들이 활동하거나 공부한 내용들은 반드시 전시회를 하거나 강좌를 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것을 보고 본인들도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

인터뷰이 • 부천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조윤령, 박동오**

인터뷰이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나눔교육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나눔교육팀’ <찾아가는 나눔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나눔교육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지역 내 나눔교육 인프라 구축,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나눔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현재 총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 수도권(서울)/영남권(대구)/호남권(광주)

<사랑의열매 나눔교육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나눔교육 (자원봉사)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와 가치, 나눔의 힘 등을 강조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나눔교육센터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조직형태	사회복지법인
설립연도	1998년
대표자	예종석
가치	미션 :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 빈곤, 질병,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최고의 모금기관 핵심가치 : 인간존중, 윤리성, 열정, 헌신, 도전정신
단체주요활동	<p>찾아가는 나눔교육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나눔교육강사를 파견하여 나눔교육 실시          나눔체험관 견학 : 체험학습형 나눔교육으로 유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나눔의 의미와 가치, 필요성, 일상생활 속 나눔실천 방법 등을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접함          교사연수 : 공교육 현장 내 인성 및 나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초등교원 대상으로 나눔교육 소개 및 교수법 등 교육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나눔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공동 진행하는 자유형식의 공모전          나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교과연계형 나눔지도안 : 저학년/고학년용 [선생님 나눔이 뭐예요?]</li> <li>• 나눔애니메이션 : 나눔은 어렵지 않고, 작은 나눔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기쁨과 희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나눔이 쉽고 보람된 것인지 알려주는 영상물</li> </ul> <p>※ 나눔교육 홈페이지(www.nanums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p>

온라인	<a href="http://www.nanumsam.or.kr/">http://www.nanumsam.or.kr/</a>
문의	02-6262-3000 / 5040179@chest.or.kr

## ■ 대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랑의열매 찾아가는 나눔교육
주제	나눔
목적/목표	<p>나눔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이타심 향상을 목적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li> <li>• 아동 자아존중감 강화</li> <li>• 소통 리더십 향상</li> </ul>
활동형태	인지
프로그램 소개	<p>유아: 총 3차시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이 뭐예요?/나누면 모두 행복해요/우리도 할 수 있어요</li> <li>• 교육시간은 차시 당 30분 소요</li> </ul> <p>초등: 최대 8회기로 구성(신청 기관, 현장 상황 등에 맞춰 조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이해, 자기이해, 타인(친구, 가족, 이웃 등)이해, 나눔실천방법</li> <li>• 교육시간은 차시 당 40분 소요</li> </ul>
참여방법	<p>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교총, 유치원 연합회 등)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 희망기관이 나눔교육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권역별 나눔교육센터 팩스(오프라인)를 통해 신청</p>
참여대상	유아(5~7세), 초등학생(2학년, 5학년 집중 실시)
참여형태	<p>사랑의열매 나눔교육 전문가를 신청기관에 파견한다. 유아나눔교육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파견하여 총 3회기를, 초등나눔교육의 경우 초등학교로 파견하여 최대 8회기(4~8회기 조정 가능)를 진행한다. 나눔교육 후 기관 자체적으로 나눔(기부)을 실천하고 나눔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p>
회당참여학생수	2~30명
연간참여학생수	약 총 24만명(최근 3개년 평균)
성인멘토	<p>나눔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강사양성프로그램(30시간)을 운영, 무료 강사 양성</li> <li>■ 교육시기 : 연2회(3월, 9월)이고 회기 당 20명 이내로 모집</li> <li>■ 교육내용 : 나눔의 이해, 교육대상의 이해, 나눔교육의 이해 및 실습, 강사의 자세와 교수법 훈련 등</li> </ul>
예산규모(연간)	약 10억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눔교육팀이 만들어진 이유와 방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모금과 배분을 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모금회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모금회의 미션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나눔교육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눔을 접해 나눔에 대해 인식하고 나눔의 소중함을 내재화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보다 쉽게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다회기 교육을 통해 나눔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며, 부모교육이나 교사연수 등을 활용하여 가정 연계와 학교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눔문화가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될 수 있도록 성인나눔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눔교육을 유아와 초등 대상으로 하는 이유

유아와 초등부터 시작한 것은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며 생활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있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한국 사회의 교육은 교과 중심의 주입식 과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에 대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성인이 되어가면서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이 주력 대상은 아니지만 확장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나눔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에 대한 영상물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소감문 형태로 작성하여 시상하는 대회를 진행 중에 있다.

### 시상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나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나,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잘 풀어냈느냐를 보려고 노력한다. 단순히 글을 잘 쓴 것만으로 상을 받는 것은 아니며, 나눔에 대한 생각과 이해, 문장 및 표현력, 구성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비교사, 각 지역별 모금회 직원들, 장학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심사에 참여해 주시고, 예비심사, 1차, 2차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작을 결정한다.

### 나눔교육의 확산 방향은

나눔교육 진행 초기에는 나눔교육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과 대상의 확장을 중심으로 진행했었는데 기존 학교와의 연계성이나 신규 대상 확장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2학년과 5학년을 타겟 학년으로 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유아, 초등의 경우 기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가면서 학교와 가정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나눔교육도 확장해 나갈 생각으로 고민 중에 있다.

### **나눔체험관도 운영하던데 어떻게 운영하나요**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은 다른 나눔교육과 달리 신청 기관이 직접 체험관에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형 나눔교육이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나눔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월요일은 단체견학만 가능)하여 주말 견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하고 있다. 단체 견학의 경우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회당 20명 안팎으로 진행된다. 단체견학의 경우 견학전문안내요원이 진행하여 나눔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사랑의열매에서 나눔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나눔교육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가치를 알고 타인과 나누면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요즘 환경을 보면 아이들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랑의열매 나눔교육을 통해서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를 구성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 중요성을 아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나눔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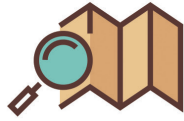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현재 아이들 수준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독려하고 있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사회인 학교를 통해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내용 측면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내가 하는 어떤 활동이 나눔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나눔에서부터 확장되어 기부활동도 배우고 나눔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 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그런 하나하나의 활동에 의미를 둔다. 교육을 통해 나눔의 가치나 철학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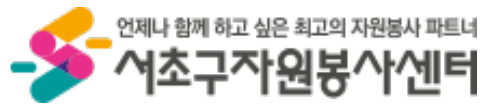
기존 나눔교육의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나눔교육 대상’ 확대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도 나눔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성인나눔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또한 더욱 많은 아이들이 나눔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영남·호남나눔교육센터의 활동영역을 순차적으로 넓히고 있다.

인터뷰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정소영**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 <Thanks My Hero 우리 동네 영웅찾기>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일상성, 자치성, 전문성을 지향하며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계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 공익조직들과 협력하며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활동 중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접점을 마련하고 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연령별 자원봉사의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교육방식과 달리 책, 그림, 놀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 나눔새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자기주도성이 보장된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지역 영웅을 주제로 교사와 학생이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학급단위 프로그램으로 사제동행형 프로젝트인 <Thanks My Hero 우리동네영웅찾기> 프로그램이 있다. Thanks My Hero 우리동네 영웅 찾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 및 이슈 발굴, 자기주도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봉사활동프로그램이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2층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조직형태	기타형태_위탁운영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설립연도	1998년
대표자	오영수
가치	행복한 서초를 위해 일상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모두와 함께 나눈다
단체주요활동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적 센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 • 자원봉사자를 위한 일반 캠프, 청소년/가족, 서초V타임, 자원봉사교육, 어린이 나눔새싹교육, 자원봉사자 감사캠페인 • 마을로 간 기업 • 자치구 센터 연합 재능나눔세미나 '재능허브': 마마보노, 서초꿈멘토, 낭만서초
온라인	<a href="http://www.seochov.or.kr">http://www.seochov.or.kr</a>
문의	02-573-9252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제동행형 프로젝트 '고마워요, 나의 영웅'
주제	자원봉사, 자기주도성
목적/목표	우리 지역의 영웅을 주제로 선생님,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 및 이슈 발굴, 자기주도성이 보장된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서초구자원봉사센터가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제동행 프로젝트 'Thanks My Hero(고마워요, 나의 영웅)'는 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힘쓰고 있는 영웅을 선정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직접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주도형 봉사활동이다. 즉, 학생들이 내신점수를 위해 시간 채우기 식의 의무적이고 수동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능한 활동을 고려해 친숙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주도하고 교사가 보조하여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안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선정하고 기획에 참여하여 6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
참여방법	<p>학교 동아리, 학급 단위 (3월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한 학교 담당 선생님과 교사오리엔테이션 진행.</li> <li>우리가 생각하는 사제동행은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학생들을 돌보며 따라 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생각해 보는 시간</li> <li>선생님 역할에 대한 방향성(교사가 직접 해서 프로그램 이어가기 보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봐 주는 역할)</li> </ul> <p>● 교사오리엔테이션 &gt; 학교 방문 :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gt; 6월~7월 :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 영웅 선정, 프로그램 구성 (피드백과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진행) &gt; 8월부터는 캠페인 활동이나 모금 활동 등 직접 활동 시작 &gt; 11월에 영웅들을 직접 만남 &gt; 평가와 함께 활동 마무리</p>
참여대상	서초구 소재 중고등학생
참여형태	캠페인, 프리마켓 등
회당참여학생수	팀당 20~25명
연간참여학생수	약 100명
성인멘토	<p>멘토=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멘토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li> <li>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교사라고 생각. 교사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사가 멘토로 활동</li> <li>교사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사항</li> </ul>

성인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이 맡아 달라는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교사들도 있다. 멘토의 역할은 학생들이 활동일지를 제출하면 선생님은 센터와 소통을 하고 학생들을 지지해 주고 센터와 연계역할을 한다.</li> </ul> <p>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은?  선정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피드백과 컨설팅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다 보니 사람들이나 지역을 연계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수시로 프리마켓이나 캠페인을 진행하려 할 때 장소 섭외를 같이 한다거나 지역에 협조요청을 하고 안전문제 확보 등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p>
예산규모(연간)	-

### 이 프로그램의 이슈는 지역사회의 영웅이다. 영웅을 정하는 기준은

영웅이라 하면 경찰관, 소방관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웅이다. 본인들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정하는데 버스기사, 녹색 어머니 소방관 등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영웅을 선정한다. 나온 영웅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그렇고 지역에 제한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본인들 스스로 결정하게끔 두었다. 마지막 활동이 영웅들을 만나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 선정할 때 서로 내부에서 조정되기도 한다. 가령 독도 수비대가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영웅을 만나러 갈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조율을 하기도 했다. 강제적으로 서초지역으로 국한하지는 않겠지만 처음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할 때 사례들을 서초에 대한 소개와 예시를 들어주기도 한다.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지역의 영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봄으로써 지역 중심으로 영웅을 선정하려고 노력은 한다.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신청서를 받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원동기이다. 지원동기가 단지 선생님들의 지원인지, 아이들과 함께 작성한 지원동기인가를 보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전화로 검토한다. 그 정도로 판단한다. 활동이 마친 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평가회 때 이루어진다. 이 활동의 평가방법이 독특한데 참여하는 모든 학급이나 동아리는 영상을 만든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UCC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그 팀에서 활동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작업한 것을 평가회때 선정한 영웅들과 같이 보면서 만난 후에 영상을 보면서 활동평가를 한다.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본인들의 활동했던 기억들을 회상하며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회는 팀별로 각 팀의 영웅들을 만나면서 학급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로 진행하고 참가한 팀이 공유하는 건 모든 활동이 마무리된 후 제공되는 자료집을 통해서 공유한다.

###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

학생들이 기획한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는 과정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멘토는 체크만 하는 정도이고 본인들이 직접 만나서 활동한다. 활동일지를 통한 자원봉사시간 부여와 피켓 등 활동에 필요한 문구류 지원비 등으로 팀별 10만 원정도이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 시작할 때 2016년이었는데 학교 모집이 힘들었다. 하필 그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던



시기라 다른 여러 단체에서 학교로 공문이 많이 보내다보니 센터에서 보내지는 공문이 학교 봉사 담당 교사에게 전달이 잘 안되었다. 그래서 학교 도움으로 봉사 동아리 담당선생님의 연락처를 구축하여 연계적이긴 했지만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속 연락을 취해서 겨우 세 학급을 모집했다. 그 다음해는 세 학교 모두 재참여를 해 줘서 두 팀이 합류해서 5개팀을 운영했다. 앞으로는 참여모집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새롭게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처음부터 겪지 않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교육청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참여하는 학교가 함께 구성하면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으니까 좀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 ‘Thanks My Hero’ 향후방향

이 프로젝트는 2016년에 3개 기획한 이 프로그램이 센터의 에너지가 얼마나 투여되는지 확인도 할 겸 학교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다. 2017년엔 5개 학교로 확장하고, 점차적으로 최종목표는 수정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교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더 많은 학교로 확산시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활동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최소한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다. 즉, 앞으로의 계획은 확대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교사를 오게 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할 예정이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어떤 고민에서 활동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다. 평가회 할 때도 모든 팀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청소년 봉사학습을 함께 진행하면서 확대하려고 한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 봉사학습이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슷하데 다른 것은 중간에 성인 멘토가 들어와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거다. 성인멘토가 교육 강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도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멘토역할을 한다. 교육청에서 공모하고 예산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 그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확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어린이 나눔새싹교육
주제	나눔
목적/목표	나눔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한 어린이 나눔새싹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나눔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이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p>프로그램 소개</p>	<p>어린이부터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삶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만4,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눔을 교육하고 있다. 유아교육학계, 유아교육현장, 나눔교육, 자원봉사교육, 유아대상 자원봉사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적정연령, 교육내용, 감수 등을 진행하여 유아대상으로 나눔교육 통합과정을 개발하였다. 어린이나눔새싹교육 운영과정은 나눔교육을 진행하는 나눔지기를 양성을 하고 연초에 서초구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4, 5세 학급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신청 받아 교육일정 조정 및 신청결과를 공지한다.</p> <p>어린이 나눔새싹교육은 3~6월, 9~11월 진행(학급당 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진행교사 1명과 보조교사가 배치</li> <li>- 교육 완료 후, 활동기관의 평가와 교육보고서를 통한 나눔지기의 평가 결과를 반영</li> <li>- 교육내용 및 교구를 보완</li> <li>● 만4세 기본과정(4회기) : 배려양보(나눔이 뭘까요?), 공동체 협동(동화 속 나눔이야기), 감사(우리동네 나눔을 찾아보아요), 이해(나눔!나도 할 수 있어요)</li> <li>● 만5세 심화과정 : 다름, 배려(다름은 무엇일까요?), 장애이해(장애를 돌보는 나눔), 공경(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공동체 협동(나눔, 우리도 할 수 있어요)로 구성</li> </ul>
<p>참여방법</p>	<p>연초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신청을 한다.</p>
<p>참여대상</p>	<p>만 4~5세</p>
<p>참여형태</p>	<p>교육</p>
<p>회당참여학생수</p>	<p>25명</p>
<p>연간참여학생수</p>	<p>2,660명</p>
<p>성인멘토</p>	<p>나눔새싹교육을 진행하는 전문봉사자를 모집, 양성과정실시 (연 1회/7월) - 자원봉사의 새로운 이해, 어린이 발달에 대한 이해, 나눔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나눔지기의 역할, 나눔교육 시연 등으로 교육과정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새싹교육 참관 및 보조진행 후에 현장경험을 쌓은 후 주강사로 활동</li> <li>- 센터소속 나눔지기 봉사단 활동</li> <li>- 직접 시행 기관에 나가 순수한 자원봉사 교육 진행</li> <li>- 전문화교육은 양성교육 과정을 진행할 때 보수교육 차원으로 함께 진행</li> <li>- 교육과정은 센터와 나눔지기 선생님들이 함께 진행, 매뉴얼 설명과 회차별 중요 부분 시연</li> <li>- 교육 후 회의 때 마다 몇 번의 시연과 참관이 필수</li> </ul>
<p>예산규모(연간)</p>	<p>-</p>

### 대상을 유아로 정한 이유

만4, 5세 대상으로 나눔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유아기, 즉, 어릴 때부터 나눔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행동을 좀 더 어릴 때부터 알아나가자 해서 대상으로 정했다.

### 어린이 나눔새싹교육을 통한 어린이들에게 변화가 느껴지나

아이들이 원에서 나눔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연결이 된다. 집에서 내가 어떤 나눔을 했는지 원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신발정리를 한다거나 등의 나눔을 실천한다. 가정으로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서 기관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 원에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기존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었는데 교육 후 서로 우리 나눔과 배려, 이 말이 너무나 쉽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양보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선생님들도 말씀하신다. 또, 장애인 수업을 하는데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 나와 다르다고만 생각하던 것이 동영상도 보고 장애체험도 해 볼 수 있는 게임(활동)도 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변화된 것도 있다. 나눔이라는 개념을 나눔지기 선생님들이 활동을 통해 구체화를 해 주시는 것 같다.

### **어린이나눔새싹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조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관의 나눔새싹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당 원의 담당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관심도도 다르고 수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기관을 방문하여 원장님 및 담당선생님들과 나눔새싹교육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했다. 나눔새싹교육에 대한 개념과 어떠한 취지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한다. 사전 소통을 통해 나눔새싹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2018년에도 진행하기 전에 각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할 예정이다. 기관들의 나눔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 **어린이나눔새싹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센터의 나눔지기봉사단에 가입되어 있는 나눔지기 선생님들은 순수한 자원 봉사자이다. 기존 나눔지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신규 나눔지기를 계속 발굴해서 자원봉사자를 충분하게 확보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 **나눔교육의 의미**

포괄적인 나눔의 개념과 범위를 아이들이 실천하기 쉽도록 구체화한다. 유아기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눔교육 향후방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초구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눔새싹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도에 나눔새싹교육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나눔지기의 역량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학교 교육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려는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담고 싶은 의미는**

저는 청소년 담당자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시간 때우기 식의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안타까웠다. 우리 기관은 자원봉사센터이다 보니 그 출발이 자원봉사에서 출발을 한 거다. 진행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은 같은 맥락일 수 있으나 출발이 다른 것 같다.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는 활동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러한 배경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해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워낙 바쁜 학생들이 굳이 자원봉사센터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해 보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하자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이고 추진하려는 의미이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벨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것 같다. 영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큰 의미를 둔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이 활동에 담고 싶은 의미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성, 소통, 리더십부터 생각을 했다.



영웅이라는 표현도 우리 성인들의 눈높이가 아닌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지역은 어떤 지에 대해서 그 관심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솔직하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의식도 확실하고 표현도 그렇다. 청소년의 그러한 솔직함에서 출발하고 담고 싶었다. 저는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가장 큰 효과는 학습성이라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참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시민이 되길 바란다.

### 아이들의 변화의 모습은 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변화라면 캠페인을 통해서 - 캠페인을 가능하면 서초구에서 하는데 상황, 주제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이 활동이 사람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캠페인으로 인식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도 했었고 버스기사 아저씨를 영웅으로 선정하여 다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버스기사아저씨에게 더 인사하는 인식도 형성되었다. 영웅으로 선정된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말이 있는데 안전한 우리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분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지역사회 변화라고 생각한다. 모든 영웅들이 같은 말을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변화도 봉사활동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인식해가고, 본인들의 사소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더 알아간다. 본인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알아간다. 교사들의 변화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런 활동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원봉사 활동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는 활동이 봉사활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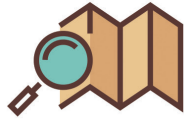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과 중 하나는 교사들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실적 인정만 하고 기입해 줬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는 교사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과 이해도 깊어지고 전문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없어도 학생들의 활동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만큼 역력강화가 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앞으로 센터에서는 교사오리엔테이션과 컨설팅만 최소한으로 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도 충분할 것 같다.

### 추구하는 가치는

센터에서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이란 이슈와 공감이라고 부른다. 봉사자들에게 이슈를 던져주고 공감을 일으키는 게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성이다.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이라 하면 봉사활동자체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 자원봉사 활동을 자기주도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해진 일감이 아닌 청소년들에 의해 나온 내용들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보니 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준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자체를 재미있어 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 하는 시간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인터뷰이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윤범식, 송은주**

인터뷰이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가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미래지향적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추진 의지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전액 출연하여 2008년 설립한 재단으로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참여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인식, 청소년 참여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서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의 활동은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정책 반영요구와 함께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제안과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를 하며 청소년 제안 주간 개최도 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성남시청소년재단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지동 4층 사무국
조직형태	재단법인
설립연도	2008년
대표자	한신수
가치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과 행복지수 향상을 추구한다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단체주요활동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08년 9월 성남시가 출연한 청소년 단체로 5개 청소년 수련관, 2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자원 연계를 통해 수준 높은 보편적 진로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폭력 없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고자 성남시 학교폭력 종합대책수립 및 폭력예방 활동을 추진하였고, 생애주기별 특성화 교육 실시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 지원에 공헌 - 진로사업 : 자기실현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국제교류사업: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교류활동 진행

단체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도·참여지원사업: 자기주도형 프로그램(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및 청소년 자치조직(참여조직 및 동아리) 활성화</li> <li>-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운영</li> <li>- 지역연계사업: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른 재능기부 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사례확대를 하는 지역 멘토링사업과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li> <li>- 보호복지사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 위기 청소년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긴급구조 및 다양한 지원활동 등 실시</li> <li>- 청소년노동인권보호증진사업: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통해 균형 있는 발달에 기여하며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온라인	<a href="http://www.snyouth.or.kr">http://www.snyouth.or.kr</a>
문의	ohmyid@hanmail.net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주제	정책제안
목적/목표	<p>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관련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제고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정책제안 활성화 및 반영을 위한 <u>공식 채널 마련</u></li> <li>-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강화</li> <li>- “자문단”운영으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실현가능성 증대</li> <li>- 코디네이터, 상임(특별)위원회 등 효율적 회의 운영 및 의원 관리</li> </ul>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참여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인식, 청소년 참여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성남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대표 정책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정책수립과 운영에 참여하여 성남시 청소년 권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정책 반영요구</li> <li>-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제안</li> <li>-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li> <li>- 성남시 청소년 제안주간(정책제안대회) 개최 등</li> <li>- 운영절차: 전문교육(의회활동) → 예비의제발굴 → 정책과제 발굴 체계화 및 의정활동 자문 → 상임위원회 활동 → 주무부서협의(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등) → 본의회 운영(행복의회) → 성남시의회 입법추진</li> </ul>
참여방법	매년 3월에 위촉하여 1년 임기로 이루어진다.

참여대상	성남시에 거주 또는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13세 ~ 만 18세)
참여형태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30 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30 명
성인멘토	청소년들과 함께 의회 활동하는 청년을 코디라고 부르는데 2대 때는 1대 때 활동했던 청소년 중에 활동에 대한 이해가 폭넓었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함께 했고 올해는 작년에 의장으로 활동했던 친구가 코디를 하기로 했다. 코디의 역할은 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행복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타당한지 타 조례나 타 법과의 중복성과 상충성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유사사례를 같이 찾아보는 역할을 한다. 주목적은 입법활동 지원이지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관여한다. 가령 의원들이 워크숍을 진행할 때 담당 직원이 기본 초안을 잡아주면 직원과 함께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내용도 함께 준비한다. 코디는 의원들이 월 2회의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그 흐름을 파악한다. 코디에게는 활동비로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급한다.
예산규모(연간)	약 1500 만원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생겨난 배경과 활동 소개, 추구하는 가치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참여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인식, 청소년 참여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서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의 활동은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정책 반영요구와 함께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제안과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를 하며 청소년 제안 주간 개최도 한다.

생겨난 배경은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시도에는 차세대위원회, 국무총리산하 특별회가 있다.

성남시의 경우 각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성남시에는 차세대위원회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재단에 행복의회도 위탁을 하다 보니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이중적이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청소년행복의회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참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위원회와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행복의회가 통합되었지만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입법기능에 대한 활동을 더 놓게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제안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와 성장, 자립을 유도하는데 행복의회의 핵심가치이자 재단의 핵심가치이기도 하다. 청소년 행복의회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위촉식은 지방의회를 모델로 시의장이 의회 활동에 대한 특강과 강사의 민주시민교육을 듣는다.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듣기도 하고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외적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각자 만들어 보고 행복의회에서 토크콘서트, 청소년 포럼, 정책제안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제안대회는 11월에 진행되는데 성남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을 하고 발표하면서 100인의 청중평가단의 심사결과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합산해서 최종순위를 정하여 시상한다. 청중평가단은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으로

제안우체통을 행복의회 의원들이 소속된 학교에 설치하고 우체통 옆에 엽서를 놓고 성남시에 바라는 제안사항을 받는다. 중간관리는 각 의원들이 하고 있다. 학교에 공문처리는 하되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학교 중심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프로그램을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다. 행복의회 활동은 의회활동으로 연말에 진행되는 본회의로 마무리 된다. 본회의가 끝나면 다음연도 의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일부 의원들이 도와주는 게 있고 2월에 해단식을 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자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 참여 방법

원래 의회 모집은 선출직이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에 의원이 34명이 있다. 1대 의회 모집은 지역구 모델을 그대로 따랐다.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그 대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주민자치센터나 학교에서 선발하면 좋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직접 활동을 권하기도 힘들고 학교에서 추천을 하려해도 학교 주소지와 거주지는 다르다 보니 쉽지 않았다. 그래서 1대 때는 지역별 구별로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각 구의 성별 및 고등과 중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서 2대에서는 좀더 완화시켜 성비와 지역의 비율만 맞춰 진행하였다. 모집인원을 처음에는 조례에 맞춰 45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이후 조례를 40명으로 개정하였다. 작년에는 31명이 활동했고 올해는 28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문의는 많이 해 주시지만 활동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 다른 활동에 비해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다. 행복의회 활동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활동이라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좀 많다. 작년의 경우 31명 중에 끝까지 활동한 청소년들은 19명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선생님이나 선배, 부모님의 권유나 신청인 경우인데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끝까지 함께 하는 비율이 높다. 참여율이 좋지 않은 경우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원 자격 상실된다.

### 이 프로그램(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활동자체, 그 과정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성장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웬만한 직원들도 꼼꼼히 보지 못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물론 소극적인 친구들도 최소한 조례는 어떤 구조로 짜여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는 다 가지고 있다.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전문가와 만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의회활동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입법활동의 경우 청소년들이 정치활동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하고 국회의사당에 직접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직접 만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 듣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성장이 이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보통 학교에서 임원을 하는 청소년들로 추천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청소년들이 다른 수련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보다 어떻게 보면 주도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임원인 친구들의 경우 부모님의 관심도 많고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오히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의회 활동을 착실히 한 친구들을 처음에 비해 자기결정권에 대한 변화,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보여진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물론 선배나 부모님의 권유로 봉사활동 기록하려고 멋모르고 왔던 청소년들도 활동을 마친 후에는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느낀다. 행복의회 활동에서는 이렇게 청소년 스스로의 변화는 보이는데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청소년 활동이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역량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이나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핵심과제로 다뤄야 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직원역량교육을 강화하는 내외부적인 교육이나 교류할 수 있는 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입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정책으로의 반영과 관련한 조례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

###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하는 지점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바쁘다. 행복의회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맡은 역할과 학원을 병행하다 보니 이 활동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중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거의 두 달 간격으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역할이나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인원을 늘려 역할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함께 하는 코디나 직원이 더 결합해야 하는데 지금도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의 결정인지는 고민하고 있다.

자주 만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소통을 자주 하는데 청소년들이 소통 가능한 시간대가 보통 11시가 넘는다. 청소년들도 일이 많지만 담당자의 경우도 고충이 따른다. 이러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고민하고 있다.

또 어느 재단이나 마찬가지로 일텐데 여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다보니 직원들이 정기인사 등 업무순환이 있기도하고 청소년 활동의 영역은 굉장히 많고 사회참여영역뿐만 아니라 복지영역, 문화교육영역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으려면 사실 장기간으로 조직이나 사업을 맡아야 하는데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힘들 수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의 지지와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단 구조상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의원 보다 행복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업무들에 치여 기피하려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다.

특히 청소년 행복의회는 업무량도 많아서 사업의 이해와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1년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연임하는 경우도 많은데 관계성을 고려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데 인사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 기억에 남는 사례

청소년 행복의회 활동이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1대 활동은 1년 반을 활동했다. 6개월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의장단 회의도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등 현 의장단이 이 활동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인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존 의장단을 해임시키고 의원들이 새롭게 의장단을 선출한 사례가 있었다. 권력욕이라기보다 활동욕구가 굉장히 컸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여진다. 사실 직원이나 담당 팀장보다도 행복의원들의 본연의 활동 및 행복의회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다. 그때 새롭게 의장을 맡았던 친구가 이번에 코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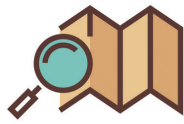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구조는 같이 가는데 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 행복의회를 분리하려고 한다. 올해는 벌써 모집했으니까 기존대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분리하여 모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위원회는 사회참여·실천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 청소년 행복의회는 입법 활동에 집중하면서 두 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함께 낼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년엔 실행할 계획이다. 또, 작년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이나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담당자도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자문단을 구성하려다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구성해 보려고 한다.

각 시의회의 위원회별 전문위원 중에 한 명 선발하고, 전문위원, 코디를 포함한 4~5명 정도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집행부(성남시)와 소통창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구조를 만드는게 올해의 목표이다.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시에서 정책으로 잘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성남시 의회가 청소년들에 제안한 정책들을 통과해 주면 집행부인 시와 협조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실현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소통창구를 명확히 구축하려고 한다.

인터뷰이 ·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재영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성미산학교





## 성미산학교

# <인권동아리 나비효과>

성미산학교는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마을이다’라는 학습의 원형을 현대에 맞게 되살리려는 기획에서 비롯되었다. ‘자연친화적인 감수성’, ‘지속가능한 삶’, ‘돌봄과 배려 중심의 학습’, ‘마을 만들기’등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한다.

성미산학교의 교육 목표의 첫 번째는 ‘스스로 서다’이다. 스스로 선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면 할수록 자신은 자연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자연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미산학교의 교육 목표의 두 번째는 ‘서로를 살리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존재와 함께 공존할 때, 서로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인권동아리 <나비효과>는 학교 수업 중 장애인, 개인정보, 동물권, 여성 등 주제를 배우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 갖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이다.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모였다가 여성혐오, 미투 운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더 활발해졌고, 인권의식의 향상되고 사회문제가 줄어들어 이런 인권동아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을 꿈꾼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성미산학교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6-31
조직형태	기타형태(동아리)
설립연도	2004년
대표자	박복선
가치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배우는 학교’ ‘어른들이 다시 다니고 싶은 학교’
단체주요활동	인권동아리 - 여성,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인권
온라인	<a href="https://www.sungmisan.net">https://www.sungmisan.net</a> facebook@butterflyeffectsms
문의	02-3141-0537(교무실)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비효과
주제	인권
목적/목표	여성, 청소년, 장애 등 다양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실천하기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동아리 창립 - 인권관련 영화보기, 토론</li> <li>- 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여성혐오 담론 확산으로 페미니즘 공부</li> <li>- 16년 학부모대상 혐오교육 - 오픈강의 진행</li> <li>- 17년 강남역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 - 포스트잇 작업 재현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li> <li>- 17년 세월호참사 3주년 - 세월의 벽(참사기억을 위해 학교 복도 창문과 벽에 세월호 3년동안의 타임라인, 도종환 시인의 '화인' 부착), 세월식탁(리본, 소책자, 관련서적 비치)</li> <li>- 17년 1학기 학교폭력에의 설문조사</li> <li>-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문화제, 귀어문화축제, 광주여성영화제 등 참여</li> </ul> <p>여성, 청소년 인권 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까칠남녀- 토크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li> <li>- 영화(캐롤 등)보고 토론하기</li> <li>- 요즘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위주로 진행</li> </ul>
참여방법	매주 목요일 / 오후 4~6시 모임 성미산학교 학생 중 학기초 모집, 언제든지 합류가능
참여대상	중고등학생
참여형태	토론, 애드보커시, 집회참여, 강의
회당참여학생수	8명 내외
연간참여학생수	17명(2017년기준)
성인멘토	학교 교사가 동아리 구성원으로 신청해 참여하고 있음. (교사는 자문, 심리적 지지할 수 있는 역할만 할뿐, 모임을 만들고 꾸려내는 것은 모두 학생들의 자율적 모임)
예산규모(연간)	-

###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4년 시민사회(영화통해 본 인권, 미디어액트(주목해야할 사건을 사진, 글로 표현하기) 수업 중 장애, 개인정보, 동물권, 여성 등 주제를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 갖고 15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만들게 되었다. 학교 수업으로 저학년 인권사, 분절적 인권이 아닌 역사적 지난한 투쟁의 과정에서 쟁취한 인권의 역사, 개념이해, 고학년 그 시기에 중요한 흐름, 관심사 위주로 수업 진행한다.

16년 혐오를 주제로 수업하며, 수업의 확장으로 동아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페미니즘, 성에 관한 자유토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확대되었다.

현재 10~12학년이 8~9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시민사회 수업 진행하면서 인권에 더 많은 관심 가지게 되었다.

### 동아리를 지속하게 하는 힘

동아리들이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 없는데,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는 외부에서 시사성 있는 이슈들이 자주 대두되어 동아리가 지속되는 것 같다. 복지가 잘 되는 나라는 법이 잘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슈들이 자주 생겨서 더 우리 동아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인권동아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인권이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이 될 것이다.

간식! 간식이 있어 친구들이 모인다. 모여서 배고프지 않고 헤어지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 얻어가는 것이 있어 좋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인권수업 후 인권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이슈(촛불시위, 강남역여성살해 사건 등) 접하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욕구 해소하게 된다.

위아래 학년과 친밀해지는 관계형성, 공감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차근차근 하나씩 다 설명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해도 알아듣는 것, 무엇을 말해도 된다는 안전한 사람들 있어 이야기를 하기 좋다.

###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화’를 내야 움직이게 되는 모임 - 시안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거라, 늘 화가 났는데 그게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지치게도 했다. 구성원 대부분이 12학년이라 12학년 졸업 후 이 동아리의 방향성이 고민이 된다.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동아리가 잘 유지되면 좋겠다.

### 성미산학교의 인권수준은

졸업논문 준비하면서 학교의 문화가 성평등한가라는 질문 던졌을 때 70%넘게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학교 홈페이지 권한부여에서 교사, 부모에 비해 학생은 권한 수준이 낮은 것, 중요한 이슈를 토론할 때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며 (못 오게 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을 제외하고 회의를 할 때 아쉬웠다.

일반학교에서 전학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놀라웠다. 교사와의 거리가 좁고, 짜증내고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 학생회도 일반학교는 교사가 직접 진행하나 성미산학교는 식구총회(학생회)에서 모두발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원이 많아 개별적인 발언을 모두 담을 수 없는 게 아쉽다. 그러나 진행도 모두 학생들이 하고 있어 학생들의 권한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는 없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적다.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은

‘또보자마을학교’와 연계하여 여성혐오에 관한 강의를 기획했다.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경 살인범 김씨(남, 당시 34세)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여, 23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되었다.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남성 6명이 화장실을 이용했고 이후 화장실에 들어간 최초의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다. 피의자는 화장실 남성 칸에 앉아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렸고, 피해자가 여성 칸에서 나기를 세면대 앞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사건 이후 사건현장 주변인 강남역 10번 출구 중심으로 주점집회가 열렸다. 추모의 메세지가 적힌 포스트잇 1000여개가 10번 출구 회벽에 붙었고, 근조 화환과 꽃다발, 촛불 등도 놓였다. 포스트잇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내용과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 많은 여성들은 해당 사건을 자신의 아픈 기억 받았다고, 자신은 우연히 살아 남았다고 이야기했다.

추모의 메세지를 담은 포스트잇을 붙여주세요



**모두가 평등한 잔치를 위해 약속해요!**

1. 재미는 참여에서 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보다는 질문해주세요.
2. 다양한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일해요.
3. 장애인들 비롯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주세요.
4.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비하, 차별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5. 요리할 땐 채식인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려해주세요.
6. "너 실패네" 하지 말아요. "예뻐졌다", "시집가도 되겠다" 도 칭찬 아니에요.
7. 무대에 나선 이에게 "잘생겼다" 하지 말아요. 잘생김 자랑하려 나온 거 아니에요.
8. "어! 너 저번에 거기에서 00미랑~!!"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마는 척 말아요.
9.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일은 함께 해요.
10. 더 즐거운 잔치를 위해 나만의 열 번째 약속을 만들어봐요!

성미산학교 인권동아리 나비효과 제작

### 청소년 참여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회참여는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청소년도 참여하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상 청소년의 권리가 동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 활동할 것이 많다.

현재 우리는 보편적 청소년의 정서와는 다르다. 학교위주의 청소년운동을 벗어난 탈학교(대안학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의미있다.

### 동아리 구성원이지만 그래도 교사로서는 어떻게 동아리를 바라보나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동아리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동아리 내에서도 편차가 있어 더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작년 촛불 집회 때 청소년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학교 학생들은 조용한 편이었다. 평소 학교 수업이나 문화적으로 인권에의 담론이 많고, 정치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어서 그런듯하다.

교내에서 문화적으로 일베식 드립을 했을 때 후진 사람이 되는 분위기, 페미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이다.

장애통합을 중요하게 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성에 대한 문제, 장애에 대한 의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권'이라며 거창한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내 주변에 장애가 있는 친구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어렸을 때는 장애학생,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친구00가 되어야 하나 좀 더 자랐을 때는 직접적으로 내 친구 00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고가 좀 막힐 때는 서로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고 그럴 땐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실제 필요한 것 아닌듯한데 그냥 화가 나서 해보는 듯한 일을 할 때, 그냥 재미있는 일을 해~라고 조언하기도 함.

### **그 밖에 다른 청소년 활동소개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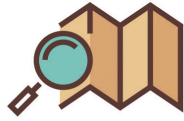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포스트중등 기획한 '마포청년에게 기본 소득을', 19세~30세 마포 청년에게 추천해서 기본소득제공하기.  
마을넷, 사회경제 지역화폐 모아, 학교 등에서 기부 받은 돈으로 학교 해보내기잔치 때 이벤트 형태로 추천하여  
현금으로 진행예정. 기본소득에 대한 수업, 포럼 열어 기본소득 알리기 등 활동 하는 중임.

### **향후방향**

이 동아리가 개별적이고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다.

인터뷰이 · 성미산학교 인권동아리 나비효과 **여인서**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송석교육문화재단



## 송석교육문화재단

### <인문교육활동>

송석재단은 송석 박문규 선생께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일환으로 전쟁고아들을 위해 1947년에 설립한 (재)도봉유린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설립 70년이 되는 민간 비영리단체이다.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사명아래 교육을 통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송석복지재단과 송석교육문화재단이 있다.

도봉숲속마을, 송석평생교육원을 직접 운영하고, 종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돌리뮤지엄(아동청소년문화공간),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송석교육문화재단은 생태환경교육과 인문교육활동 두 개의 커다란 축으로 운영된다.

생태환경교육은 도봉숲속마을이라는 자연형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는 숲체험, 도시농업, 어린이농부학교, 도시농부학교 등을 통해 숲이라는 자연공간에서의 느끼는 생태교육이다.

<인문교육활동>은 '생태'나 '환경'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치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고 생각하는데이, 인문학교실 쿼, 글로벌시민학교, 인문캠프가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송석교육문화재단
소재지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54-14
조직형태	비영리재단
설립연도	1992
대표자	박영년
가치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주요활동	교육센터 설치, 운영 : 청소년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기획, 개발 프로그램운영 : 리더십, 문화예술, 숲/환경, 인문학, 진로
온라인	<a href="http://www.songsuk.org">http://www.songsuk.org</a>

온라인	www.forestville.co.kr https://www.facebook.com/songsukfoundation/
문의	02-954-0203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생각하는데이
주제	인문학 교육
목적/목표	<p>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평화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국익이라는 가치관과 갈등을 빚을 때 평화를 우선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인문교육이 시작됨. '자연은 좋고 당연히 아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자연이 더 소중한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고민하며 답을 찾게 하려는데 인문학교육의 목적이 있다.</p> <p>인문학을 통한 가치관 형성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p>
활동형태	인지
프로그램 소개	<p>2015년부터 3년째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혜화동(종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p> <p>생각보다 청소년들은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함. 이런 청소년들에게 모임의 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 기획.</p> <p>매월 한 가지 주제(ex. 18세 참정권이 이루어진다면, 시와 4차 산업혁명의시대, GMO와 먹을거리의 위기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 인문학 지식을 교육하기 보다는 '가치판단을 위한 토론교육'으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 년간 청소년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와 송석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고민해서 주제를 기획하고 운영</p>
참여방법	홈페이지 통해 홍보하고 있고,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 가능함. 오픈모임. 무료, 매월 토요일
참여대상	중,고등학생
참여형태	토론
회당참여학생수	15명
연간참여학생수	120명



성인멘토	외부 인문학 강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 선생님들은 잘 이끌어내고, 이야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함.
예산규모(연간)	강사비, 간식비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인문학교실 쿨
주제	인문학 교육
목적/목표	'생각하는데이'를 확장한 심화 활동 인문학을 통한 가치관 형성
활동형태	인지+경험
프로그램 소개	<p>2017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서울시 도봉구 도봉숲속마을 2018년 월 2회 토요일 오후 2시~5시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p> <p>문제의식을 키워가는 생각하는 데이, 고전속에서 길을 찾는 책읽는 데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글쓰기 프로젝트 실천하는 데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이 예) 생각하는데이 - GMO와 먹을거리 책읽는데이 - 후쿠오카 마사노부 &lt;짚 한오라기의 혁명&gt; 실천하는데이 - 토종씨앗지킴이 나누는데이 - 씨앗여행, 지역장터탐방</p> <p>생각하는데이와 쿨은 매달 동일한 주제에 대해 나눔. 생각하는데이는 이야기를 시작, 쿨은 주제에 대해 공부해오고, 교사는 가치교육과 현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교육함. 이후 책읽는데이, 실천하는데일로 확장됨</p> <p>생각하는데이, 책읽는데이, 실천하는데이 등 형식이 있지만 정형화된 형식을 계속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함. 주제에 대해 글쓰기 및 비평하기, 토론 확장, 고전 읽기 등 다양하게 진행됨. 상반기 월4회 진행하다가 학생들의 시간과 일정의 부담으로 하반기는 월2회로 변경됨.</p>
참여방법	송석재단 홈페이지, 학교 공문, 홈페이지 매월 참가자 모집, 회당 5천원 회비
참여대상	16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
참여형태	토론, 교육
회당참여학생수	10명
연간참여학생수	160명~200명

성인멘토	담당간사, 주로 질문던지기, 토론열기 등의 역할
예산규모(연간)	간식비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글로벌 시민학교
주제	시민성, 국제교류, 공정성, 공정무역
목적/목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세계화, 국제교류를 폭넓게 알고 공정무역과 공정성이 가진 가치 이해하기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17년 8월, 이틀간의 워크샵, 17년 처음시작</p> <p>〈네팔청년과 한국청소년들과의 만남〉 with 아름다운커피</p> <p>1일차 - 국제교류 분과별 워크샵 네팔에 대한 이해, 국제교류에 있어 공정성, 나의 꿈과 희망</p> <p>2일차 - 1인 1질문으로 토크쇼 진행 - 네팔청년들과의 만남</p> <p>‘네팔’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이 못사는 나라, 도와줘야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것이 국제교류가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타인의 풍요를 빼앗아 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교육의 큰 목표이고, ‘세계화’ ‘글로벌’ ‘국제교류’가 늘 좋은 단어라고 생각했다면, 실제 국제교류가 얼마나 불균형하고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는 것, ‘공정무역’과 ‘공정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지가 또 하나의 취지이다.</p>
참여방법	8월, 2일차 활동, 온라인 모집
참여대상	중 고등학생 대상
참여형태	워크샵, 사람책
회당참여학생수	30명
연간참여학생수	60명
성인멘토	인문학교실 쿨의 대학생들이 멘토로 분과별 워크샵 진행
예산규모(연간)	강사비, 간식비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 인문캠프
주제	인문학, 가치체험캠프
목적/목표	인문학의 다양한 '가치'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실제 삶에서 그 가치를 실천 할 수 있다.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2박 3일 캠프형식 인문학 실천, 가치체험캠프 프로그램 인문학교실로는 실천에 한계가 있어 활동위주의 인문캠프 기획  18년 첫 시작, 18년 주제 <미래인간선언문> 상상력놀이, 즉흥적 글쓰기, 청소년 포럼, 미래인간선언문 발표 '집단협력본능', '상상력' 두 개의 키워드를 몸으로 경험하기
참여방법	18년 1월 29일~31일 2박3일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참여대상	만13세~18세(중, 고등)
참여형태	몸활동, 토론, 글쓰기
회당참여학생수	30명
연간참여학생수	30명
성인멘토	인문학 강사, 재단간사 캠프의 전 과정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접근
예산규모(연간)	숙박비, 식비, 간식비, 강사비, 대관료 등

### 그 동안의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제일 즐거운 순간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잘 듣고, 공감하는 순간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17년 여름, 글로벌시민학교였다.

네팔청년들과의 만남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활동을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길 원했는데, 둘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꿈을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네팔청년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현재 고민과 맞닿아 네팔 청년들이 한국청소년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다.

첫날,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나 국제교류,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네팔청년들을 만났다면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 우리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시간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맞닿은 부분을 찾아 감탄하고 질문하며, 사람을 통해 네팔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참여자 중 중1학년인 한 친구는 다문화가정 출신 친구였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았던 상품을 네팔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이틀날 가져왔고, 그것을 주는 것이 혹여라도 실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두 부분을 보면서 글로벌 시민학교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뤄진 듯해서 뿌듯했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안 하면 어떡하죠?

청소년들은 이미 사회의 구성원들이고, 사회와의 관계는 늘상 이뤄지고 있고 사회와 늘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아니고 이때부터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분절적인 것은 어른들의 시각인 듯하다.

청소년들이 현재 개인적, 친구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몇 살이 되면서부터 사회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일을 하면서 요즘 고민은

홍보가 가장 큰 고민이다. 아이들에게 직접 가 달기가 어렵다.

요즘은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들에게 가 달아야 결정이 되는 구조가 고민이다.

인문학교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부모가 아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 청소년들과의 관계 맺기에서의 고민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교육 서비스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지침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교육서비스를 달라는 사회와 선생님이 되고 개인의 간극을 어떻게 잘 메울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론을 가르치거나 거창한 학문을 알려주기보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세상에 당연한게 없음을 알려주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가게 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

### 향후방향

생각하는데이에서 인문학교실 콤으로 확장하였고, 인문학을 조금 더 실천하게 하고 싶어 여름에는 송석글로벌 시민학교 워크샵, 겨울에는 청소년인문캠프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한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정형화된 형식을 계속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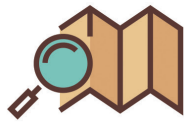
인문캠프에서 30가지의 개개인의 인간선언이 나온다면 그걸로 매달 실천하는 활동을 해봐도 좋을듯하고, 글로벌시민학교도 올해는 만나봤지만, 내년엔 네팔에 찾아가서 농사를 직접 도와주는 것도 재미있겠다.

인터뷰이 • 송석문화재단 **이지훈**  
 인터뷰이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도봉숲속마을 인문학교실 콤 2017 교육과정 커리큘럼

<p><b>1</b> 3/4(토) 생각하는데이 브래들리 매닝을 생각하다                      3/11(토) 책읽는데이 장 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3/18(토) 실천하는데이 자기 삶의 가치관과 실천계획                      3/25(토) 나누는데이 글쓰기 프로젝트 &lt;단 한 사람&gt;</p> <p><b>2</b> 4/8(토) 생각하는데이 18세 참정권이 이루어진다면                      4/15(토) 책읽는데이 프란시스 무어 라페 『살아있는 민주주의』                      4/22(토) 실천하는데이 민주주의 실천목록 만들기                      4/29(토) 나누는데이 글쓰기 프로젝트 &lt;내 삶의 민주주의&gt;</p> <p><b>3</b> 5/13(토) 생각하는데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5/20(토) 실천하는데이 공정무역의 날 실천활동                      5/27(토) 나누는데이 우리 지역 공정무역 활동 알리기</p> <p><b>4</b> 6/3(토) 생각하는데이 SI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6/10(토) 책읽는데이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6/17(토) 실천하는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감수성 프로젝트 1                      6/24(토) 나누는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감수성 프로젝트 2</p> <p><b>5</b> 7/1(토) 생각하는데이 GMO와 먹을거리의 위기                      7/8(토) 책읽는데이 후쿠오카 마사노부 『짚 한오라기의 혁명』                      7/15(토) 실천하는데이 토종씨앗 지키기                      7/22(토) 나누는데이 씨앗여행 - 지역 장터 탐방</p>	<p><b>6</b> 8/5(토) 생각하는데이 관계의 사회심리학 - 우정에 대하여                      8/12(토) 책읽는데이 산도르 마라이 『열정』                      8/19(토) 실천하는데이 홈키밍데이 - 친구 초대의 날                      8/26(토) 나누는데이 발표회 - 상반기 활동 영상제작</p> <p><b>7</b> 9/2(토) 생각하는데이 육식 vs 채식                      9/9(토) 책읽는데이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9/16(토) 실천하는데이 내 손으로 처리는 건강한 밥상                      9/23(토) 나누는데이 글쓰기프로젝트 - 육식을 다시 생각하다</p> <p><b>8</b> 10/14(토) 생각하는데이 함께 하는 혼자                      10/21(토) 책읽는데이 스콧 새비지 『그들이 사는 마을』                      10/28(토) 실천하는데이 세계 공동체 마을 탐방 계획서</p> <p><b>9</b> 11/4(토) 생각하는데이 배움은 왜 교육되어야만 하는가                      11/11(토) 책읽는데이 이반 일리치 『학교 없는 사회』                      11/18(토) 실천하는데이 2018 인문학 캠프 기획 -1                      11/25(토) 나누는데이 글쓰기_내가 꿈꾸는 삶의 학교</p> <p><b>10</b> 12/2(토) 생각하는데이 만들어진 꿈                      12/9(토) 책읽는데이 세르빈테스 『돈키호테』                      12/16(토) 실천하는데이 2018 인문학 캠프 기획 -2                      12/23(토) 나누는데이 발표회 - 2017년 활동보고</p>
---	--

※ 교육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 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교육>은 진정한 나눔의 목적과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또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 지속가능한 소비, 공정무역, 세계시민’ 등의 주제 교육과 캠페인, 나눔 바자회 등의 실천 활동을 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아름다운가게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용답동)
조직형태	재단법인
설립연도	2002년
대표자	홍명희
가치	그물코정신 : ‘관계’라는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봅니다. 되살림정신 : 나눔과 순환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참여와변화 : 당신의 참여가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듭니다.
단체주요활동	재사용 나눔가게, 모금, 나눔장터, 공정무역·공익상품사업, 사회혁신기업가 지원사업, 에코 디자인, 해외사업
온라인	<a href="http://www.beautifulstore.org">http://www.beautifulstore.org</a> <a href="http://www.facebook.com/beautifulstore">www.facebook.com/beautifulstore</a>
문의	02-2115-7230 (교육문화팀) / <a href="mailto:edu@bstore.org">edu@bstore.org</a>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눔교육 (유아)
주제	나눔/착한소비
목적/목표	진정한 나눔의 목적과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눔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놀이와 체험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나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p> <p>나눔교육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눔을 재미있게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 세상의 선순환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다.          - 별도의 참가비 대신 한 점 이상의 기증품을 받고 있음</p> <p>착한소비          나눔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착한 소비를 배우고 직접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물품 구매비용을 포함한 3,000원의 체험비를 받고 있음</p> <p>*단회기로 진행, 나눔/착한소비 중에 선택 참여</p>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모집, 단회기. 아름다운가게 세종로점 책과나눔으로 참여자 방문 진행</li> <li>-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수도권 지역의 유아의 경우, 신청 전 문의.</li> <li>- 20명 내외의 단체 신청</li> <li>-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서 신청(로그인해야 함), 전화신청 문의 가능</li> </ul>
참여대상	만 5세 이상의 어린이 적합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신청은 별도 문의)
참여형태	기증, 지속가능한 소비
회당참여학생수	약 20 명 내외
연간참여학생수	총 540 명 (2017년 기준)
성인멘토	<p>나눔교육팀에서 직접 진행.</p> <p>나눔교육서포터즈(교육자원봉사자)가 보조강사로 활동</p>
예산규모(연간)	(개별 사업처럼 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눔교육 초등
주제	나눔, 착한소비, 새활용 체험
목적/목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나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뉘어서 진행 기본교육 / 나눔: 나눔과 공존의 가치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직접 경험 심화교육 / 착한소비: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소비방법에 대한 이해 심화교육 / 새활용 체험: 자원순환과 새활용(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이해하고 새활용 만들기 체험활동을 경험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 나눔교육은 서울·수도권 내에서 진행</li> <li>- 구체적인 장소는 신청 접수 후 별도 안내</li> <li>- 최대교육인원은 30명이며 학급 단위로 신청</li> <li>- 아름다운가게 강사가 해당 기관에 방문할 경우, 기자재 준비(빔 프로젝트, RGB선, 앰프와 마이크시설 등)</li> </ul>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화문의 가능
참여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여형태	기증, 착한소비
회당참여학생수	최당 2~30여명 (학급단위)
연간참여학생수	총 1200 명
성인멘토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팀 강사가 직접 강의 나눔교육서포터즈의 보조 강사로 도움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눔교육 (중·고등학생)
주제	나눔,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소비, 되살림, 세계시민, 사회적기업
목적/목표	나눔교육은 함께하는 삶의 방법으로써,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얹어 이루어지는 형태의 상호촉진의 과정입니다.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고 재사용 순환운동의 가치를 이해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목적/목표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고 지구촌에 직면한 문제해결을 공부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삶,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교육입니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나눔교육은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할 공존과 나눔, 협동의 가치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나눔에 대한 재인식과 학습을 통하여 나눔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p> <p>연간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회기 교육 &lt;공동체와 나눔&gt; 아름다운가게가 지향하는 그물코와 되살림의 가치를 통해 더불어 살아감의 의미를 이야기해봅니다. 나눔과 공존의 의미를 알고 다양한 활동과 접목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li> <li>- 4월: 2회기 교육 &lt;지속가능한 소비&gt; 소비와 구매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세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의 방법에 대해 이해</li> <li>- 5월: 3회기 교육 &lt;공정무역&gt; 무역을 통해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을 역할극 활동을 통해 알아봄</li> <li>- 6월: 4회기 교육 &lt;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gt; 203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공동목표를 토론탐동을 통해 인식</li> <li>- 9월: 5회기 교육 &lt;되살림 활동&gt; 헌 물건을 재활용/재사용 하는 되살림 체험 실습 활동</li> <li>- 10월: 6회기 교육 &lt;캠페인 활동&gt; 교육 주제 중 택일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li> <li>- 11월: 7~8회기 교육 &lt;나눔바자회/일일가게 준비 및 실행&gt; 학교 내외 진행할 수 있는 바자회를 기획하여 준비 및 실행하는 활동</li> <li>- 12월: 9회기 교육 &lt;소감 나눔 및 마무리 활동&gt;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li> <li>- 선택 교육 &lt;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진로교육&gt; 공존의 직업관을 함께 나누고 모의 기업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li> </ul> <p>- 학급단위가 아니라 동아리나 모임을 중심, 다회기 수업(1년간 진행)으로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인지교육 4회기와 경험교육 4회기 포함 총 8회기로 구성 다양한 교육테마 중 선택 진행</p> <p>- 청소년 동아리 교육은 참여학습으로 이루어져 총 인원 30명 내외, 소수 그룹핑 진행</p> <p>- 나눔바자회, 일일가게 활동 시 봉사점수 인정</p>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 실무자가 신청 (교사 및 청소년센터 운영자 등, 대안학교의 경우 나이 제한 논의 가능)</li> <li>- 매년 연초 1~2월에 모집, 서울 및 수도권만 신청 가능</li> <li>- 1년 다회기 (최소4회기~최대9회기까지 가능), 다회기 신청 동아리 우대</li> </ul>
참여대상	만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참여형태	캠페인, 나눔바자회, 일일가게(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기증과 판매)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최대 30여명

연간참여학생수	연간 4~6개 팀
성인멘토	나눔교육 간사가 직접 진행 나눔교육 서포터즈가 보조강사로 활동 매장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함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청소년 나눔교육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는 학교 동아리를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적은 청소년 복지관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복지관의 경우 이동의 자유로워서 날씨가 좋은 날은 이동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아이들과 야외에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학교-자신과의 관계, 권력의 관계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장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라는 공간은 통제의 공간이지만 학교 밖 공간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육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아야 한다. 아이들이 나눔교육을 받고 나눔을 바로 실천하는 아이들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나치다. 아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이슈와 주제에 대해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주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눔교육의 의미는 공동체, 사회적 참여를 경험해 본다는 것이다. 내 의견을 개선해보는 경험, 사회에 나가서도 손 번쩍 들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나눔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을 펼치고 대화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여학습법으로 진행되는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은 평소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인정받는 경험을 중요시한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 의견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청소년과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 참여 즉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이다.

### 아름다운가게 말하고 싶은 나눔은

잘 나누는 것(잘 배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공유하는 것이다. 나눔의 중요한 가치로는 그물코(공동체), 되살림(물건뿐만 아니라 관계), 참여와 변화이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 1) 유아/초등교육의 경우 아름다운가게 세종로점 공간에서 진행되거나 연령 상 1~2회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하기에는 대상 특성의 차이가 있다. 3회기 이하의 구성임에도 모든 교육 요청을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2) 강사파견 방식으로는 나눔교육을 확산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나눔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교육 플랫폼 형태, 교원연수 진행, 성인실무자 교육 확대 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3) 나눔교육에 대한 지역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역 매장이 있지만 매장 매니저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업무적 부담감이 있고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 욕구를 매칭하기도 어렵다. 현재는 순천, 대전 등에서는 매장에서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고양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장과 연계한 나눔교육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싶다. (2018년도에는 지역 교육 진행)

4) 많은 매장에서 유아/초등의 나눔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각 매장에서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심화된 내용은 본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매장 자체가 나눔교육의 좋은 교육장이기 때문이다.

5) 나눔교육에 참가하는 학교들이 그 지역의 매장과 연계하여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나눔교육의 경우 가까운 매장과 연계해서 나눔장터, 캠페인, 일일가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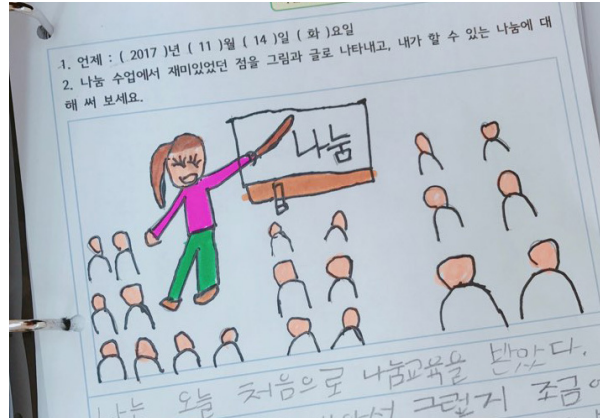
6) 사업 (재사용 나눔가게 운영)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나눔교육을 진행할 때 부담감이 있다. 교육과 기증(기부)가 달아 있어서 교육학적으로 빠른 인지와 빠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와 교육의 성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직에서도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겠다.

### 그 외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 서울랜드 나눔교육 '지속가능한 소비 아구아구' : 서울랜드에서 상시운영, 업사이클 체험교실, 학교 단위로 대형 강의 진행
- 2) 릴라씨가 알려주는 착한 소비 : 기금으로 운영되는 유아 프로그램
- 3) 재활용 견학프로그램 운영, 업사이클링 교육
- 4) PIC어린이나눔씨앗 리더십 캠프 :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해외캠프
- 5) 추리형 빅게임 "B의 일기장" 프로그램 진행
  - 상시운영되고 있는 나눔교육을 기본으로 기금에 따라 변형된 형태도 다양하게 진행
  - 아름다운가게의 에코파티메이리와 연계한 업사이클링교육과 재활용플라자의 견학 관련 교육을 진행

### 기타 : 나눔교육 아카데미

나눔교육 아카데미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과정'으로 나눔교육 실무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참여학습법 교안 구성 가이드북 <Get Global>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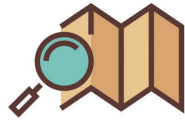


각자가 구성하고 싶은 주제의 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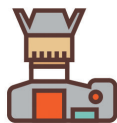
### 향후방향

- 1) 나눔교육의 확산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 한 나눔교육을 위해서는 각 지역 매장에서 나눔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2) 상시 운영 되고 있는 교육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때에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명시된 날짜에 신청을 받아 진행을 하고자 한다.
- 3) 교육생태학, 한국적 교육에서의 나눔교육 같은 주제로 나눔교육 컨퍼런스 진행하고자 한다.
- 4) 유아/초등/청소년 뿐 만 아니라 성인까지 아름다운가게만의 나눔교육을 만들어 확대해 볼 계획이 있다.

인터뷰이 · 아름다운가게 **김성훈**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아름다운커피



##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실>

아름다운커피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통해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바꾸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무역 구조가 빈곤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무역이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면 부를 분배하고 가난을 해결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화의 존중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통해 소외된 생산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민들, 조직들과 함께 불평등한 무역구조와 사회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다. 아름다운커피는 순수 공정무역 단체로서 무역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확산하고자 한다.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실천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아름다운커피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 1동 4층 406호
조직형태	재단법인
설립연도	2014년(비영리재단법인독립), 2002년부터 시작
대표자	서경표
가치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세상을 바꾸는 1%가 된다.”
단체주요활동	공정무역, 국제개발협력, 시민운동
온라인	<a href="https://www.beautifulcoffee.org">https://www.beautifulcoffee.org</a> <a href="https://www.facebook.com/groups/fairtradeclub">www.facebook.com/groups/fairtradeclub</a> (공정무역교실 페이스북)
문의	070-4942-0766 / <a href="mailto:fairetrade@becoffee.org">fairetrade@becoffee.org</a> (홍보마케팅팀)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공정무역교실
주제	공정무역
목적/목표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기여한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연 1회 학습교실, 연2회(학기당 1회) 실천교실 미션을 완수하면 인증서 발급</p> <p>학습교실 –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이해,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 교육(공정무역 박사)</p> <p>실천교실 – 공정무역 제품판매(기업가), 홍보행사 기획 및 진행(기획자) (봉사시간 인정, 제품 할인구매, 캠페인키트 활용, 수익금 기부)</p> <p>발표회 – 연 1회, 공정무역교실 참가자가 모여 활동과 성과를 직접 발표 (최다 판매금액달성, 최다 좋아요 득표 등 선정해서 시상, 사람책, 사례 발표)</p>
참여방법	<p>전국 청소년(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등) 최소 3명 이상의 팀</p> <p>1. 학습교실, 실천교실 : 학기 중 참여 가능</p> <p>2. 공정무역교실 발표회 : 매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p>
참여대상	중고등학생, 청소년
참여형태	교육, 기관방문, 판매, 캠페인, 홍보, 모금, 바자회 등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3명 이상
연간참여학생수	12~ 16년까지 캠페인까지 완료된 학교 151개 누적인원 3622 명 참가
성인멘토	<p>공정무역 시민대사 – 공정무역강사, 캠페이너 활동 1-6기 158명(전국) 자원봉사로 진행 (강사비 없음, 교통비 있음) 비상시 모집, 공정무역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2시간30분씩 8회차 교육 60% 이상 수료, 수업 시연까지 통과 시 시민대사 임명 – 교육제공, 심화강연, 강사교육, 정기교육, (주로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 위주, 생산지 이야기, 강사역량강화 교육 보완 필요) – 강사로서의 스킬보다는 공정무역에의 관심, 가치에의 공감을 높이 사는 사람 위주로 선정.</p> <p>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서, 학교에서 교육받다가 색다른걸 알게 되어서, 보다 가치있는 소비, 생협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됨 등 다양한 동기로 시작함.</p>



<b>성인멘토</b>	<p>고등학생들은 자기의 동아리, 학교 내에서 후배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기도 함. (그래서 시민대사 범위에 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음.)</p> <p>공정무역교실 강사 공정무역교실 수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강사. 일반인, 전직 교사, 기업강사 등 교육 경력자로 구성. 올해 2월에 모집하여 약 20시간의 교육 수료 후, 강사로 활동 중. 공정무역교실 강사는 학습교실(수업)만 진행, 실천교실은 아이들이 직접 운영.</p> <p>지역별 공정무역 활동가 화성, 인천, 시흥 등 각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공정무역 활동가를 양성함 (각 지역에서 공정무역 강사, 캠페이너를 양성)</p>
<b>예산규모(연간)</b>	약 2000만 원 (2014~2017 서울시 공정무역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진행)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고등학생 때 공정무역교실 참여했던 친구가 아름다운커피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가 이제 시민대사활동,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공정무역교실을 하면서 마트에 전화해서 공정무역제품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친구가 대학생이 되어 교회에서 공정무역활동을 직접 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 참여해보고 고등학교 때 동아리 만들어 다시 참여하는 친구도 있고, 작년에 공정무역 교실에 혼자 참여했는데, 올해는 30명을 모아 와서 같이 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소서 쓰면서 공정무역교실 참여경험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삶에 공정무역교실이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할 때 뿌듯했다. 작년 고3학생이 참여한 경우 있었는데,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참여했고, 후배들에게 수업도 하고 이후 외국대학으로 진학해서 그 나라에서 본 공정무역 활동을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다. 시민대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공정무역 캠페인 참여할 때 중학생 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참여했는데, 학교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공정무역교실 캠페인 활동을 주도하면서 친구들을 모으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고 아이가 많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나, 우리 가족, 친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보는 것. 내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기에 알게 되는 것 중요하다.

어른이 되어 접하는 것보다 청소년기 감수성이 있을 때 공정무역을 알게 되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듯하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에서 요청이 올 때 시민대사가 그 지역에 없어 못가고, 중앙에서 지원할수 있는게 적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나, 그 지역의 단체와 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해 공정무역활동의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발표회도 서울에서만 하고 있어서 지방에서는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엔 다른 단체와 많이 협업하여 활동가 양성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들어온 학교는 최대한 하려고 하나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콘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직접 하는 수업은 유료화로 전환되었다. 예산 많으면 캠페인 키트나 발표회도 풍성해 질수 있을 듯 하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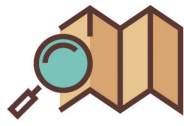
공정무역 시민대사 콜라보 프로젝트(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 - 전국 각 지역에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는 일,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지하는 지역 단체와 협약 맺어 각 지역에서 공정무역 교육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단체들과 공통의 목적을 만들어 내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싶다.

누구나 배우고 참여 가능한 기회제공- 사립학교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도봉구청에서 하면서 일반학교 참여율이 높았다. 모든 아이들이 이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싶다.

인터뷰이 • 아름다운커피 **이정화**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어썸스쿨

AWESOME  
AWESOME SCHOOL



## 어썸스쿨

# <히어로스쿨>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세상’ 이 어썸스쿨의 비전이다.

모두가 다르게 생긴 것처럼 사람들의 모두 다른 재능과 가능성이 발휘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그런 사람을 단체, 지역, 세상에 세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다.

2013년 황필권 전 대표이자 공동창업자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으로 비용을 받아 청년들을 모으고 커뮤니티 형태로 시작되었다. 다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으며, 교육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했다. 본격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직의 형태를 고민한 끝에 영리법인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13년 9월 정지훈 교수의 엔젤투자로 법인화되었다.

어썸스쿨은 교육 회사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되고 싶은 회사다. 학교란 공동체, 배움, 문화가 있는 곳이다.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혁신시키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히어로스쿨>은 황필권 전 대표가 정지훈 교수(미래학자)의 자료를 참고하고, 기업가정신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Babson College 출신의 임종규 공동창업자의 교육경험을 한국식으로 도입해 만들었다. 이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다. 자아탐색, 기업가정신, 인공지능 등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을 배운다. 특히 Learning By Doing의 교육철학으로, 행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경험주의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다.

<히어로스쿨>은 보편적으로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곳인 학교 안에서 진행된다. 새로운 것으로 현재의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함께 하는 변화를 추구한다. 모든 아이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청년강사를 양성해 교육을 확산시킨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어썸스쿨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 1나길 5 헤이그라운드(HEYGROUND) 7층
조직형태	기타형태_주식회사
설립연도	2013년
대표자	이지섭

가치	<p>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우리는 모두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재능도 모두 다릅니다. 사람들 각자가 가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고, 그것으로 사회에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세상을 그림니다.</p> <p>사람을 세우다! 어썸스쿨은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세상 곳곳에 세웁니다.</p>
단체주요활동	청소년진로탐색, 기업가정신, 체인지메이커
온라인	<a href="http://awesome-school.net/">http://awesome-school.net/</a> <a href="https://www.facebook.com/awesomeschoolnet/">https://www.facebook.com/awesomeschoolnet/</a>
문의	070-7123-1111 / seobs@awesome-schoo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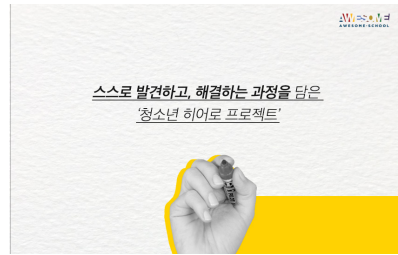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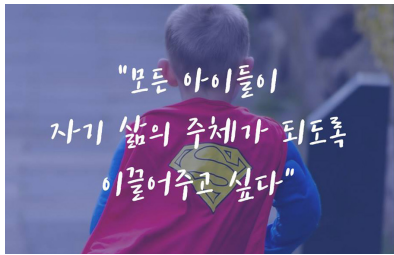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히어로스쿨
주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프로젝트
목적/목표	<p>‘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p> <p>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세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p> <p>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자신만의 눈으로 정의하며 사회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Changemaker 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히어로의 탄생(진로탐색 과정)</p> <p>- 나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p> <p>나의 정체성(관심사 보드게임 및 전지그리기), 나의 역사(나와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 공유), 나의 욕망 (꿈의 산 그리기)</p> <p>탄생 프로젝트(꿈의 산에서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 찾아 14일 동안 시도해보기)</p> <p>- 학교 대상, 단기교육(1회성, 1일 3~6시간) 및 중기교육(4~13회, 1회 2시간)</p> <p>1회기 30명 기준, 1년에 200곳의 학교에서 진행.</p> <p>학교 수업시간 활용</p> <p>히어로의 도전 (기업가정신 프로젝트)</p> <p>6단계 프로세스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 실천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문제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 캠페인, 강연, 연구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행동중심 과정.</p> <p>단기교육 1회 (1일 3~6시간), 중기교육 4~13회(1회 2시간)</p>

프로그램 소개	<p>히어로스쿨 (히어로의 탄생 + 히어로의 도전)</p> <p>- 진로탐색과정과 기업가정신 프로젝트가 합쳐져서, 나를 돌아보고 이후 지역사회와 공동체 문제 해결하는 과정.</p> <p>- 1년 과정 장기교육, 1회2시간 20회 이상, 중고등학생 대상, 30여명 기준</p> <p>*수업 시간 외 방과 후 학교 시간에 진행</p>
참여방법	<p>관심학교가 어썸스쿨 연락 &gt; 학교 담당자 미팅 및 사전조사 &gt; 학생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적화 &gt; 설명회 개최 &gt; 학생모집 &gt; 시작</p>
참여대상	중고등학생
참여형태	캠페인, 강연, 연구, 프로토타입의 다양한 시도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30 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20,000여명 (단기 연간 200개 학교*30명, 장기 경안고 250명, 분당고 200명)
성인멘토	<p>청년강사 60여명, 전국에서 활동 중</p> <p>페이스북으로 모집,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 3가지 기준(스펙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개인의 우월함보다 협업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p> <p>히어로스쿨 과정을 그대로 듣고, 현장실습, 연구강의 통과하면 강사임명</p> <p>강사비(시간당 강사비, 교통비) 제공,</p> <p>역량강화 교육 분기별 진행, 소모임 지원으로 스터디, 프로젝트 직접 해보기 등을 통해 역량강화한다. (길거리 고민상담소 열어 청년고민상담소 프로젝트, 청년강사들을 소개하는 동영상 만드는 어썸스쿨 스튜디오)</p> <p>청년강사들이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청년들도 자신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 것을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썸스쿨이 좋아서 이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역량 있는 강사들이 많아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청년강사를 직업으로 갖기보다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을 도전해보는 기회가 되어 더 많은 곳으로 진출하면 좋겠다.</p>
예산규모(연간)	<p>아산나눔재단, 현대해상에서 지원, 프로그램비는 학교에서 일부부담.</p> <p>앞으로는 해당학교에서 이 활동에 가치를 느끼고 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이 지속가능하다고 본다.</p>

### 단기과정도 있지만 주프로그램이 1년 장기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왜 이렇게 기간을 잡았는가

사람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편적으로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학교이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했다. 2~3시간에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서 1년 과정으로 아산 경안고에서 처음 시작했고, 올해 30개교 이상 진행 중이다.



###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강사가 해보지 않은 것을 시키면 아이들이 알아챈다, 따라서 강사도 14일 동안 같이 시도하고 실패하거나 잘 되지 않은 것도 공유한다. 강사 자신도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사가 솔직히 드러내지 않으면 학생들도 드러내기 어렵고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

### 히어로스쿨 문화인 질문이 많은 교실, 학생 중심, 가까운 관계, 다양성의 인정,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는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며 신뢰관계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 1년 과정이지만 주1회 만나는 것이고, 강사 1명이 30명을 보는데 학생들 한명한명을 개인적으로 만나기엔 힘들지 않을까

설명은 앞부분 15분만 하고, 이후 강사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속 모둠을 다니며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2017년 이전 양정여고 학생들은 소녀상을 학교에 세우기 위해, 소녀상을 모티브로 한 손거울과 노트를 직접 디자인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 130만원 가까이 펀딩이 됐고, 노트와 거울을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 학교 안에 소녀상을 세울 수 있었다.

2017년 여봉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직접 스크린을 제작하고, 아이들을 모아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었다.

2016년에 원목중학교 학생들은 아동 폭력 및 성범죄 관련한 인형극을 만들었다. 이 인형극을 원목중 주변 7개 유치원을 직접 섭외하여, 순회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자율동아리로 만들어 매년, 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때 학교를 변화시켜본 경험을 가지면, 성인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지섭 대표는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해 청소년기에 다양한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학교 때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면서 학점, 취업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내가 속한 곳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청소년과의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교실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나를 관찰하는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궁금해 하며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목표대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교육 질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자신에 대한 인식, 협업능력을 지표화해서 보고 있었고, 18년 올해 아산나눔재단을 통해 국민대학교와 함께 30개 학교에 효과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 이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성장기록은 14~15년에 학생들이 직접 기록했는데, 학생들이 디지털 접근성이 생각보다 낮아서 지속성이 떨어져서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강사 분들은 사전사후 설문지를 받고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수업 후 강사들끼리 모여 평가하는 시간 갖고 있다.

###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담아내고자하는 가치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이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이 활동의 확산을 위해 홍보 뿐 만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강사, 학교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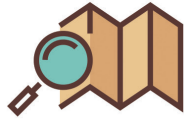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의 변화를 돌아보니 드는 소감은

아직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교육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나 각자 청소년들이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개별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활동이 더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

### 향후방향

어셈스쿨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민 중이다.

인터뷰이 · 어셈스쿨 이지섭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언니오빠형누나

언니오빠  
형누나



## 언니오빠형누나

# <놀이+터 플레이 프로그램>

<언니오빠형누나>는 16년 7월 대학 마케팅동아리 멤버들이 동아리 프로젝트(디자인씽킹 문제해결 기법을 이용하여 인간중심적,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접근)의 하나로 출발했다.

동네문제 찾고 직접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하다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며, 우리가 해결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하게 되었다.

채진백 대표의 진로가 ‘교육’이라 그동안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디자인씽킹을 공부하다가 동아리 활동에 접목하면서, 아동의 놀이와 놀이터라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고 싶어 동아리에서 따로 나와 대학생 8명 <언니오빠형누나>를 시작하였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언니오빠형누나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45 무중력지대 광진청년센터 3F
조직형태	기타형태_비영리스타트업 준비중
설립연도	2016년 7월
대표자	채진백
가치	비전: ‘함께 자유롭게 놀 때 더 행복하다.’ 미션: 아이들이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비영리스타트업입니다.
단체주요활동	아동, 놀이, 놀이터, 동네, 또래, 관계, 자원봉사
온라인	<a href="http://blog.naver.com/sisterbrother">http://blog.naver.com/sisterbrother</a>
문의	채진백 010-2326-4348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놀이터 플레잉 프로그램
주제	아동 놀이
목적/목표	언니오빠형누나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놀이친구이자 보호자이고, 시끄러운 놀이터가 당연한 세상을 꿈꾼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비영리스타트업.</p> <p>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고 동네친구와 동네 언니오빠형누나를 사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 프로그램</p> <p>‘광진구 군자동 군자어린이놀이터, 장안초 놀이터, 자양동 금모래놀이터, 성동구 성수동 상원어린이놀이터’</p> <p>매주 일요일 30명이 4군데 놀이터에 나눠서 동시에 3:00~5:30 (2시간30분) 활동</p> <p>그 외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학과와 언오누의 콜라보레이션 – 놀이터 리서치, 놀이터 체험전시</li> <li>2. 16년 겨울, 세종대 건국대 동아리 연결 미술, 흑인음악, 보드게임 등 동아리 연계, 실내 놀이 진행</li> <li>3. 17년 가을운동회 – 어린이대공원에서 특별한 운동회 진행</li> <li>4. 어린이대공원과의 협업으로 파하하 세가터, 11월 월간 세가터 놀이워크숍 진행</li> <li>5. 17년 겨울, 광진구 내 다양한 공방, 개인 사업체 협업한 체험형 놀이터, 도예, 동화책방 연결해서 놀 예정</li> </ol>
참여방법	뜻을 같이하는 자원봉사자 선발, 봉사시간 4시간 부여 자기소개서 > 면접 > 교육 > 워크숍 이후 놀이터에서 같이 활동
참여대상	대학생, 고등학생, 직장인
참여형태	놀이 진행하면서 사회문제에 직접 부딪히며, 아동의 놀이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놀이터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시도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15~20명 참여
연간참여학생수	16년7월~17년 12월까지 53회 놀이진행, 현재 30여명
성인멘토	참여자들이 함께 스터디, 개별 아동 및 놀이에 대한 피드백
예산규모(연간)	-

## 어쩌다 놀이를 하게 되었나

맛별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학원가로 내몰리고 있다. 아동범죄로 놀이터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안전하게 놀 공간이 없다. 이웃이 없어져간다. 스마트폰 중독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사교육을 하느라 함께 놀 친구가 없고, 놀 시간이 없다...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놀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대학생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안전한 보호자이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놀이터에 직접 가서 놀게 되었다.

특별한 놀이가 아니라 탈출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꿉놀이, 우리집에 왜왔니 등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놀이를 함께 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엄마들이 쉴 수 있어 좋아했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를 말하자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다.

언니오빠형누나(이하 언오누) 덕분에 놀게 되고,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 서로 만나 친해질 수 있었다. 5~13세 대상인데 실제로는 6~9세 정도가 가장 많이 온다. 초등학교학년이 되면 놀이터를 시시해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덜 오게 되는 것 같다.

## 언오누에 활동하는 멤버들은 누구인가

현재 선생님들은 대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교 커뮤니티, 포스터 붙이기 등으로 홍보하고, 봉사시간 4시간 부여하나, 봉사시간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보다 아이들을 만나게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면접을 통해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분들은 언오누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강의식 교육보다는 직접 가서 현장에서 서로 배움이 일어난다. 방학마다 워크샵 년2회 5~6시간씩 놀이, 아이들 사례, 놀이 아이디어 등에 대해 워크샵을 진행한다. 다양한 놀이(주로 결과물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놀이를 개발하는 과정은 어떤 부분을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평가한 것, 이런 과정은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수료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 재활용, 끈이나 밧줄 등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최종 완성분을 요구하는 놀이가 아니다. 사실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언오누가 재미있다.

## 어떤 놀이를 주로 하고, 언오누의 역할은 무엇인가

언오누는 놀이친구이자 보호자가 되고 싶다. 놀이터에 가면 처음엔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놀이에 끼어들고, 끼어들고 싶는데 끼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따로 같이 놀면서 상황을 파악하며 같이 놀게하기도 하고, 혼자 놀이를 존중하기도 한다. 이후 새로운 놀이를 제안하여 같이 한다.

놀이는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더라.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 어린시절의 행복한 기억, 어린 시절 유년기의 놀이가 성인기의 행복에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놀아줘야할지 모르겠다는 요즘 부모님들, 즐거움보다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거나 재능으로 연결하려는 어른들 때문에 놀이의 원초적인 즐거움이 없어진다.

놀이를 하면 창의성, 사회성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자꾸 놀이를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다. 2시간 30분 동안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잘 짜여진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럴 땐 아이들이 노는 동안 놀이가 무엇인지, 부모지침서 같은 작은 안내서를 드려도 좋을 듯하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주체가 되게하자!' 는 기본 정신을 잘 살리며 하고 싶다.

## 문화센터, 키즈카페의 놀이와 언오누의 놀이는 어떻게 다른가

요즘의 놀이는 문화센터, 키즈카페, 방방 등 아이들의 놀이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안에서만 놀게 하는 것,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곤 생각한다. 획일화된 길들임이 아이들에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소비를 통한 문화센터,



키즈카페에서 돌봐주는 놀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키즈카페는 놀아주는 것이라면 언오누는 같이 논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람들과 같이 노는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알아주셔서 보람된다. 언오누는 놀이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즐거워야지 놀이가 되는 것. 놀 활동 후 피드백을 통해 활동에의 평가,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

### 언오누의 활동 후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개인적으로는 동네 아이들과 인사가하게 되었고, 저녁에 지나가다 아이들이 있으면 모르는 아이들도 한번 더 지켜보게 되었다. 또한 자발적인 경험을 통해 언오누 선생님들도 틀에서 벗어나고, 옷을 버릴까 두려웠던 대학생들은 물총놀이를 하며 흠뻑 젖어보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 외동인 아이들에게 또래 관계, 동네 언니오빠형누나 관계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관계가 되고 있고, 부모들이 지역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 현재 고민과 방향은

앞으로 비영리단체(비영리스타트업) 등록 준비 중이고, 시스템 안정화를 시키고 싶다. 또한 경제적 자립도 하고 싶다. 이제 졸업해야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인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도전에의 두려움 있지만 해보려고 한다. 우리의 활동이 아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비영리스타트업이다. 유연하고 도전하고 주체적인 일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취하는 것이 즐겁다.

### 앞으로의 바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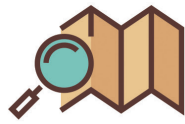
전국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았으면 좋겠다. 동네에 언니오빠형누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자라 그런 언니오빠형누나가 되어주면 좋겠다.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까지 우리는 희망한다.

### 향후방향

비영리단체(비영리스타트업) 등록 준비 중 - 시스템 안정화, 경제적 자립이고, 기업CSR 연계 -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터뷰이 • 언니오빠형누나 **채진백, 김은주**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우리지역보물탐험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간존중의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의 비전을 강북이라는 지역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북부시민회는 강북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강북 지역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풀뿌리 운동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동안 시민운동의 관심은 온통 중앙 정치와 제도적인 문제이거나 전국적인 이슈 등에 쏠려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생활문화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8년 4월 단체통합으로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으로 재탄생하며 본격적인 풀뿌리 운동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참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이 동네가 변화하고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의 변화에 기여하는 사람존중의 열린공동체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집수리 자원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북카페를 운영하며 다양한 시민교육과 지역공론장을 펼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학교 세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37길 10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조직형태	사단법인
설립연도	1998년 4월 26일
대표자	이동규
가치	열린사회시민연합은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열린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은 3대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합니다.

단체주요활동	<p>참여를 통한 변화 [주민자치]</p> <p>-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참여문화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모임 구성 및 지원</li> <li>• 지역현안 공동대응, 지방의회 방청, 주민자치 강화활동</li> <li>•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유권자운동</li> <li>• 마을북카페 책읽는 마을 운영-지역커뮤니티공간</li> </ul>
	<p>공동체사회를 여는 힘 [자원봉사]</p> <p>-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운동으로 집수리자원봉사 “해뜨는집”, 자원봉사자 발굴 및 양성활동,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및 지원활동</p>
	<p>건강한 시민의식성장 [공동체 시민교육]</p> <p>-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가정, 직장, 사회가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시민교육 : 사회적 부모교육, 자원활동가 교육, 리더십 강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도시재생 교육</li> <li>• 어린이 시민교육 : 놀면서 배우는 토요일교 또랑, 우리지역 보물탐험대</li> <li>• 지역사회-학교연계 교육 : 교과지원 학부모 교사 연수</li> <li>• 청소년자원봉사자마을학교 세움터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자치활동, 사회창안활동 등</li> </ul>
	<p>지역사회 안정망을 위한 [지역복지]</p> <p>- 집수리 지원활동 “해뜨는 집”, 주거환경사업,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교육, 컨설팅 등</p>
온라인	<a href="http://cafe.daum.net/openbu">http://cafe.daum.net/openbu</a>
문의	02-987-2304 (이동규, 박선희)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우리지역보물탐험대
주제	시민교육
목적/목표	건강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가정, 직장, 사회가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학교지원 지역사회교육을 진행한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은 학교만의 영역은 아니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하기에 지역사회-학교 연계교육을 통하여 마을이

<p>프로그램 소개</p>	<p>함께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교과연계 교육활동이다. 우리지역보물카드, 우리지역 퍼즐, 프로그램 매뉴얼, 활동 워크북을 이용하기도 함</p> <p>우리지역보물탐험대는 지역 수업이나 박물관 수업이 하루 종일 학교 수업으로 진행된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 1교시: 오리엔테이션 수업내용 안내 2~4교시: 지역사회로 나가거나 박물관을 다녀오고 5,6교시: 활동을 정리하는 워크샵 진행</p> <p>학년 전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간다. 박물관 수업은 보통 4, 5학년 전체 반 수업으로 들어온다. 수업이 맡겨지면 직접 교육계획안을 짜고 짠 교육계획안을 교사들과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사전교육은 교사가 하고 우리가 당일 6교시 수업을 한다. 교사를 만나서는 전체적인 교육내용을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는 일을 한다. 거의 계획을 짜서 가지만 교사들과 함께 만나 서로 역할을 나누며 함께 한다. 박물관을 가든 지역사회로 나가든 모둠별 8명 넘지 않게 하고 주 담당교사명, 학부모 2명 배치한다.</p>
<p>참여방법</p>	<p>학교에서 신청, 방과후 특별활동</p>
<p>참여대상</p>	<p>초등학교 3~6학년, 청소년</p>
<p>참여형태</p>	<p>지역사회 탐방</p>
<p>회당참여학생수</p>	<p>회당 40 ~ 48 명</p>
<p>연간참여학생수</p>	<p>총 580 여명</p>
<p>성인멘토유무</p>	<p>강사와 학교 선생님, 학부모 교사 2인으로 구성, 학부모인 경우 4시간의 사전교육을 받는다.</p>
<p>예산규모(연간)</p>	<p>약 1,500~1,800 만원</p>

## ■ 프로그램

<p>프로그램명</p>	<p>해뜨는 집</p>
<p>주제</p>	<p>자원봉사활동</p>
<p>목적/목표</p>	<p>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주거문제를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p>
<p>활동형태</p>	<p>경험</p>
<p>프로그램 소개</p>	<p>해뜨는 집은 1년에 50여 가구정도 집수리를 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해왔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수리는 거의 무료지만 자재비가 많이 드는 건 회의를 통해 간혹 실비를 받기도 한다. 자재비는 후원행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후원해 주기도 한다.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힘이 있으면 힘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로 아이들도, 중고등학생, 직장인들도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p>

참여방법	누구나 신청 가능
참여대상	청소년부터 성인, 가족단위
참여형태	매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8시30분에 모여 집수리 지원활동
회당참여학생수	5~7명
연간참여학생수	약 70여명
성인멘토	청소년들이 배정될 때는 각 가구의 책임팀장님의 인솔 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짐을 옮기거나 청소를 하는 활동, 간단한 목공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산규모(연간)	약 1,500~1,800 여만원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부모들의 변화인 것 같다.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그동안의 학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생각하다가 사전교육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덜거리기도 했었는데 활동을 마친 후 변화된 모습이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본인들의 역할을 높여 체험활동 강사도 되기도 하고 카페를 운영하며 그 뜻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는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어려운 점이라면 지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과의 활동에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결국에는 잘 해결되었지만 처음에 학교 안에서 만난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학교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은 체험 학습할 때 동행하면서 간식 챙겨주고, 사진 찍어주고, 안전교육하면서 교사들 챙기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사전 교육 없이 당일에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보물탐험대 하루 수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두 번 불러서 한 번에 두 시간씩 교육을 하니 투덜대기도 하고 불만이 많았었다. 그런데 보물탐험대 하루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엄마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만족도를 조사하면 97% 정도가 나올 정도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만난 엄마들은 마을활동가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게 사실 아니다. 이 활동이 끝나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학교 안이다. 도서관에 소속되어 학부모사서로 그 역할을 하면서 만남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하기는 하나 지속성이 담보가 안된다. 학교 안에서는 학교장의 역할도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아쉽다. 학교 밖에서 만나는 부모들은 쉬운 건 더 쉽고 어려운건 더 어렵다. 이들과 활동을 마치고 아이들 문제 이외로 더 큰 문제로 확대해 나갈 때 시간적 제약, 집안일이나 자기 아이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과정 만들어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건데 앞서서도 말했듯이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책 중심으로 도서관 활동이 이루어지고 초등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박물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인생체험이나 진로설계활동들이 이어진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이후의 활동이 담보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 확보가 힘들다보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이 지속성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다. 꾸준하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성인들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청소년들도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었거나 자기한테 주도권이 있기보다는 선생님이나 엄마아빠가 시키는 대로, 사회의 다양한 분위기 속에서 또는 힘 있는 또래 친구들에 밀려서 자기가 드러나는 경험을 해 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존재자체로 지지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충분히 누리면서 다양하게 자신의 색깔로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또 공동의 목표나 공동의 과제, 넘어야 할 주제가 있을 때는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도 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것 같다. 그 방법이 사회참여인 것이다. 학교 안에서 진행되면 매우 좋겠지만 학교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긴 힘들다. 학교 안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요소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해받을 수 있고 실패를 해도 안전한 실패로 경험하면서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다보면 합이 잘 맞을 때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울 때도 있고 그렇게 투닥투닥 하면서도 성장할 수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 중에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 청년들 중에 좌절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아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 아동청소년들에게 시민교육, 사회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들을 시민참여 운동,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도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행정의 잘잘못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은 행정대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빈 곳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책 제안도 하고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행정에서 피드백을 주면 시민들은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잘하고 있는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파이팅도 해주고, 상황에 따라 보이콧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참여해서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공감하고 확장하는 작업도 있고 문제만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범위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활동을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때부터 그런 건강한 경험들이 많아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하는 성인들이 포용성이나 수용성도 넓고, 만나는 대상자나 계층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더 독단적이고 권력화 되어 있음을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단체나 활동가보다 오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성이 너무 높은 나머지 합리적으로 함께 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 민주성이나 시민성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인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허물며 건강하게

훈련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 때부터 지역에 있는 관계망을 통해 민주성이나 시민성이 건강하게 훈련되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 부모들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꿈꾸는 마을활동의 모습은

보물탐험대 활동을 통해서 계속 남아있는 엄마들이 지역학교 또랑을 10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다. 또랑에서 동네에서 성장한 학부모 강사들이 동네 아이들을 교육하고 함께 키우는 활동을 해 온 거다. 또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신 엄마들이 각자의 인생을 사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체험학습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북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또랑 멤버들이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안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도 진행된다. 운영주체는 달라졌지만 그 내용들은 다 그 안에 있는거다. 꾸준하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마을이긴 하나 소수이다보니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긴하다. 마을활동을 하려는 것도 이러한 내용인거다. 자기의 또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 영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변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에너지도 달라진다. 그것을 키우고 싶은 거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들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들, 투 트랙으로 움직인 거다. 학교 밖에서는 학교밖 교사, 학부모 교사로 표현하다가 마을교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여 진행한다. 마을에서 많이 만나는 주 대상이 중요하다. 마을의 주요 대상들을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다 보니 중요한 내용중 하나가 아이들 교육이었다. 이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게 되고 사업도 그쪽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하지만 활동할 때는 아이들 교육만 신경쓰는 게 아니고 주변의 환경까지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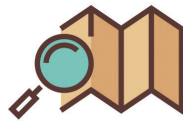
### 향후방향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중 3 이후의 활동은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활동을 연계하는 건 잘 안 된다. 중3 이후의 활동이 담보가 잘 안 된다. 인재 발굴 활동했던 아이들 중에서 몇몇 아이들이 남아 자원봉사학교 세상을 움직이는 구루터기(세움터)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8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헌법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이 중 절반은 엄마들이 운영하는 지역학교 또랑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다. 한 달에 한번 만나는데 이렇게 정기성을 담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운 거다.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이후에 또 다른 활동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아직은 없다.

인터뷰이 •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박운정**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월드비전

World Vision 





## 월드비전

# <세계시민교육>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NGO이다.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은 2007년 여름, 한비아 선생님이 CF찍고 받은 1억원으로 중고등학생들 50명이 3박4일 캠프 프로그램- 글로벌 이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지구촌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하고 실천하는-〈지도밖행군단〉이란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다. 10년 전 50명에 불과했던 세계시민학교는 이제 전국 19개 지역에서 700여명의 지역강사와 1,400여개의 교육기관을 통해 40만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로 성장했다.

<세계시민교육>은 옹호사업의 하나이다. 이웃들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5가지 주제(인성, 아동인권, 환경, SDGs, 평화, 식량위기 등)에 맞춰 학교 수업시간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월드비전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조직형태	사회복지법인
설립연도	1950년 (한국월드비전)
대표자	양호승
가치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체주요활동	국제지역개발, 긴급구호, 옹호사업 / 아동청소년, 빈곤
온라인	<a href="http://www.worldvision.or.kr/">http://www.worldvision.or.kr/</a> <a href="https://www.facebook.com/worldvisionkorea">https://www.facebook.com/worldvisionkorea</a>
문의	02-2078-7231 (옹호사업팀) / jinyoung_lee@worldvision.or.kr(이진영 과장)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세계시민교육 <a href="http://wvschool.or.kr">http://wvschool.or.kr</a>
주제	인성, 아동인권, 환경, SDGs, 평화
목적/목표	이웃들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365일 체험과 나눔이 있는 세계시민교육관</p> <p>- 세계시민교육관은 지구마을에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곳입니다. 세계시민교육관의 체험과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파견 세계시민교육</p> <p>- 지속가능한 지구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구마을의 이슈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곳에서 세계시민교육과 활동이 진행됩니다.</p> <p>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시민교육</p> <p>- 교원연수월드비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구마을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고민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교사 및 학부모가 세계시민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지 ·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2011년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지정된 월드비전에서는 교원연수과정을 통해 현직교사가 세계 시민교육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먼저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p> <p>배움을 실천하는 행복한 재능나눔 전문강사양성</p> <p>- 전문강사양성 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월드비전 지부 및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발굴 · 모집하여 워크숍 및 스터디과정 지원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참여방법	년 중 전국에서 19개 기관에서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학교 수업시간에 진행되어 교사들이 신청
참여대상	유아, 초, 중, 고등학생
참여형태	교육, 체험
회당참여학생수	학급당 진행
연간참여학생수	연간 1만 5천명, 누적인원 50만명

성인멘토	<p>재능강사 700명</p> <p>전국에 20여 곳의 지부, 700여명의 강사. 매년 1년 단위 활동으로 강사를 선발하여 인증하고 있고, 24시간 워크숍, 지속적인 스터디와 보수교육을 제공하여 강사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전국단위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권역별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본부에서는 전국 지부 담당자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고 교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p> <p>강사는 대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하며 아동이나 빈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주고 있다.</p>
예산규모(연간)	약 4억원

### ■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

대상	총론	세계시민성	아동인권	환경	SDGs	평화
유아	나는야 세계시민! 발루뽀가 들려주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초등 1~2 학년	세계시민의 눈으로 보는 세상	특별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지구마을 (소통, 존중)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 (UN아동 권리협약)	한 조각의 꿈 (친환경소비)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맞잡은 두 손에 평화 가득해! (관계에서의 평화)
초등 3~4 학년	세계시민의 눈으로 보는 세상	세계시민의 같이 가치 나무	운동화 소녀 이야기 (아동노동)	내가 남긴 발자국 (기후변화)	우리가 원하는 세상	평화의 씨앗을 심어요 (남북 평화)
초등 5~6 학년	세계시민? 나야 내!	너와 나의 공감고리 (협동, 소통, 배려)	내 친구의 소지품 (난민아동)	물은 생명이다 (물 부족)	SDGs 지구여행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 (평화 구축)
중등 중등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변화를 위한 목소리 (책임, 협동, 소통)	공감의 돛을 달아요 (난민아동) 너의 등갓길을 응원해 (여아 교육)	지구는 당신이 필요해요 (물 건설턴트)	SDGs 지구여행	평화를 만드는 아이들 (평화 구축)
고등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세계시민	변화를 위한 목소리 (책임, 협동, 소통)	너의 등갓길을 응원해 (여아 교육)	배고픈 세계, 식량의 위기 (식량위기)	지구를 위한 한 시간	평화와 만나는 시간 (평화 총론)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세계시민교육을 할 때 자신의 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기획한 공연기획자가 꿈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난 후 그 학생은 자신의 꿈을 빈곤하고 소외된 곳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고 바꾸어 말했다. 공연기획자라는 꿈은 동일했는데,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싶은지가 달라졌다.

세계시민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직업보다 가치가 우선하는 삶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바로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많은 것을 바꿔왔다고 생각했는데 뉴스나 신문을 보며 아직도 세상이 그대로라고 느껴질 때 힘이 든다.

얼마 전 한국정책연구원의 연구원과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청소년 활동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고, 청소년들의 절대적인 시간부족이 자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요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이런 활동도 시간을 내어야 가능한데, 학교 수업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초등학생의 경우 역량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가 가지는 힘이 정말 크다. 그래서 교사역량강화를 위해 교사들과 협업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사용 교재를 집필하고 있고, UN데이에 맞춰 제작 배포하고 있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모두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청소년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 인생의 자양분을 만들어 내는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때이다. 이때 들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고,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한 학년씩 낮아질 때마다 교육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놓치면 미래를 놓치는 것이라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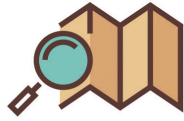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 10년의 세계시민교육, 앞으로 10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2007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이 생소했다면 현재는 많은 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월드비전은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성보다는 질적 역량강화, 교사 역량강화를 통해 단회기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삶에 녹아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일 년간 모든 수업이나 활동에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녹아내면 교내 분배배출부터 이후 아동권리보호 캠페인까지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교사역량강화 교사연수에 초점을 두고, 강사 교육에서도 한 회기만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전체 차시의 교육을 다 진행하고 강사가 학생들과의 라포를 형성하여 다른 활동까지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전국의 중고등학생 50여명이 모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세계시민총회’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2015, 16년 파일럿으로 진행되다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올해는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이것이 왜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 SDGs을 알리고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뛰고 설렌다.

인터뷰이 · 월드비전 **이진영, 양승혜**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유쓰망고

YOUTH MANGO  
CHANGEMAKER MOVEMENT PLATFORM



## 유쓰망고

# <유쓰망고>

<유쓰망고>는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무브먼트를 촉진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글로벌 사회혁신조직 아쇼카(Ashoka)의 유스 벤처(Youth Venture) 프로그램의 공식 라이선스를 가지고 2017년 9월 독립, 설립하였다. 행동하는 청소년들과 지지하는 어른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사, 교육청, 지역 단체 등을 만나 교육을 지원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다.

<유쓰망고> 프로그램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감을 이끌어 내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스스로 나와 주변의 문제들에 공감하고 솔루션을 찾아 행동해보는 경험, 체인지 메이킹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커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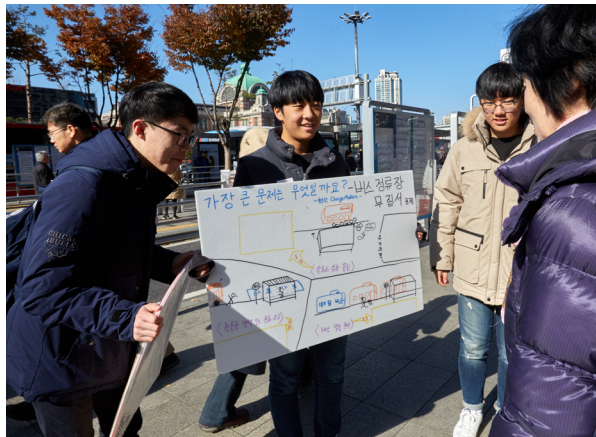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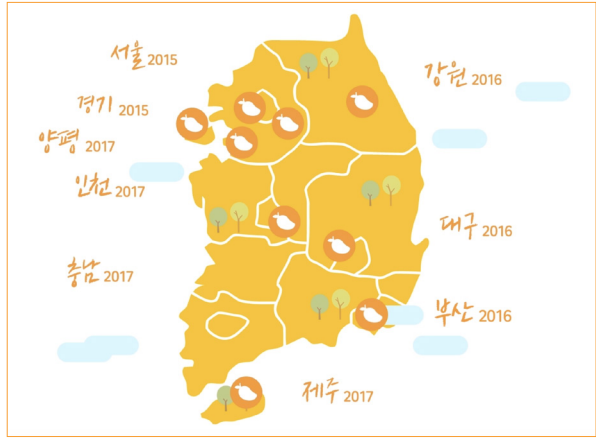
### ■ 기관개요

기관명	유쓰망고
소재지	서울 성수동 카우앤독
조직형태	임의단체
설립연도	2017년
대표자	김하늬
가치	Empowerment, 지속가능성, 개방과 공유
단체주요활동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활동 지원 ; 민관학 협력모델 만들기, 온오프 교류 플랫폼, 글로벌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a href="https://youthmango.parti.xyz">https://youthmango.parti.xyz</a> SNS:// <a href="http://www.facebook.com/youthmango">www.facebook.com/youthmango</a> <a href="http://www.youthmango.org">www.youthmango.org</a>
문의	010-6249-6368 김하늬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유쓰망고
주제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목적/목표	<p>청소년 스스로 '나와 주변'의 문제들에 공감하고 솔루션을 찾아 행동해보는 경험, 체인지메이킹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커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p> <p>청소년들은 이 활동으로 앞으로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p>
활동형태	경험 (체험형 프로젝트)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들이 지식, 행동, 태도를 포함한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아래 4가지 큰 스텝은 체인지메이커들을 가이드하는 교사 연수 때도 똑같이 진행된다.</p> <p>step1 문제발견하기 :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발견하기, 문제 들여다보기, 문제 알리고 공감받기  step2 솔루션 찾기 : 해결방법 찾기, 지속가능 모델 찾기, 실행 가능한 목표세우기  step3 행동하기 : 두려움 극복하기, 자원 확보하기, 실행해보기  step4 퍼뜨리기 : 스토리텔링하기, 공유회</p>
참여방법	<p>프로그램 운영은 각 지역, 학교, 단체별로 자유롭게 진행</p> <p>활동기간은 6개월~1년 정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은 없다.</p> <p>팀별 지도교사가 함께 한다.</p>
참여대상	주로 만 13세 - 18세
참여형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 기부, 정책제안, 베품시장, 애드보커시, 캠페인 등
회당참여학생수	-
연간참여학생수	총 2,000명
성인멘토	<p>체인지메이커 교육자(가이드)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청소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외부 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는 등 다양한 돌발상황들이 있는데 가이드들은 체인지메이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존 교사들과 소통해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돕는다.</p> <p>가이드들은 청소년 체인지메이커와 마찬가지로 공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가이드가 임의로 판단하고 주제를 정해주거나 팀을 짜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주어야 한다.</p>
예산규모(연간)	-





### 아쇼카에서 독립해서 나오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는가

유쓰망고는 아쇼카 한국으로부터 아쇼카 유스벤처 프로그램의 공식 라이선스를 받아 2017년 9월 독립, 설립하였다. 아쇼카에서는 직접 강의나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보다는 체인지메이커의 기본 개념과 메시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면, 유쓰망고는 직접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처음 지역에 들어 갈 때는 기본 매뉴얼만 가지고는 시작하기 힘들다. 기본 연수 요청이 많다. 양평의 경우 처음 체인지메이커 희망교사 기본연수를 하기까지 '교감, 진로교사, 학생회' 연수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자발적인 팀이 생기기까지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기본 연수는 필요하다. 현장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되, 한 번의 강의나 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팀이 만들어져서 실제 실행까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는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들의 스토리만 따로 모아진 채널이 없었다. 이미 전국 24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나 센터에서도 청소년 중심의 활동들이 이미 존재한다. 연 중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아카이빙 되고 알려지고 있지 않다. 유쓰망고는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특화된 콘텐츠를 모으고 전파할 예정이다.

### 청소년 체인지메이커가 필요한 이유, 가치는 무엇인가

청소년과 교육자 모두에게 체인지메이커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직 문화와 교사들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6년 경기도 교사직무 연수로

700~900여명의 교사들을 만났다. 교사들은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보는 과정을 해보았는데, 매회 교내 회의 문화, 관리자와의 소통, 과도한 행정업무, 입시위주의 정책 등의 문제가 쏟아졌다. 이때 교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현재 교직문화로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체인지메이커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지만 교사들이 먼저 반응한다. 체인지메이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사들도 정체된 교직문화 속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서울 창덕여중의 경우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회의문화 바꾸기, 학교 비전 나누기, 교사 토크콘서트 같은 활동을 기획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통해 '처음 해보는 활동'이 많아진다. "처음 옆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처음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처음 행정실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처음 지하철을 타봤어요", "처음 모르는 어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체인지메이커 활동으로 학교에서는 해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 이런 경험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도와준다.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아이들은 전통적인 시민단체, ngo활동가와는 또 다른,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소셜 섹터의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래의 자신들의 직업을 생각할 때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자신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능력을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통해 나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커로서 활동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는가**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문제발견'이다.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다. 팀 활동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팀원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인지메이커로서의 활동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런 사례 없이 시작하는 "퍼스트 펍" 같은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보고 함께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교내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활동한다.

### **유쓰망고는 체인지메이커 교육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가**

유스 벤처 프로그램을 아쇼카 한국에서 종료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사람들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쓰망고는 이 활동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한다. 지역에서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핵심 활동가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었다. 여기에 모이시는 교사들은 활동가스럽다. 각자의 학교와 지역에서 외롭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교사와 학교 밖 교육자들과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류 모임은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는 밴드를 통해 사례나눔, 교육을 서로 도와준다.

궁극적으로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의 체인지메이커 스토리가 제대로 잘 알려지고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청소년 운동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가매트” 프로젝트이다. 강원도에 있는 기숙학교 친구들이었는데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는 학생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해외 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운동량을 비교하는 자료를 찾게 되었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운동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요가를 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 전기장판을 깔고 유튜브 요가 영상을 보면서 요가를 시작, 꾸준히 진행하고 공유회에서 발표도 했다. 이 내용을 본 청소년비만정책과의 장학사가 예산을 배정해주기로 약속했고, 학기말에는 인근 대학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 운동부족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교 주변 산책코스를 개발하고 운동 효과를 확인하고자 만보기를 차고 걸어보기도 했다.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학교 앞 위험한 길에 과속방지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했다. 이 팀은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끝까지 실행해 본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도전한다.

올해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를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올 해 30이지만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소소하지만 체인지메이커의 모든 요소가 들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 전인고 사례 영상: <https://goo.gl/48AwIP>

##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체인지메이커의 개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어렵다. 누군가 제공해 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자들이 본인의 역할을 바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해주고 떠나면 일회적인 프로젝트 수업이 되지만, 각 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교직원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실행하는 교사들도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변화를 보고 함께하는 교사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면서 체인지메이커 문화는 계속 확장된다. 지역에서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안, ppt자료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스로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사들이 너무 바빠서 추가 업무로까지 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과 교과 과정 혁신, 교사 환경 개선 등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 사회참여 영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사회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짜 이 영역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유쓰망고〉가 청소년 사회참여 플랫폼으로서 미디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없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역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서로 이해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전에는 네트워크 모임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교육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단체 운영 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다. 〈유쓰망고〉은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사업으로, 비영리단체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인력을 총원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 향후방향

지역생태계 구축 - 주요 도시에 체인지메이커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민관학 협력으로 강원, 양평에서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 대구, 인천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플랫폼 (온라인) - 청소년 사회참여 미디어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문제발견부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도 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미디어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자와 청소년 모두의 체인지메이커 스토리를 확산시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체인지메이킹 경험을 하기 바란다. 3월부터 국내외 체인지메이커 교육 소식지 <망고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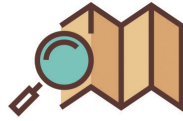
플랫폼 (오프라인) -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생태계 확장을 위해 1년에 두 번 오프 모임을 기획하고자 한다. 청소년, 교육자 이외 청소년사회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재미있고 색다른 기획을 해보고 싶다.

글로벌 유스 체인지메이커 네트워크 구축 - 다른 나라의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체인지메이커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18년 3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교육 컨퍼런스 “SXSW EDU”에 다녀와서 4월 달에 탐방보고서 <Z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출간하고 공유회를 가진 바 있다.

인터뷰이 · 유쓰망고 김하늬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신나는상상 & 청삼>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는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가 은평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청소년문화의집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가치 아래, 지역주민, 시민단체, 구청,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신나는애프터기획단 구성되어,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연대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로 모아 시작하였다.

은평지역 청소년들이 속마음을 풀어놓고 이야기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담아내고 있다.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자치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 사회참여프로젝트 <신나는상상>과 신나는애프터센터의 청소년운영위원회<청삼>을 소개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6길 7(역촌동 23-22)
조직형태	사단법인
설립연도	2013년
대표자	강양숙(애벌레)
가치	마을에서 자유롭게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우리
단체주요활동	청소년문화활동지원(청소년동아리, 청소년여행프로젝트) 청소년시민돌움(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시민활동) 은평교육네트워크
온라인	<a href="http://www.epyouth.org/">http://www.epyouth.org/</a> <a href="http://www.facebook.com/epyouth">www.facebook.com/epyouth</a>
문의	02-353-7910 / <a href="mailto:epyouth@daum.net">epyouth@daum.net</a> (청소년사업팀)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사회참여프로젝트: 신나는 상상
주제	팀별 자유주제
목적/목표	계획·활동·평가까지 자율·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상상서포터즈(대학생 및 지역사회 활동가 등)와 같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은평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자치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신나는 상상'은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손과 발로 실현되는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이다. 우리 동네, 이웃,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나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p> <p>- 지원자격: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은평의 즐거운 변화에 함께 하고자 하는 청소년(14~19세) 대상</p> <p>- 모집인원: 총18팀(기획팀 2팀, 프로젝트팀 16팀)</p> <p>*기 획 팀_개별로 지원하여 워크숍을 통해 활동 주제 및 팀 구성, 활동 진행</p> <p>*프로젝트팀_팀 구성하여 주제 및 활동방법 선정하여 지원 후 활동 진행</p> <p>- 활동기간: 기획팀 3개월 / 프로젝트팀 2개월</p> <p>- 활동 내용</p> <p>: 사전워크숍 참석(팀원전원 참석 필수, 종료 후 팀별활동비 50만원지급) : 팀별활동 &gt; 결과 보고 및 정산 &gt; 활동발표회 &gt; 평가</p>
참여방법	<p>매년 4~5월에 모집(홈페이지, 은평구 학교 및 복지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gt; 이메일 및 방문하여 지원서 제출</p> <p>- 지원서에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기대효과 기재</p>
참여대상	은평구 청소년 대상(14~19세)
참여형태	캠페인, 모금, 기부(팀별 사회참여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회당참여학생수	18팀 정도 모집
연간참여학생수	약 총 200 명
성인멘토	<p>상상서포터즈(청소년팀과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지지해주는 서포터즈)</p> <p>기획팀은 지역사회 활동가, 프로젝트팀은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활동</p> <p>팀별 1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모르는 정보만 알려주고 개입 가능한 줄임</p> <p>- 성교육(청소년의 이해/사회참여의 이해 교육) 필수 참석</p> <p>- 상상서포터즈 정기회의/사회참여활동 서포팅</p> <p>- 신나는상상 활동발표회 기획 및 진행</p>
예산규모(연간)	약 4천만원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삼
주제	센터 시설 및 활동 모니터링
목적/목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이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더불어 청소년이 원하는 수련시설을 '청소년 이용자의 눈으로'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센터 내 법적인 청소년기구. 청소년들이 신타는애프터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동</li> <li>- 월회 정기회의 진행 후 회의록 사이트에 공지</li> <li>- 다음기수 모집공고 및 선발면접 참여</li> <li>- 연임가능</li> <li>- 청삼이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기관운영 모니터링</li> <li>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언 및 참여</li> <li>청소년 정책 제언 및 청소년자치조직 네트워크 구축</li> <li>은평구 관내, 외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활동</li> </ul> </li> <li>- 1박2일 워크숍: 연간활동계획</li> <li>- 역량강화 교육기획 및 진행</li> </ul>
참여방법	<p>매년 10월-11월에 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및 은평구 관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선정</p> <p>1년 활동(1월 선발, 2월 워크숍으로 시작하여 12월 다음 기수 선발 및 활동보고서 작성으로 활동 마무리)</p>
참여대상	우리마을,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만9세 ~24세 청소년(초4,5지원가능)
참여형태	센터 운영 및 활동모니터링/제언, 청소년정책 제언
회당참여청소년수	총15명 내외로 1년 활동
연간참여청소년수	연360명
성인멘토	센터지기(담당직원)가 회의 시 참석/ 회의기록/운영위 활동 코멘트



### 청소년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발적인가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기는 하다. 처음엔 친구 따라 오거나 부모님의 추천으로 오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다 그 친구들이 2, 3년차 활동하면서 재미를 붙여서 그때부터는 자발적인 되는 것 같다.

### 센터에서 청소년자치활동이라고 말하는 활동은 어떤 의미인가

센터의 사업팀은 문화공간팀과 청소년참여자치팀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참여자치팀에서는 학생회 역량강화사업, 학생회나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신나는상상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이외에 센터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사업이 있는데 개개인별로 청소년이 자치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 같다. 센터에서는 이 사업들은 자치력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치를 보장해주는 사업이어도 그 안에서는 서로 달라서 애매하긴 하다. 그 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라보니 그들은 최대한 자치활동으로, 자치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센터지기들이 좀 더 기다려주는 편이다. 자치력이라 하면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데 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참여단체 네트워크 사업에서 참여단체는 누구이고 어떤 사업인가

참여단체라 하면 참여조직이라고 센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참여기구는 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를 말하고 은평 지역 학생회까지 포함해야 해서 우리는 참여조직이라고 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은평구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7개가 활동하고 있다. 은평구는 독특하게 센터처럼 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아닌 도서관, 청소년 다락방 등 청소년공간에서 생겨난 청소년운영위원회들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 공간에서 생긴 청소년운영위원회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인정하고 같이 교류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네트워크사업이다. 그 공간에서 만들어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조직들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어서 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조금 더 그 친구들이 힘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같이 예산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면 그 안의 소속되었음으로도 자치력이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다른 면이 나타나는가

특징이라 하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적극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기에 어떤 사항이 본인들에게 부당하다거나 불만 사항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 하는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다. 다른 청소년들은 이야기 안하고 그냥 넘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도의 발언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인 것 같다.

###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치력 향상의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신나는 상상을 담당하면서 목표라 하면 신나는 상상은 다양한 학교 동아리들이 신청한다. 지원개념으로 학교 동아리도 많이 참여하는데 그 학교동아리는 신나는상상에서 활동하면서 신나는 상상이 어떤 활동인지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참여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친구들은 신나는 상상 활동이 끝나도 그 과정들,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실행해 보고 평가해 보는 과정들이 그들의 삶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신나는 상상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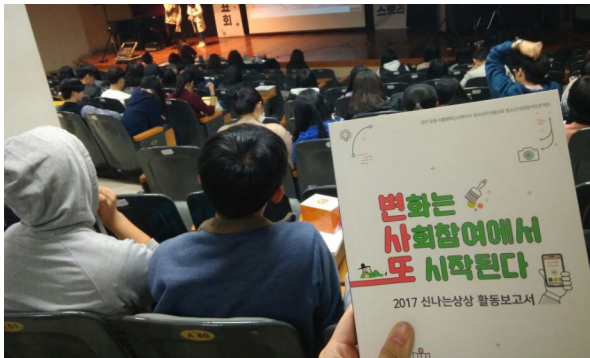
참여한 청소년들이 센터를 좀 더 알게 되고 센터에서 3년차까지는 자치활동에 지원하는 거였다면 스스로 조금 더 심화되어 센터의 다른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신나는상상을 3년 동안 해서 자체에서 심화가 되기보다는 다른 심화된 사업과 연계되어 활동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신나는상상에서 영화가 좋아서 활동했던 팀이었다면 센터에서 영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다룬다거나 다른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신나는 상상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어떤 기획활동이든 편하게 받아들여서 활동하는 것 같다.

### 신나는 상상에서활동하고 있는 상상서포터즈의 역할은

센터의 센터지기들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있고 상상서포터즈는 한 팀씩 맡아서 그 팀의 활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5개월 동안 맡은 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센터의 공지사항들을 전달해주고 그 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안내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도 제시하긴 하지만 팀을 이끌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아직 정보에 노출되지 않아서 부족할 수 있는 정보들만 알려주는 정도의 최소한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작년까지는 멘토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끌고 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서 그들이 원할 때 그냥 지원만 하라는 의미로 서포터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원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서포터즈가 먼저 나서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팀 활동 시 가능하면 일정을 맞춰서 함께 참여하지만 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청소년들끼리만 활동하기도 한다.

### 신나는상상 참여 시 사회문제 발견할 때 문제 선정 기준은 있는가? 학교 동아리의 경우 본 활동과 무관한 경우 가령 춤 동아리라고 하면 본 활동으로 참여하는지 새로운 사회문제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가

내 주변에 불편한 게 무엇이 있을까? 불편했는데 말하지 못했던 거, 불편했었는데 혼자서 못했는데 친구들과 함께는 해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의 사소한 문제부터 위안부문제 등 큰 주제를 가지고 해결해야한 한다는 부담을 안고 오는 경우 다양하다. 지원서는 세미버전으로 작성을 하고 사전 워크숍 때 구체적으로 주제를 세부화해보고 그 주제가 지역과 연계되는 다리를 만드는 작업들로 진행한다.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연계해 주고 위안부문제를 이야기해도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센터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죠. 학교동아리가 사회문제와 상관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신청할 때 신청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쓰다보면 본인들이 활동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써야하기 때문에 그 고민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고민을 했는지 안했는지 면접에서 보는 거다. 공연하고 싶은데 공연장이 없다하면 지역사회에 공연장을 늘려달라고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춤에 의미를 담아도 되고 그것들이 지역사회와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을 해오라는 거죠. 고민을 한다면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 **처음 신청할 때 그 주제 그대로 변경하지 못하고 활동해야 하나? 끝까지 활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활동내용 변경 신청 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변경신청 가능하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처음부터 활동을 알고 주제를 고민해서 온 경우가 아니고 신나는상상만 보고 친구 따라, 친구의 친구를 따라서 오다보니까 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못정하고 오는 팀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워크숍때 팀 내 갈등도 나타나고 주제도 몇 번 바뀌기도 하는데 바뀐 주제로 재미있고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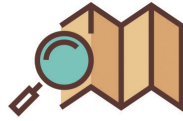
### **향후방향**

처음 활동할 때는 은평구에서 사회참여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받아들여졌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사회참여 뿌리 내리는 것에 집중했던 기간, 즉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이랑 연계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식의 사회참여활동 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누구나 사회참여하면 떠오를 수 있도록 심화버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 상황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센터의 계획은 2차년도씩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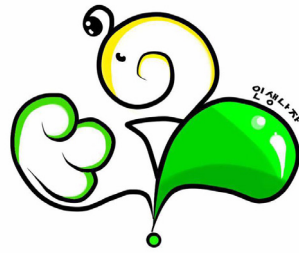
신나는 상상의 경우 3년 정도 운영하다보니 심화과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센터지기들 혹은 마을 활동가가 직접 서포터즈, 멘토 역할을 하며 팀별로 받던 것을 개인별로 지원을 받아서 직접 그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문제를 찾고 관심주제에 따라 팀을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즉 기존의 형태인 팀별 지원하는 팀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을 모집하여 워크숍도 따로 진행하며 심화되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 팀들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답사하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한다.

인터뷰이 • 은평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김지혜, 이승주**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자원순환마을>

〈인생나자작업장〉은 청소년의 인권옹호활동과 생태적 삶,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해 보고 자신이 원하는 자립적 삶을 함께 찾아보는 플랫폼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적게 벌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함께 콧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는 마을, 못 생명들과 공존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달팽이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곳이다.

협동조합을 꾸리기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했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이 시로 넘어가면서 재단이 만들어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미처 활동하지 못하는 활동이 보였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밥도 같이 해 먹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작업장을 열게 되었다. 〈인생나자작업장〉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활동, 인권교육 등을 운영하며, 생태적 삶을 실천하기 위한 재활용 작업장을 운영한다.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나눔교육 활동과 세상을 바꾸는 좋은 돈을 만드는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78, 3층
조직형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연도	2013년 9월 10일
대표자	정인환
가치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할 수 있는 세상, 자원이 순환되어 버릴 것이 없는 세상, 억울함이 없이 공평하게 나눠 가난한 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단체주요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옹호활동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거리아웃리치, 십대 노동실태조사 활동 등), 인권교육 운영(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활동), 잇다네트워크 운영(한 청소년도 외롭지 않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동)</li> <li>2. 생태적 삶 활동 : 재활용작업장 운영(수제품 작업활동으로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상품만들기, 생태적 삶에 대한 캠페인성 상품 만들기 등)</li> </ol>

단체주요활동	<p>3. 나눔의 실천활동 : 나눔교육운영(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나눔교육활동), 공반쪽 나눔 프로젝트(재능나눔 등 나눔실천활동 제안 및 나눔실천활동 등), 굿머니 프로젝트(세상을 바꾸는 좋은 돈을 만드는 모금활동)</p> <p>4. 자립의 다양성 활동: 마을자립학교(청소년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작은 교실학교), 학업수당지원(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작업장에서 다양한 자치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돈장학금), 인생나자 시장운영(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비상시적으로 시장을 열어 판매하는 활동)</p>
온라인	<p><a href="http://blog.naver.com/gpnaja">http://blog.naver.com/gpnaja</a>  <a href="http://cafe.daum.net/inseangnaja">http://cafe.daum.net/inseangnaja</a>  <a href="https://www.facebook.com/Insaengnaja">https://www.facebook.com/Insaengnaja</a></p>
문의	031-458-7972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눔활동: 자원순환마을(자원봉사활동 원하는 친구들)
주제	자원봉사활동
목적/목표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것을 지금의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핵심가치는 청소년들의 실패의 경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지대의 확보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해보면서 그 과정을 책이나 영상으로 만들고 결과물을 전지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소통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재능기부로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모여서 한 번 만나면 2~3시간 동안 진행한다. 하루에 한 아이টে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며 만드는 과정으로 보통 진행된다. 이렇게 사업으로 진행되면 사업기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연속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1년 단위로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큰 주제는 가지고 활동을 달리한다.
참여방법	사이트에도 게시는 하지만 작업장으로 매주 봉사를 오는 친구들과 기존에 작업장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함께 할 친구들을 모으고 그 친구들 중심으로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한 다음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친구들을 모아 진행한다. 활동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주제를 바꾸어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참여대상	특별하게 연령제한은 두지 않지만 보통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참여형태	축제에 참여하여 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며 공유해 주면서 재능기부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10~12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1천명
성인멘토	멘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 선생님의 역할은 질문하는 자, 마당을 열어주고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면서 챙기고 아이들이 만든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아이들의 활동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서 공유해주기도 하고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알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선생님의 역할이다. 또 이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한다.
예산규모(연간)	-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왔는데 그 청소년에게 자원순환마을 활동을 소개하며 같이 해 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 청소년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라면서 주저주저 했었다. 그 청소년이 만화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러 활동 중에 달력을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달력 만드는 과정 중에 달력을 4컷 만화로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아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니 그 청소년이 또 하고 싶다면서 찾아 와서 하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냥 한번 해보자해서 하긴 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과 같이 연결해서 하다 보니 의미가 더 있었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다.

또 한 사례는 경계성지능장애가 있던 청소년이었는데 인생나자 활동을 하면서 지능이 높아졌다는 말도 들었다. 이 활동이 지능을 높여주는 활동이어서가 아니라 그 청소년이 어렸을 때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시기에 경험했어야 하는 상황들을 못 겪고 성장하다보니 지금 이런 경험을 통해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청소년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되었다.

### 더 해보고 싶은 일은

청소년들과 청년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2~30대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청소년 때 운영위원회로 활동했던 친구들이 청년이 되어서 찾아오고, 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 교육 사업을 하는데 같이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함께 하는 것들이 있다. 또 그 청년들이 동아리활동 멘토도 해준다. 직장이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렇게 모인 청년들이 청년모임을 하고 있다.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아젠다를 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군포의 상황을 보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1인가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1인 가구에는 청년, 노인,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도 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고시텔, 원룸이 많은 지역이 되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 외롭기도 하고, 혼자 사용할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동구매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공급을 해 주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까. 과일도 하나, 두 개 사기 힘들니까 소량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가끔은 소통하며 외로움을 떨칠 수 있도록 가끔 작업장에 와서 수도도 떨고,

밥도 같이 해먹으면서 사소한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또 어느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나눔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풀어내고 싶다. 나눔도 교육보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꺼리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혼자 사는 게 자립이 아니라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비빌언덕이 중요하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복지사업이 아닌 관계를 만들어주는 관계망 사업을 하고 싶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처음엔 솔직히 참가자 모집이 어려웠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청소년들과 같이 했으면 해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모집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 그런데 작년에 활동하던 친구들에게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했더니 본인들도 참여하고 그 친구들도 하고 싶어한다면서 새롭게 데리고 와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친구 소개도 해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참 좋았다.

### **청소년 활동에서 지향하는 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양성을 버리면 안 된다. 청소년들은 궁극적으로 다양성 안에서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지향점을 찾아가는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 보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더 많은 만남으로 더 많은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청소년들의 앞으로 활동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이나 관계, 만남은 배운다고 해서 터득되거나 소통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나고 스킨십도 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성의 성장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상상력이 자주 사라진다. 아니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훼손당하지 않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청소년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력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 “그게 가능하겠어?”라며 상상하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런 말들이 상상력을 훼손시킨다. 불가능 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은 불가능 한 것을 가능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들 수 있다. 상상력을 청소년들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는 것그게 청소년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힘도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상상력이 무한성을 가질 수 있고, 그 무한 상상력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하면 더 좋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마을 어른들에게 다가 가기가 좋다. 아무런 매개체 없이 마을 어른들과 만남을 하기엔 쉽지 않은데 청소년들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한번 봐 주세요.”하면서 다가가기 쉽다. 그러면서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작년엔 이것의 전단계로 초록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쓰레기 불법배출 문제를 주제로 스티커 작업을 해서 알려주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마을 어른들이 먼저 물어 보시기도 하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런 기회가 너무 좋았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올해도 즐겁게 계속 활동하고 있다. 그런 청소년들의 변화활동이 보이니까 인생나자작업장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변화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딱히 글이나 말로 청소년들의 변화를 표현하기 어렵고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 마을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마을에, 마을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한번 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주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실천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게 변화다. 장만 마련해 주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주면 청소년들이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생각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변화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활동을 마친 후에 소감문을 쓰는데 소감문 내용을 보면서도 느낀다. 단순 문장에서 본인들이 활동한 내용, 과정,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그 길이가 길어지는 것, 그것도 변화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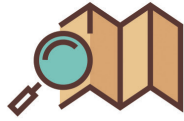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 자원순환마을 활동 후 계획은

청소년들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열대를 구매하여 주택가에 설치를 해냈다.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이 만드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는 거다.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라고 느끼고 실천해 볼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꾸준히 하려고 한다. 청소년들도 프로그램 안에서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재능 나눔, 재능기부, 우리 활동주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매칭이 잘 되는 것 같다. 일부터 찾아가서 재능기부를 하지 않아도 활동으로 인한 작품들을 보고 따라서 하기 도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쓰레기로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고 책자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 향후방향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인생나자작업장은 마을에 관심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실험해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 활동도 처음이라기보다 작년에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쓰레기 불법배출 문제를 한번 다루었었는데 그 활동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에 대한 주제로 본다면 2년차 활동이다. 자원,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로 활동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제에 대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인터뷰이 • 인생나자작업장 김지수, 장연재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인권기획단>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는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배우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배우고 세상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이다.

반딧불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인권기획단>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한 선거권 캠페인,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3층
조직형태	사단법인
설립연도	2004
대표자	김영화
가치	<p>청소년이 즐겁게 배우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되찾기 위한 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p> <p>청소년이 참여 속에서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배우고, 세상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p> <p>반딧불이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p>
단체주요활동	<p>청소년인권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참정권 사업: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 및 연대활동</li> <li>- 청소년인권기획단사업: 청소년인권활동가를 모집하여 대구지역 청소년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li> <li>- 인권교육사업: 인권감수성 향상, 청소년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대상에 적합한 인권교육 진행</li> </ul> <p>청소년 '삶의 주인 되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정해 생각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정기모임,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능한 대중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li> </ul>

<b>단체주요활동</b>	<p>학교 밖 청소년 콘텐츠 기획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들의 권리,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체성 실현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과정 만들기</li> <li>- 기존의 사업형식(문화체험, 여행, 수다회, 인터뷰 등)을 활용 또는 새로운 주제로 영상제작</li> </ul> <p>대중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스무 살 길 찾기 프로젝트 '토마토' 시즌14: 20살이 되기 전 자신의 10대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 진행</li> <li>- 대중강좌: 반딧불이 회원을 포함한 지역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문화 형성을 위한 대중강좌 진행</li> </ul> <p>기타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활용 사업: 반딧불이 공간을 정비하고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홍보</li> <li>- 후원회원 사업: 후원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소소한 프로그램 진행, 전·현직 반딧불이 활동가, 임원이 소통할 수 있는 홈커밍데이 진행</li> <li>- 일꾼역량강화: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내/외부 교육 진행</li> </ul>
<b>온라인</b>	<a href="http://www.bandi1318.org/">http://www.bandi1318.org/</a>
<b>문의</b>	053-421-1318 / 1318bandi@hanmail.net

## ■ 대표프로그램

<b>프로그램명</b>	청소년인권기획단
<b>주제</b>	인권, 주체성
<b>목적/목표</b>	청소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동등한 관계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정당하게 퍼져 사회에 반영이 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b>활동형태</b>	인자+경험
<b>프로그램 소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편견,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권캠페인, 뒷담회 등 모임을 기획, 진행하여 한 달에 1~2회 활동함</li> <li>- 첫 번째 모임에서 기획 및 준비한 것을 두 번째 모임에서 실행한 후 세 번째 모임에서 평가하여 다음 활동을 기획 및 준비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모임을 구성</li> <li>- 초기에는 주로 길거리에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함</li> <li>- 학교 안, 밖 일상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학생이란 이름에서 벗어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청소년 모임 &lt;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뒷담회&gt;를 기획, 진행함</li> </ul>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뒷담회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 주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활동까지 진행.</li> <li>- 기획단과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하고 이후 인권아카데미, 토론회, 정책워크숍 등을 만들고 진행함.</li> <li>- 2017년의 경우 6번의 뒷담회와 2회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li> <li>-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에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워크숍을 진행.</li> </ul>
참여방법	<p>모집: 보통 3월부터 활동기간 내내 상시모집  홍보방법: 청소년 관련 사이트 게시 및 학교에 공문과 포스터 발송  신청방법: 담당자에게 문자나 방문(중간부터 참가하는 청소년은 담당자가 면담을 통해 지난 활동 리뷰해 줌)  활동기간: 4월~12월(매월 1~2회 모임),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구성은 새로운 멤버와 연임하는 멤버의 비율이 반반이다.</p>
참여대상	14~19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형태	인권캠페인, 설문조사, 정책제안 등 기획·준비·실행·평가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7~8 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20 명
성인멘토	상근 활동가 및 자원 활동가들을 일꾼으로 부르는데 일꾼들이 각 활동을 담당하고 모임 진행에 있어 사업이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한다. 즉, 일꾼들은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오고 서포터 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규모(연간)	약 250 만원

### 단체에서 함께 하는 ‘청소년’과 ‘활동’소개

우리 단체에서는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이나 가르쳐줘야 하는, 우리와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동료로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청소년에 대한 표현도 동등한 관계로서 사용한다. 아이들,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함께 하는 분, 참가하신 분,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한다.

설립 초반에는 단체가 나아갈 방향 설정을 하고 청소년을 만나기 바빴다. 이후에는 활동이 많아지며 청소년이 활동에 참가하는 대상에서 함께 활동하는 파트너가 되고 같이 고민하는 동료가 되면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 후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커지며 청소년인권기획단, 청소년축제나 벽화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기획단 등 많은 모임이 생겼다. 대부분 활동이 청소년 직접 기획, 운영,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청소년인권기획단이다. <뒷담회>는 청소년인권기획단이 만들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 **모집할 때 함께 하는 청소년과 활동 중에 들어오는 청소년들과 다를 텐데 어떻게 해결하나**

활동 중에 문의하고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따로 면접하거나 참여 기준을 두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벽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활동시기가 다양한 청소년 구성원들이 많다. 그런 경우 들어오기 전 활동했던 내용이나 연간활동들에 대해서 따로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고 본인이 바라는 활동 목표를 수렴하여 반영한다.

###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2017년 여름에 했던 뒷담회의 주제는 청소년 성소수자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청소년과 성소수자가 아닌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기에 기억에 남는다. 반딧불이에서 진행한 공식적인 첫 번째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모임이라 더 특별했다.

지난 겨울에는 청소년 시국선언활동을 했다. 청소년인권기획단이 모여서 나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준비하여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었다. 기자회견하는 자리에 처음 보는 청소년들도 약 30명 정도 모였다. 그리고 그날 집회에 참가하여 1시간정도 시내를 행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OOO 물러나라'고 청소년들이 외쳤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 **반딧불이의 청소년 활동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살면서 경험하는 청소년 시기는 한정적이며 '그땐 다들 그랬었다' 정도의 경험으로 그 시기의 고통이 무효화된다. 그래서 청소년관련 문제들은 청소년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으며,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한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시민이기에 당연히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내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나중에 아닌 지금 행복할 수 있길 바란다.

###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변화를 느끼는가**

활동을 홍보하는 규모는 비슷한데 청소년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활동 홍보 포스터나 안내문을 보고 연락 오는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어난다. 자신이 경험하는 부당한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 **반딧불이처럼 활동하는 기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반딧불이(단체)가 살아있어야 한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활동하는 일꾼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도 잘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다져져야 한다.

그리고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딧불이와 같은 시민단체 활동은 지금 사회에서 소득이 낮은 직업 중 하나이다. 소득의 불평등은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양하듯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해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삶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활동가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청소년인권기획단에서 활동한 청소년이 최근 학교 학생부장이 바뀌며 갑자기 두발단속을 했다고 연락이 왔다. 학교 규정을 찾아보니 세부규칙 안에는 두발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동안 안하던 두발단속이 학생부장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바뀌게 되어 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적용받는 규칙이 개인의 주관에 의해 달라진 것이다. 학생들도 그 부당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선생님에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추가피해를 걱정해야한다. 그렇다고 단체가 대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인권기획단 활동을 4년째 하고 있다. 그 청소년도 인권감수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학교에 돌아가면 그 학교의 문화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학교에 돌아가면 학교의 문화에 순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 프로그램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은

활동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은 시작부터 끝까지 참가자들과 같은 내용, 고민으로 큰 흐름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흐름이 제각각이다. 뒷담회의 경우 대구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만드는 순서를 기획했지만 개개인의 일정에 따라 참가여부가 달라지며 순서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 청소년인권기획단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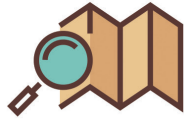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청소년 인권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회의 의결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청소년은 여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요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모의투표나 정책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실제 선거에 나갈 수는 없지만 청소년교육감후보를 만드는 퍼포먼스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바탕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올해 할 예정이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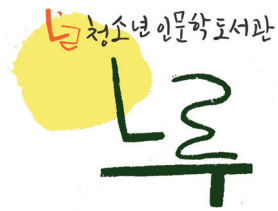
반딧불이가 추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인권감수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반딧불이의 장기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모든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감각 생각이 다르지만 반딧불이에 오거나 반딧불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인권감수성을 성장하고, 함께 평등한 인권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인권감수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뷰이 ·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김진환**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 청소년인문도서관 느루



## 청소년인문도서관 느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인문도서관 느루(이하 느루)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청소년 공간이다. 지역에는 학교가 11개나 있는데 반해 청소년 공간이 전혀 없었다. 느루는 이를 고민하던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청소년들이 응답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 만든 공간이다. 느루는 청소년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마을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청소년과 어른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느루 공간을 준비할 때부터 만들어져 도서관의 주인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했다. 현재 8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청소년인문도서관 느루
소재지	인천 서구 장고개로 272
조직형태	기타형태_비영리민간단체 주민조직 '마을n사람' 운영
설립연도	2008년
대표자	권순정
가치	<느루>는 청소년이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과의 소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묻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대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시 마을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순환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른도 청소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훌륭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단체주요활동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느루 청운위 활동, 청소년동아리 지원, 동아리활동, 문화복덕방, 문화예술 교육, 바리스타 교육, 진로상담, 마을교육공동체 등
온라인	<a href="http://www.neuru.org/">http://www.neuru.org/</a> <a href="https://www.facebook.com/neuru201111/">https://www.facebook.com/neuru201111/</a>
문의	032-576-0106, ljs0103@naver.com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 느루 청소년 운영위원회
주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운영
목적/목표	청소년 문화 공간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한다.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의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연 2회 청소년 캠프 기획, 운영 현재 8기 : 나의 버킷리스트
참여방법	비정기 모집, 청소년 누구나 참여, 활동기한 제한 없음
참여대상	14세~19세
참여형태	청소년들이 계획한 다양한 활동
회당참여학생수	-
연간참여학생수	총 20 명
성인멘토	<p>성인들은 청소년의 멘토라는 개념보다는 청소년들과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어른들은 이 공간의 주인인 청소년에 기대어 청소년들이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청소년들 개개인의 재능들을 발견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p> <p>기수별로 함께 하는 성인의 역할이 다르기도 하다. 이전 기수 친구들이 청소년들과 영화제작을 해보면 어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성인들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8기 기수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바람을 넣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 재밌겠어요'라고 하면 '한번 해봐?', 공모전을 해 볼래? 만들어 볼까?'라고 지지해준다.</p> <p>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은 부담스러워 한다. 한 친구는 음악을 좋아해서 작곡을 해서 공모전에 나갔고, 한 친구는 영화 편집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이지만 이곳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해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공간의 어른들은 공간을 지키고 '밥 먹었냐?' 하고 물어주는 역할이다.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다려줄 때 어른들과 대화를 하고 자신들의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도전해볼 수 있다.</p>
예산규모(연간)	-

### 〈청소년 인문 도서관 느루〉 공간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 동네에는 학교가 11개나 있으나 청소년 공간이 없어서 마을주민들은 마을 의제로 청소년인문도서관을 만들고자 했다. 이 공간을 준비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고 그 중 1년을 청소년운영위원들과 함께 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된 셈이다. 이 공간을 만들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것.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정하고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곳에서 무엇을 할지 청소년들이 직접 의논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른들이 만든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활동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든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진짜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거액의 후원금이나 지원금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이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만약 거액의 후원금이나 지원금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다면 청소년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공간,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

1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른 운영위원들과 부동산을 쫓아다니며 도서관 자리를 알아보고 건축워크숍으로 이 공간을 직접 디자인했고, 2천권이 넘는 책을 작업해서 서가에 꽂으면서 함께 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느루이다.

### 청소년들에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도서관을 위장한 청소년들의 아지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느루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을 뒤통하지 않는 것이다. 뒤통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청소년 기관에서는 못하는 것이다. 관이나 특정 지원금에 매여 있지 않고 지역의 어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이들을 기다려 줄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금 받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청소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성과에 집중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편하게 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놀다가 갈 수 있는 공간, 아이들에게 따듯한 코코아를 주는 게 다인 공간이다. 이 안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문득 무엇인가가 하고 싶어지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럼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른들이 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커지고 넓어질 수 있다. 어른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다. 지지하는 어른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고 스스로 성장한다.

### 동네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점

마을축제를 할 때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1~2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절반 정도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청소년들에게 기획을 많이 주고 있다. 청소년 축제를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청소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준비했고 많은 동네 주민들이 참여했다.

### 아이들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지

청소년들이 동네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 문화복덕방 사업을 하면서 마을 잡지를 만들었는데 동네 철물점, 문구점 찾아서 인터뷰하는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보고 가좌시장에서 '골목형시장'사업으로 동네 잡지를 만들 때도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런 것은 어른들만 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대학 면접을 본 친구는 인터뷰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지역의 아래로부터 시작된 혁명이 제대로 된 혁명이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웃음)지역공동체,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몸에 배었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사회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다.

### 1기에서 8기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청운위 2기 때 강화도로 농활을 갔었는데 청운위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농사일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농민들로부터 강의도 듣는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 다녀와서 평가회의를 세 번이나 진행했다. 음식의 양부터 일정 등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회의를 하고는 다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후에 될 해도 자신들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선생님들이 청소년들과 동등한 참여자일 뿐 의존하지 않았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한다.

한번은 청운위 활동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점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후배들은 청운위 활성화를 위해서 청운위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다. 선배들은 청운위 활동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점수를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 주체적인 활동인데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주게 되면 마일리지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열띤 토론 끝에 청운위 활동에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주지는 않고 청운위와 별개로 자원봉사활동을 따로 운영했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느루의 1기~8기까지 운영되면서 세대교체 시기이다. 과도기이다. 1기부터 4기까지는 이 공간을 만들었던 경험을 가진 친구들로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5기~7기 친구들은 이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공간이 좋아서 참여하는 친구들이다. 이 공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던 친구들은 두려움 없이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본다. 경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기도 했다. 1기~4기가 졸업하고 이후 5~6기 기수들은 어떻게 청운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1년 반 정도 진행하고 7기부터는 활성화되었다. 졸업한 친구들이 많아지자 8기부터는 다시 단절되었다. 8기부터는 학교에 홍보를 해서 모집했다. 8기 친구들에게는



‘하고 싶은 것을 알아서 해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한 달에 한 번에 해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 8기 친구들은 느루의 주인으로서 청운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 요즘 아이들이 개별이고 조직적으로 무엇인가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

이 공간에서 연예를 많이 하는 것도 고민. 연예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스킨십에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청운위 운영할 때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 것인가? 처음 기수 친구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제안했을 때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른들의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기수 친구들에게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하지만 진행과정이나 모임 안에서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강압이나 간섭으로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느루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순간에는 이끌어 주고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서 양쪽에서 고민이다.

현재 상근자는 1명이고 나머지 어른 운영위원회들은 각자의 본업을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활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을 운영하기에 힘든 점이 있다.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청운위 활동도 있는데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없다. 망해도 괜찮은 아이들과 긴 호흡으로 활동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청운위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느루의 생일에 홈커밍데이에서 청소년 토크쇼를 운영한다. 느루에 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느루에서 길러진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나만 성공해서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간다.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했던 각자의 경험으로 성장한다. 완벽주의였던 친구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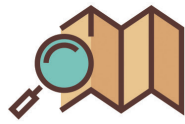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동네 식당 셰프님과 인연을 맺어 자신의 진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힘들었던 친구는 자기편이 되어 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자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이 비밀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 향후방향

청운위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행하지만 8기까지 오면서 청소년들의 생활도 많이 바꿨다. 현재 8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활동시간에 대한 제약도 많고 이 공간을 함께 만들었던 경험도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정비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도 바빠져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느루는 프로그램의 경계를 허물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지금 느루의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경험을 쌓은 친구들이 운영위원회를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한다. 느루의 ‘청소년 여권’을 만들었다. 여권은 하나의 형식인 거고, 청소년들과 내용을 함께 채워나가길 바란다.

인터뷰이 • 청소년인문도서관 느루 권순정, 이해경, 라정민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사)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상단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 (사)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꿈꾸며 청소년자치를 실현시키는 청소년플랫폼이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환경에 참여하여 주체가 되고 기성세대와 함께 하며 지역사회 모두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공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진로지원, 청소년사회참여, 청소년들을 만나는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의 기반을 참여로 하고 있다. 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이다. 이 공간에서는 청소년자치기구 1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취재 및 지역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 관련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 1회 새전북신문사와 연계하여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 <ASPECT 청소년 기자단>과 청소년들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표현력을 향상하며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인터뷰 및 청소년 잡지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단 눈맞춤>을 소개하려고 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청소년자치연구소&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소재지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3층 청소년자치연구소
조직형태	사단법인
설립연도	2015년
대표자	정건희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운동: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꿈꾸는 청소년플랫폼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설계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청소년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주요활동	청소년활동: platform을 통한 participation으로 공유변화활동,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청소년 진로지원활동, 청소년연구활동, 청소년지도력과 네트워크 활동 청소년연구활동: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이로움이 되는 연구로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진로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가의 역량에 관한 연구 진행 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 활동: 성장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청소년 활동가 양성

단체주요활동	<p>청소년활동가의 운동성 및 전문성 강화가 곧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시민으로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가의 운동성과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p> <p>청소년사회참여활동: 청소년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변화</p> <p>청소년참여는 인권이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도 사람이라는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들이 관리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이고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의 기반을 참여로 한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청소년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한다.</p>
온라인	<a href="http://www.youthauto.net">http://www.youthauto.net</a>
문의	063-465-8871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 기자단 ASPECT
주제	청소년자치활동
목적/목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조사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ASPECT 청소년기자단 활동은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지역일간지인 새전북신문사와 MOU를 통해 2015년 12월 시작되었다. 청소년들의 취재 및 지역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 관련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1회 새전북신문사와 연계한 기사를 달그락달그락 지면에 기고한다.</p> <p>활동은 기사작성 및 기사편집 - 기획기사, 스트레이트, 인터뷰, 칼럼의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매월 1회 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매주 팀회의를 진행한다. 연합활동으로 매월 1회 달그락임원전체회의, 분기별로 전체 연합회 활동으로 상상캠프와 체육대회 등을 하고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청소년 정책개발활동, 캠페인, 청소년참여포럼 진행 등을 한다.</p>
참여방법	2월에 모집을 하여 3회차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방송촬영 및 청소년 채널의 이해교육, 취재실습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기간은 신규기자 30여명, 기존 활동 기자 20명 정도로 1년 주기로 재구성한다.
참여대상	청소년
참여형태	정책 제안, 캠페인, 언론활동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30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1080 명
성인멘토유무	자치기구별 활동가가 담당은 있으나 청소년들 관계 속에서 임파워먼트를 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자치기구 운영은 자치기구 내에서 리더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예산규모(연간)	약 500만원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
주제	청소년자치활동
목적/목표	청소년들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표현력을 향상하며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알려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작가단 눈맞춤은 인터넷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고 싶은 글이나 알리고 싶은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책을 출간하는 자치기구이다. 청소년들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표현력을 향상하며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인터뷰 및 청소년 잡지제작 활동을 한다. 눈맞춤 위인팀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등 주제별 위인들을 발굴하며 공감팀은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학교생활, 성별 등에 따라 발굴하여 잡지를 제작한다.</p> <p>1기는 지역에 같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인터뷰하여 책을 선물로 드렸고, 외모차별, 사랑, 지역역사인물 등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블로거 활동을 했다. 2기는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같은 청소년들에게는 공감을, 어른들에게는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청소년 잡지 "Never ending story"를 발간했다. 2018년도에는 매주 자신이 좋아하는 글 혹은 책의 줄거리를 나누는 굿북투어를 진행 할 계획이다</p>
참여방법	3월쯤에 작가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해 보고 지원한다.
참여대상	청소년
참여형태	기사쓰기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30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180명
성인멘토유무	자치기구별 활동가가 담당은 있으나 청소년들 관계 속에서 임파워먼트를 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자치기구 운영은 자치기구 내에서 리더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예산규모(연간)	약 500만원

###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나에게 어떤 공간인가

달그락은 청소년과 어른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이다. 좋은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의 진로를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다. 진로, 꿈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기도 했다. 순간의 생각으로 꿈을 포기했을 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준 이야기들이 꿈을 이루게 도와주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줬다. 그래서 달그락이 나같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공간이고 그 공간이 있어 감사하다.

### 달그락에서의 활동은 청소년들의 꿈의 연결고리

기자단에서 청소년 참여포럼에서 청소년자치권 확대 조례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달그락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다. 나의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데 주변에서 달그락 활동이 그 꿈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다. 나는 달그락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어린이,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 환경을 발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작은 부분들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달그락에서의 활동을 나의 진로와 연결시키자면 내가 생각하는 초등학교사는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에 대해 확신이 드는 것은 달그락에서의 활동을 통해서이다. 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 청소년은 달그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달그락의 톱니바퀴이다.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자치공간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간의, 청소년과 어른들이 관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다. 달그락은 청소년이 이끌어가면서 청소년의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함께 이끌어준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시간을 수치로 표현해 주는 것이 시계인데 시계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준다. 청소년자치공간에서는 청소년과 소통할 때 톱니바퀴가 맞물리면 시 시간이 흐르게 된다. 그러면서 청소년도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역할을 할 때, 청소년을 동등하게 대해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 희망이야기의 토크콘서트에서

### 달그락달그락에서 추구하는 청소년자치의 의미

자치(autonomy)는 사회에서의 자유이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자주적이어야 하고 자치해야 한다. 주체로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마련이고 개인이 주체적이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하다. 의존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으나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주체성 없는 의존은 존재감이 상실되어 있어 경계해야 한다. 개인이 주체로서 가치를 가질 때만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며 사람과의 의존이 자유하게 된다. 달그락달그락에서의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활동가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청소년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들에 의해(by youth) 사회와 수평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들과 함께(with youth)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달그락달그락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으로 추구하는 가치

비전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기성찰에 따른 개인과 지역의 변화이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청소년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자치, 시민자치는 현재까지 이상적으로 추구할만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살기 좋은 사회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변화는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집중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를 여기에 담은 거다. 청소년들이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선되어야 하는 건데 그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자기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삶의 공간 안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리가 있어서 참여한다는 것이 참여의 요체는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하는 거다. 결정하는 최상의 목적이 이 공간에 존재하는 거다. 우리도 이 공간에서 이상의 목표가 있는 거다.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었으면 좋겠다. 인간다운 삶은 뭘까? 개인적인 철학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권력일 수도 있듯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다. 결국은 그 살아있는 생명들과 공존, 공생하는 삶을 꿈꾼다. 편하게 인간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정,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깨져가기 때문인 것 같다. 꿈꾸는 세상의 가치는 청소년들이 밖에서든 집에서든 청소년들을 부모로서 사랑해 주고 서로가 안아주고 그런 관계이면 좋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밖에서도 이웃 누구라도 우리아이처럼 사랑하고 돌봐주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는 사회적 관계, 그런 것을 꿈꾸는 거다. 어설픈지 모르지만 그런 걸 꿈꾸면서 그려보는 거, 그게 가치다. 나도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고, 그런 관계들을 추구하는 거다. 결국 삶이다.

###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몇 년 동안 마을사업, 지역사회사업 이야기 많이 한다. 사람 없이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청소년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걸 통해서 사회가 변화는 그런 게 메인 전략 중 하나인 거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려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략 700명 내외의 공동체가 되었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고민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활동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달그락에 깊게 참여한 청소년들이 성찰한 내면의 이야기이다. 이를 통한 사회의 변화는 자연스럽다. 정책, 조례 등을 만들어 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궈내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변화의 과정을 목격한 후원자와 지역의 이웃들은 연구소의 활동들을 당연히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든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그 과정 자체가 변화이다. 지역사회변화의 핵심은 결국 처음에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는 거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자치기구가 있고 그들이 내놓는 목소리이다.

###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나 갖춰져야 할 기반이 있다면**

이러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해야 한다. 조직하는 게 쉽지 않다.

청소년들이 중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지금 활동하는 거 큰 컨셉이나 방향을 설정을 한다. 모든 것들은 같이 하게 돕는 거다. 고향이라서 사람이 저절로 붙지 않는다.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라고 해서 그들과 네트워크 있나? 거기서 오십년 살아도 만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거기서 과연 어떤 마을 공동체니 마을 사업이니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조직하고 관계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한다. 조직이 잘 안된다. 결국은 모임에 들어야하고 여기 중심으로 하게 하려면 중요한 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다.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뒤에 거대한 손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다.

이러한 활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은 연대와 조직하는 거다. 사람들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 안에서 가치나 생각들을 같이할 수 있도록 진한 관계와 소통, 안내도 해야 하고 중요한건 일만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닌 삶을 공유해야 한다. 내 입장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약간 개방도 하고 다 모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있고 그걸 전략화 하는 거다.

###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나 역할은**

별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이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자체가 역량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를 보내거나 교육이나 포럼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리는 포럼과 세미나를 합치면 연간 20여 회가 된다. 그것만 잘해도 네트워크 활동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역량강화는 충분하다고 본다. 청년이음이라고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모임도 있다. 청소년활동가, 상담, 복지, 교사 등 11명이 모임을 이어 오고 있다. 모임을 하는 이유는 좋은 선배도 되어주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힘도 받기 위함이 크다. 그들 모두 많이 행복해 하고 자연스럽다. 그 모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 활동가들은 역량강화가 된다. 활동가들의 역할은 배를 띄우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배를 띄워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 그 배는 바다를 향해 가긴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그 안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몫이다. 그 안에서 논의하고 저리 갔다 이리 왔다 할지라도 활동가들이 임파워먼트를 해 주고 존중해주면 책임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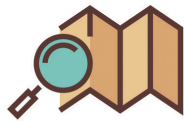
꿈을 꾸며 바다로 가는 여행이다.

그 여행을 위해 모금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SNS를 많이 활용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일 수밖에 없다. 모두 만나서 안내해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만나기는 힘들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 후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본질은 운동으로 될 때 그 효과가 크다. 내부에 충분히 공유되어야 하고 돈이 목적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 모여진다. 힘들고 어렵고 잘 안될 때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서 자립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생긴다. 물론 여기에 오는 청소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다. 그들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것이고, 모두 다 섞여서 존중해 주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지지해주고 공감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너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데라고 질문을 하면 관점이 바뀐다. 기여, 그걸 하려면 관계가 되는 거다. 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친화적인 사회, 이를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생명이 자치하는 삶이라는 가치를 뿌리로 두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자치연구소&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꿈꾸는 세상이다. 또 지금의 이 활동이 5년 정도 지나면 자체 예산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달그락달그락을 꿈꾸고 있다.

인터뷰이 •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오성우**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송은옥**



피스모모

PEACE  
MOMO





## 피스모모

# <청소년 집시위크>

피스모모는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을 통해 수평적인 서로배움을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단체명 “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의 의미와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왔던 소설 주인공 ‘모모’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피스모모는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의 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및 교육활동가를 위한 연수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화를 중심 가치에 두고 실천적 사유를 하는 시민공동체를 확장해가고자 한다.

피스모모의 모든 프로그램은 P.E.A.C.E. 페다고지(참여적, 대화식, 문화예술적, 비판창조적, 낯설게하기)를 기반으로 기획, 운영된다.

<청소년 집시위크(GYPCI Week; GYPCI, Glocal Youth Peaceful Community Innovator)>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들이 폭력의 구조에서 벗어나 평화세우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배움의 장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집시(GYPCI)는 ‘Glocal Youth Peaceful Community Innovator’의 줄임말로 ‘글로벌(Glocal)’ 즉, 세계(Global)와 지역(Local)을 연결하여 구조적 폭력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평화적 대안을 실천하는 청소년 평화 이노베이터, 또는 청소년 피스빌더를 가리킨다. 또한 집시는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 ‘집시’처럼 규정되지 않는 존재를 은유하기도 합니다. 집시는 자유로움의 상징임과 동시에 배척받고 배제되는 존재의 표상이기도 하다. 청소년 역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 아래 있지만, 누구도 쉽게 재단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하며 그 가능성으로 자유롭게 여러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청소년 집시위크는 청소년 참여자들이 글로벌 평화 이노베이터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촉진하고 지지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평화감수성에 기반하여 나와 다른 낯선 존재와 관계 맺고, 다른 존재와의 만남과 대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성찰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혁신으로서의 적극적 평화를 청소년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며 2015년에 첫 자리를 열었고,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피스모모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미래청 3F 303-A
조직형태	사단법인
설립연도	2012년
대표자	문아영

가치	피스모모는 수평적 서로 배움을 통해 실천적 사유의 시민공동체를 확장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단체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와 조사</li> <li>- 교육 변혁을 위한 정책 분석과 제안</li> <li>- 새로운 배움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li> <li>- 평화 교육자 양성과 네트워크 수립</li> <li>- 국내외 국외를 연결하는 평화교육 플랫폼 구축</li> </ul>
온라인	<a href="https://peacemomo.org">https://peacemomo.org</a> facebook@peacemomo0904
문의	02-6351-0904, peacemomo0904@gmail.com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청소년 집시위크(GYPCI Week; GYPCI, Global Youth Peaceful Community Innovator)
주제	평화감수성, 지속가능한 공동체, 관계적-자기결정권, 다양성 존중, 글로벌적 평화 실천
목적/목표	<p>지역과 세계를 관통하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글로벌의 감각으로 민감하게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실천하는 청소년 주체/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소통과 관계 맺기</li> <li>- 관계적-자기결정권과 다양성 존중</li> <li>- 사회 갈등/폭력에 대한 글로벌적 이해</li> <li>-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li> <li>- 평화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역량 증진</li> </ul>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청소년 집시위크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평화 이노베이터(또는 피스빌더) 되기 프로그램으로, 워크숍과 필드워크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며, 1박의 캠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p> <p>워크숍과 필드워크를 통해 일상과 주변을 낯설게 관찰하고, 새로운 만남, 대화, 성찰을 끊임없이 나누며, 몸/마음/생각이 경계를 넘어 유랑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삶, 혁신의 가능성을 찾아 실천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드워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필드워크 : 마을재생사업과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용산참사, 공동체 거주권, 마을공동체 + 세월호 참사 농성장</li> <li>- 16년 필드워크 : 주거권, 동물권, 노동권 + 세월호 참사 농성장</li> <li>- 17년 필드워크 : 청소년인권, 퀴어인권, 장애인권, 이주민/난민인권, 동물권</li> </ul> </li> </ul>

참여방법	매년 6월 모집, 7월~8월 중 활동
참여대상	평화의 실천과 지역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14~20세 청소년 (20명)
참여형태	워크숍 + 필드워크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18~20 명
연간참여학생수	15년 18명 / 16년 14명 / 17년 19명
성인멘토	<p>청소년 집시워크에는 성인 멘토로서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p> <p>2017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피스 액티비스타(자원활동가) 1명, 워크숍 진행자 4명, 길잡이 5명(필드워크 안내자), 필드워크 진행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자 모두가 청소년 참여자와 수평한 관계에서 만나고 서로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p> <p>워크숍 진행자와 길잡이는 피스모모의 평화교육 진행자되기 프로그램을 통해 피스모모의 교육 비전을 공유한 평화교육 진행자들로 구성되며, 대개의 경우 외부 협력으로 참여하는 필드워크 진행자에게도 사전에 피스모모의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청소년 참여자와의 수평적 관계 맺음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p> <p>워크숍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진행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진행자를 통해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기획합니다.</p> <p>집시워크 길잡이는 청소년 참여자와 함께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하면서 필드워크에서는 안내 역할을 하는데, 여러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필드워크에서 청소년 참여자들과 각 팀별로 동행하며, 청소년 참여자들이 필드워크를 안전하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p>
예산규모(연간)	<p>약 700 만원</p> <p>2015년은 피스모모 자체 사업비, 2016년~2018년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p>

###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집시워크’만의 철학은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는 피스모모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구분 없이 서로배움을 나누고, 보다 풍성한 서로배움을 위해 참여자 모두가 안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학교 교사들이 피스모모 평화교육 진행자되기 과정에 참여하실 때 “이거 청소년들과 안 될 텐데, 학교에서 잘 안 돼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학교의 교육 요청으로 짧게 2시간의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피스모모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참여자의 몰입도가 낮은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기 경험, 생각, 느낌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기운과 성찰이 상승하며 배움이 일어나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자기표현을 안전하게 느끼기 힘든 공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교육이 학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배움을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기 힘들다. 참여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배움 환경과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배움의 순간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집시워크가 시작된 배경에는 학교를 벗어나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다.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오는 상황, 자발성을 중심에 두고 청소년 참여자를 만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 청소년 집시워크는 청소년 참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평화감수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배움 환경을

지향한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개의 교실 환경과 다른 환경에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관계 맺는 과정에서 곧 활동에 몰입하곤 한다.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에서는 ‘뭐든지 오케이’, ‘달라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등의 모드세팅(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문화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나에게 뭐든 괜찮다고 하는 경험을 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졌을 때 역량이 더 발휘되고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들이 평화교육을 어려워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눌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가 유별나지 않게 느껴져서 좋았다”, “배움의 과정이 강제적이지 않고 공기 속에서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 좋았다”라고 참여자들에게서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 **학교와의 다른 공간 구성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집시워크의 공간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피스모모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시공간의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다. 꽃처럼 생명력 있는 존재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 색상, 다양한 천으로 공간을 꾸미고, 간식도 풍성하게 준비한다. 참여자들이 처음 도착해 만나는 낯선 공간의 분위기가 만남의 기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처음 만나는 공간에서 환대를 느끼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청소년 집시워크의 경우, 집시라는 컨셉에 맞춰 자유롭고 흐트러진 공간을 만들고, 악기나 주제와 관련한 책들도 무심하게 던져놓고, 쉬는 시간에 편하게 들춰보거나 만져볼 수 있게 한다. 워크숍을 할 때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는데, 첫 만남에서 그 원으로 바로 들어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구석구석에 아무렇게나 맘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쿠션이나 식물 등을 두기도 한다. 첫날 만드는 이름표도 참여자가 직접 고르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색으로 준비하고, 직접 이름을 적어 만들도록 한다.

### **물리적인 환경 외에 또 중점으로 두는 것은**

긴장하게 만드는 자기소개처럼 아이스브레이킹이 더 어려운 순간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벽이 높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처음엔 생각을 많이 요하지 않는 몸 활동으로 시작해서 점점 깊이 있는 성찰을 공유하는 인지적 활동이 포함된 활동 순으로 배치한다. 모두의 앞에서 말문을 열기보다, 소그룹으로 시작해서 안정감을 느낀 후 점점 그룹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몸이 굳거나 말문이 막히지 않고, 몰입이 단계적으로 점차 진행되도록 활동을 기획한다. 공동체 약속을 정할 때에도 첫날 만나자마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그룹 내의 긴장이 점차 내려간 첫날의 마지막 순간에 만든다. 참여자들 사이에서 “힘들 때 안아주기”, “서로서로 웃어주기” 등 다양한 약속들이 자유롭게 나온다. 그 밖에도 모드세팅 카드를 공간 곳곳에 붙여 환기시키면서 참여자들이 긴장을 내려놓게 돕는다. 수평한 관계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모든 소통 과정이 수평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섬세하게 체크하려고 한다. 별칭을 쓰는 것도 이전에는 피스모모에 없는 문화였는데, 청소년 집시워크를 시작하며 별칭을 쓰기 시작했다.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가 서로를 별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약속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참여자 안에서도 서열 관계가 생기는 호칭이 생기지 않도록 환기한다.

###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모든 존재는 존엄하며, 자기 삶을 선택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누군가를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라볼 때, 나이 서열을 바탕으로 충분한 존중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를 다니느냐/아니냐,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학업 성적이 높으냐/낮으냐에 따라 끝없이 서열이 매겨지고, 몸의 위치나 자세, 외모, 복장, 시간, 공간 등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나이 위계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에는 삶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더 적고,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 있을 때 집약적으로 구조적 폭력을 쉽게 경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짝반짝한 순간을 만들어 내는 청소년들을 보면, 존재의 생명력에 감탄하게 된다. 누구도 쉽게 재단할 수도 없고, 쉽게 꺾을 수도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

###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가길 원하는가

청소년 집시워크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기보다 그 이후의 일상에서도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변화라는 것이, 꼭 엄청 거대하게 이뤄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집시워크를 경험하며 느꼈던 무엇이 몸속 어딘가에 있다가, 기회나 자리가 있을 때 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주지 않는 것, 시민으로서 대하지 않는 것,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청소년들은 UN 등 글로벌 무대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할 기회가 너무 적다. 시민으로서의 경험,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 없이 세계시민을 말하는 교육은 비어있는 곳이 크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며, 현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것,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아는 것,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청소년들 모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스모모에서 허공에 뜬 세계시민성이 아닌, 글로벌시민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내가 발 딛은 곳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 내 일상과 구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들과의 관계맺음에서 갖는 한계점이나 고민은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 주어진 시간은 짧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의미를 나누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한다. 한 번에 한 존재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환경에서 무엇을 나누고 올 것인가를 고민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일회성 교육이 진행자나 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러 제약에 아쉬움이 있지만, 다른 방식의 만남에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변화에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학교 교사들과 함께할 기회를 많이 찾으려 한다. 평화교육 진행자되기 과정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사연수를 진행한 적도 있다. 의뢰를 받아 교사연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피스모모가 놓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평화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교사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참여자의 연령이 14~20세까지 다양하다. 최연소 참여자는 13세의 바비(별칭)라는 참여자였는데, 2015년에 만나 2016년에도 참여했다. 바비를 처음 만난 2015년 당시에는 참여자 구성에 높은 연령대가 더 많았기에 연령차로 인한 어려움이 혹시나 있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비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바비의 경험이 소중한 나눔이 되었고, 배움 공동체 안에서 성찰 촉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비 덕분에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에게 연령의 차이에 대해 낮설게 바라보는 계기, 서로 배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서로 다른 존재, 다른 경험의 존재라는 것이 서로배움에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 **어떻게 하면 집시워크가 더 지속할 수 있을까? 계속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청소년들이 집시워크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도 학교-집-학원 등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고, 평소에도 자기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구조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교육의 변화, 제도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경험의 기회,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피스모모에서도 정책 연구와 제안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과정에 글로벌 평화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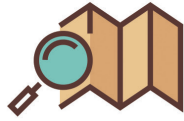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피스모모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비를 적게 책정했다. 참여자의 성격을 생각하여 참여 희망자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 이유가 크다. 2015년은 피스모모 자체 사업비로 운영했고, 2016년과 2017년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다. 2018년이 서울시 지원의 마지막 해이기에 이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향후방향**

2015-2017 청소년 집시워크에서 청소년 참여자들과 의미 있는 성찰의 순간, 각자의 변화가 감지되는 순간들을 많이 나눴지만, 그것을 구체적 액션으로서 함께하는 순간을 나누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발현될 것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겨두었지만, 5일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한 배움공동체 안에서 성찰적 실천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이 부분을 프로그램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한다.

인터뷰이 • 피스모모 **전세현, 박은경**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

**하자** haja  
center





##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 <생각하는 청개구리>

하자센터는 연세대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진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특화시설로서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다.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지난 2012년부터 하자센터와 한국암웨이가 함께 펼치고 있는 어린이창의인재 육성사업으로 (2012년~2017년 운영 종료) 함께 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창의'를 만들어 내고자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배우며 즐겁게 어울려 노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놀이활동가들과 함께 서울 시내 곳곳의 공공장소와 하자센터에서 진행하였고, 두 곳의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학교 공간을 재해석하고 디자인하는 <움직이는 창의클래스>를 진행하였다.

### ■ 기관개요

기관명	하자센터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신관 203호
조직형태	기타형태_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 위탁운영
설립연도	1999년
대표자	황윤옥
가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소년 진로활동 허브 재(自) 청소년에게 주는 길이 아닌 청소년이 스스로 걷는 길 공(共) 개인 역량을 키우는 길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길 공(公) 경제의 승자가 되는 길이 아닌 새로운 공공적 시민이 되는 길
단체주요활동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로 청소년 직업체험 (진로관련)활동 대안진로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창의진로활동, 작은활동및동아리, 평생교육, 국제네트워크
온라인	<a href="https://haja.net/">https://haja.net/</a> <a href="http://www.facebook.com/hajacenter">www.facebook.com/hajacenter</a> <a href="https://www.facebook.com/thinkingfrog2012">https://www.facebook.com/thinkingfrog2012</a>
문의	02-2677-9200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생각하는 청개구리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주제	놀이활동가
목적/목표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함께 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창의’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대표적 사업인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의 ‘청년 놀이활동가’는 놀이로 몸을 깨우며, 함께 놀 동료를 만나는 활동으로 놀이터를 실행하고 실험하는 파트너이자 세대 간 어울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청(소)년 모임이다.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지난 2012년부터 하자센터와 한국암웨이가 함께 펼치고 있는 어린이창의인재육성사업으로 (2012년~2017년 운영 종료) 개인 차원의 성공을 강조하는 기존 창의교육의 틀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더불어 사는 사회적 창의’를 지향한다.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배우며 즐겁게 어울려 노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서울 시내 곳곳의 공공장소와 하자센터에서 진행하였다. 놀이활동가는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펼치고 꾸릴 스태프이자, 놀이문화를 활성화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모임이다. 놀이활동가들은 놀이를 촉진, 제안하고, 관찰, 기록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창의놀이터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방법	연 1회 모집, 페이스북, 하자넷 등을 활용한 온라인 모집 서류, 인터뷰로 선발, 1년 활동, 활동 지속 가능 월 3회 정기적인 모임. (*놀이활동가를 할 경우 활동비 지급 5만원~8만원)
참여대상	20~30대 후기 청소년 & 청년 그룹 중심 17~19세 청소년 그룹 간헐적 연계
참여형태	놀이의 촉진, 제안/ 관찰,기록/ 놀이 구상, 제작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10~15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15명 내외
성인멘토	성인멘토 별도 없음. 담당 기획자가 있으나 모임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5년 활동한 활동가들이 4~5명. 선경험자들이 새로운 활동가를 맞이하고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규모(연간)	약 600만원

##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생각하는 청개구리 :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주제	참여디자인 프로젝트
목적/목표	학교 사회에서 '어린이를 시민'으로,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스스로 자신들의 '놀이 +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토론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조율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형태	경험
프로그램 소개	<p>어린이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학교 공간을 재해석하고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학급 단위로 6개월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공론화시키고 발언하는 법을 배운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의 공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발견하고 전문가와 소통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하면서 학교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한다.</p> <p>프로그램 진행          어린이의 공간 리서치 - 키워드 발견 및 어린이의 욕구 이해 - 학교 내 다양한 주체와의 인터뷰, 대화 - 장소 선정 및 디자인 워크숍 - 참여 확장을 위한 공청회, 전시, 영상제작 등의 프로세스를 골조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었다. 2016년에는 "프로젝트_어린이" (참여 디자인과정 기획 운영), "프로젝트_파티"(공간디렉터), "디자인어스"(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이 함께 진행. 2017년에는 기획, 운영, 설계를 "블랭크"라는 팀과 진행.</p>
참여방법	<p>교육청 장학사 추천 등을 통해 연계된 학교에서 학급단위로 참여,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p> <p>2016년 삼양초 10개월          2017년 문래초 6개월, 은빛초 6개월 진행</p>
참여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5-6학년)
참여형태	학교 공간 디자인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2~30명
연간참여학생수	총 78 명
성인멘토	<p>2016년에는 어린이교육전문가 (프로젝트_어린이 Project_Bambini), 공간디렉터(프로젝트 파티 P.P.Y), 2017년에는 블랭크(BLANK)가 함께 기획, 운영함. 어린이가 시민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의견수렴을 넘어, 삶의 공간인 학교 공간을 주체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어린이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다.</p>
예산규모(연간)	약 3천만원 이상

## 생각하는 청개구리 놀이활동가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 놀이의 사회적 가치는? 놀이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놀이 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안전하게 실패하고 모험하는 놀이의 경험은 회복력을 갖게 한다. 놀이에는 몰입하는 기쁨, 함께 노는 기쁨,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연습이 있다. 또한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보는 것을 몸의 감각으로 익혀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 놀다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다. 이제까지 펼쳐 온 놀이터는 돈을 내고 하는 놀이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터를 경험하는 장이었다. 이러한 경험과 '놀이 정신'이 주는 사회적 환기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놀이활동가의 시작과 배경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놀이터의 일회적 스태프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활동가 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놀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청소년-청년 중심의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놀이활동가들이 활동을 통해 놀이감수성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함께 일해보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했다. 함께 실험하고 실행할 파트너를 만나 놀이터에 활력을 주고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2014년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놀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어쩌면 '놀이가 난감해진 시대'에 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고, 놀이에 관한 워크숍, 책 읽기, 포럼 기획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놀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졌다. 그 이후에는 실제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에게 눈을 돌려보았다. '나'라는 당사자성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필란트로피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어린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등에 대해서 고민했고 이후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놀이활동가들의 역할은

Play Leader (놀이 제안자, 촉진자) / Play Reader (놀이 관찰, 기록자) / Play Worker (놀이(터) 제작자) 세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먼저, 놀이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놀이를 제안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엔 진행하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어떤 놀이가 왜 활성화되는지, 어떨 때 놀이에 개입을 해야 하는지, 놀이터에서 느낀 딜레마와 고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각자가 관찰한 것을 공유하면 놀이터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놀이터의 경험을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공공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놀이터에서 어떤 놀이를 할지 구상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한다.

### 놀이활동가들의 성장과 변화는

놀이활동가들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어린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활동을 통한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된 점이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린이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활동가도 있었다. 그랬던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린이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어린이를 가르침의 대상으로밖에 대해 보지 못했던 활동가는, 놀이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와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생각과 몸을 바꿔가고 있다.

한편, 여러 사람들과의 공익적 활동을 처음 해보는 활동가들은 동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고 부딪치고 갈등하면서 경험한 것을 실행하는 이 활동이 각자의 삶에 큰 에너지를 주었다고 한다. 평일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나와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



### 놀이활동가의 운영원리

중요한 운영원리는 1) 자발성에 기반한 커뮤니티 2) 서로의 참조점이 되는 상호학습그룹 내의 성장 3) 수평적 위치에서의 대화 4) 기록과 협의를 통한 민주적 소통이 있다.

놀이활동가들 중에서는 4~5년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활동가들도 있다. 이렇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놀이터가 주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관계의 힘이 크다. 어린이들처럼 어른들에게도 안전한 놀이터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공간, 신변잡기의 이야기뿐 아니라 공동의 지향이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나라는 존재가 맞닿아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놀이터활동가 모임이 처음 시작된 2014년도에 워크숍과 학습모임 등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동료애를 발견하였다. 같이 무엇인가를 작당할 수 있는 느슨한 네트워크, 사회와 연결된 느슨한 연대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한편, “놀려고 왔다가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록의 힘이 크다. 기록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활동가들의 정체성, 어린이와의 관계, 놀이에 대한 성장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놀이활동가의 경험은

보통 19세 이상으로 놀이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2015년도에는 분당 지역 놀이터를 운영할 때 이우학교 학생들 중에 놀이, 교육, 어린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하자의 ‘오디세이 학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

청소년들에게도 놀이활동가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평소 다른 세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청소년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경험은 많이 하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은 잘 하지 못한다. 어려운 활동은 아니지만 같이 놀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은 자기 자신의 치유경험이 되기도 하고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 <움직이는 창의클래스>의 기획 배경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를 하나의 사회로 보았을 때 어린이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사회에서 어린이는 시민으로,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참여하고 있는가? 어린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공간은 학교의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환경으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시각과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좋은 재료이다. 어린이들은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 공간에 어린이들의 숨겨진 욕구는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른들과 조율해서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실행해 본다. 학교에 유휴 공간이 많아서 학교의 반응도 좋다.

###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렸었던 점은

학교마다 상황이나 조건이 많이 달라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리의 프레임과는 달리 관리자들은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면 시설 환경 개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했는데 때때로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바꾸는 문제를 다루다보면 안전과 책임이라는 이슈로 더욱 민감해지기도 한다.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지만 참고만 하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어린이들이 공간을 직접 디자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디자인이 중요하다. 어른들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까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다.

### 아이들과 어떻게 활동을 진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린이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다보면 아이들의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본인들의 학교 공간을 바꾼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모른다. '옥상문을 따 보고 싶은데, 어떻게 따지?' 토론을 하는데 불법으로 할 것인지, 합법으로 할 것인지 토론을 벌인다. '합법으로 하려면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이니까 교장선생님께 가서 부탁을 해야 하나?' 학교의 주인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또, 어린이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른들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어떤 공간을 바꾸고 싶어?'라고 물으면 '노후된 곳, 안전하지 않은 곳'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노후되고 안전하지 않은 곳도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재밌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어른들의 생각과 어린이들의 공간 이용방식은 다르다.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이제까지 만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쉬를 이야기했다. 학교 공간이 공부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는 일상의 생활공간, 삶의 공간이다. 공부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낸다. 학교가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고민했다. 진정한 배움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어른들은 낙서를 금기시 하지만 아이들은 낙서를 좋아하고 낙서에 집착한다. 삼양초에서는 왜 낙서를 하는지, 낙서수집하고 분류하고, 인스타그램에 삼양초 낙서 해시태그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낙서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대의 동굴의 낙서가 역사가 되었듯이 우리의 낙서도 역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후 공간 디자인 과정에서 낙서 안의 추억이 아이들이 만든 공간에 녹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도록 했다.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학급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아이들을 만날 때와 달리 소그룹 수업에 참여할 때 아이들의 세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선생님은 초등 진로교육의 핵심 역량이 이 수업에 다 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다. 직업을 찾는 것이 진로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조율해가는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학급단위이지만 소그룹으로 진행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다 알지만 무관심한척 거리를 두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수업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발언을 하면서 변화해서 2학기에는 학급임원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들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관점의 변화도 있었다.

## 담당자로서의 어려움

학교 파트너와 서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잡고 타협해야 할 때 가장 힘들다. 어린이를 시민으로 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파트너 단체들과 한 방향을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 그 가치가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업을 하고 나면 공허해진다. 우리가 뭘 한 건가, 단순히 공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한 건가? 고민이 들기도 한다.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외부 자원을 받아들이고 협력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은빛초등학교의 경우 1기 혁신학교로 마을 공동체와 연결되어 열린 분위기가 이미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래서인지 소통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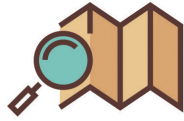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 하자센터에서 말하는 ‘공공진로’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로체험에서 직업적인 경험에만 집중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그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계속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내는 역량, 삶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하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남’이 아닐까 싶다. 사회에 의미있는 길과 장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이다. 내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누군가의 뒤통수를 보면서 가야 하는데,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뒤통수를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이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개척해가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향후방향

한국 암웨이와 함께하는 <생각하는 청개구리> 프로젝트는 종료하였지만,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의 ‘놀이활동가’들은 하자센터에 동아리 등록을 하고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2017년에 이어 하자 차원의 어린이 프로젝트(청개구리 작업장)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자센터 내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린이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인터뷰이 • 하자센터 **민지은(하루)**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  
Holt 홀트아동복지회





## 홀트아동복지회

# <홀트가족나눔교육>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홀트가족나눔교육>은 공감, 자존감, 소통, 가족교육, 가족공동체 5가지 인성덕목을 나누어 교육하고, 패밀리메이커 교육으로, 입양에 대한 반 편견 교육에서 출발해서 가족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이후 인성덕목들이 확장 되었습니다. 14년부터 체계화되어 강사들이 파견 교육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홀트아동복지회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조직형태	사회복지법인
설립연도	1955년
대표자	말리홀트
가치	사랑을 행동으로 :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한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 : 자랑스러운 더 큰 가족 가슴 벅찬 홀트
단체주요활동	입양, 아동/청소년복지, 미혼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 영유아복지
온라인	<a href="https://www.holt.or.kr/">https://www.holt.or.kr/</a>
문의	02-331-7143 (나눔협력팀)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홀트가족나눔교육
주제	나눔교육, 인성교육
목적/목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의식을 고취하는 착한 인성교육 제2의 해리홀트 같은, 가족이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1. 나눔교육 : 나눔의 개념과 이유를 알고 나눔의 다양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p> <p>2. 자존감교육 : 자존감을 통해 자기자신을 알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돕습니다.</p> <p>3. 소통교육 : 언어와 비언어, 사랑의 언어 등 상대방과의 소통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p> <p>4. 공감교육 :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알게 하여 나와 상대방에 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p> <p>5. 가족공동체교육 :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합니다.</p> <p>1회차 교육(커리큘럼 5개를 2차시로 나누어 진행됨) 2시간 소요 (가족에 대한 이미지 찾기,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모습알기, 가족개념을 친구까지 확장,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 따뜻한 숙제 - 홈페이지에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기록해서 올리면 봉사시간 제공</p>
참여방법	인터넷 사이트, 교육청 교육기부사이트 교육신청 → 담당자 통화 → 강사파견 → 교육피드백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교육진행
참여대상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급(※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이상), 성인 - 인성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30명 이상 권장), 전교생 강당교육, 기업 및 교회 교육 가능
참여형태	나눔활동기록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30 명
연간참여학생수	년 평균 150~200회 교육, 대상 청소년 일반성인 6~7000명
성인멘토	<p>14년부터 강사파견, 홀트 내 나눔교육 강사 인력 16~20명 나눔교육강사 서류심사 후 면접, 강의 시연 절차로 선출, 일반강사 전문강사 책임강사로 나누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강사비 지급, 강사역량강화를 위해 반기마다 봉사활동, 홀트 교육 및 외부강사 강의, 올해부터는 '강의력 증진대회' 열 예정임.</p>
예산규모(연간)	홀트 기부담 100%, 예산공개 어려움, 주로 강사비, 운영비 지출

## 나눔교육을 만들게 된 계기는

채성현 나눔협력팀 담당자는 처음 가족나눔교육을 홀트에서 처음 만들고 지금까지 담당해오고 있다. 사회복지가 아닌 경영학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NGO관심 갖고 활동하다보니 쏟아 붓는 돈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고, 현장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있었다.

가족이 가족 될 수 있다면 사회문제가 모두 없어질까라 생각한다. 그건 홀트의 사명이자 담당자 본인의 사명이기도 하다.

홀트의 가족관은 혈연에 의한 것만이 가족이 아니다. 영화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을 통해 가족이 뭘까를 고민했고, 전성실 선생님과 함께 나눔교육을 만들면서 결국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 홀트에서 보는 나눔이란

홀트의 가족나눔교육은 가족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교육, 공동체, 필란트로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나눔 교육보다 인성교육에 더 포커스가 있는 듯 하나 큰 틀은 나눔 안에 들어있다고 보여진다.

홀트에서의 나눔은 자선과 봉사 이상이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다.

가족 안에서 출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눔이 되는 관계, 그것이 학교, 지역사회, 세계로 나아간다고 보고, 세계의 나눔보다 가족 안에서의 나눔이 가장 우선시 된다.

##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여자 정보고에서 교육을 듣고 후원을 시작한 아이가 있어, 소식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면서 한부모 장애인 엄마를 둔 삼남매 중 한명이었다.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만원 중 5만월을 후원. 이에 홀트에서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청소년 장학금을 줬었고 그 장학금의 일부를 다시 후원하기도 함. 나눔 교육에서 미혼모에 대해 처음 들었고 가족의 중요성 나눔의 중요성을 알고 나눔 활동가로 활동했었는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유류품에 버킷리스트에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이다.

## 청소년대상 교육 시 느끼는 한계는

초중학교에서 요청이 많아 나눔교육은 주로 초중학교 대상이다.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따른 타인에 대한 관심 없는 것을 한계로 본다.

고등학생 경우 지식은 많으나 철학이 없고, 사회문제나 나눔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성취를 이룬 이후에도 개인의 성취가 중요하지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 대기업에서는 나눔교육을 위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다시 질문 한다 어떤 것이 기업의 목표인가? 개인의 목표인가? 부의 축적이나 기업의 이윤추구가 대부분이다. 나눔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결연이나 후원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인문학교육이 대두하니 돈이 되는 인문학,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문학을 찾아내서 그것만 취하는데, 나눔교육이 최고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눔교육을 듣고 딱 한명이라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 한명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눔교육을 한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씩 더 많아진다면 그게 희망이지 않을까 싶다.



### 가족나눔교육의 효과성이나 목표대비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횡수 기록하고, 사전사후 설문지 진행하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양적으로 주로 평가하고, 성과측정은 그걸로 끝이다. 설문지도 아이들이 대충하거나 외부에서 와서 관대하게 쓰는 것 같다. 기관에서 우리 교육을 다시 불러주는 것, 개별 사례를 만날 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담당자로서의 고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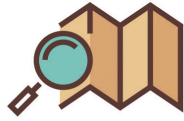
부모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을 위한 노래나 동화를 제작하는 것을 해보고 싶고, 유아교육은 강사가 가지 않고 부모들이 보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듯한데, 담당자가 혼자라 늘 여건이 되지 않는게 아쉽다. 전담팀이 있다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텐데 아쉽다.

### 향후방향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고자 함. 늘 전년대비 횡수가 많았는데 올해는 횡수는 줄더라도 강의안을 디테일하고 더 잘 만들고,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강의력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인터뷰이 • 홀트아동복지회 **채성현**  
 인터뷰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조영실**





##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

# <내-일상상프로젝트>

희망제작소는 삶의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시민을 지원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나누고 연결하는 시민연구허브이며, 시민연구 개념을 확산하고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비영리민간독립연구소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일, 노동, 직업,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재능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창직활동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 ■ 기관개요

기관명	희망제작소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조직형태	재단법인
설립연도	2006년
대표자	정지강
가치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Do Tank로서 지역과 중앙이 균등하게 발전하기를,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를, 퇴직자들이 공공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풍성해지기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공공리더가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단체주요활동	시민참여, 사회혁신, 민주주의, 시민교육, 마을만들기, 세대공감, 지방자치, 지속가능발전, 지역공동체, 노동, 거버넌스, 청소년 진로 등 프로젝트 실행 및 연구 활동
온라인	<a href="https://www.makehope.org">https://www.makehope.org</a> <a href="https://www.facebook.com/hopeinstitute/">https://www.facebook.com/hopeinstitute/</a>
문의	T.02-2031-2196 F.02-3210-0126 김수영(희망제작소 일상센터 연구원)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일상상프로젝트
주제	청소년 진로탐색
목적/목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일, 노동, 직업,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재능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창의활동이다.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 지역단체, 청소년지도자, 행정 등 다양한 관계자 그리고 청소년이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단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때 청소년은 지역 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나고, 역동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성숙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다. 이에 &lt;내-일상상프로젝트&gt;는 아름다운재단 버버리기금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lt;내-일상상프로젝트&gt;의 총 4단계 단위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외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p> <p>1단계 상상학교 : 오리엔테이션_다양한 일과 삶을 모색하는 사람책과 강연                  2단계 상상캠프 : 멤버십 강화_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1박 2일 캠프                  3단계 내일생각워크숍 : 나의 진로와 일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사전탐색과 기획워크숍                  4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 청소년이 필요한 일감을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함께 회고하는 팀 프로젝트</p>
참여방법	2018년 실행 지역은 전주, 완주, 순창, 진안, 지역별 파트너단체에서 모집 상상학교, 상상캠프 이후 모집 완료 활동기간은 4단계 약 9개월간 활동
참여대상	중고등학생(고등학생들이 주요 참여자)
참여형태	단계별 참여형태가 다름(워크숍, 강연, 사람책 등) 4단계 내일찾기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의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함
회당참여학생수	회당 60여 명 (최종 4단계까지 참여한 인원수 : 지역별 20여명, 2017년 전주, 완주, 진안)
연간참여학생수	총 70~80명
성인멘토	프로그램 멘토 역할 기획하지 않았지만 지역 파트너단체에 따라 실무진들이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멘토들은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탐방 인솔, 회의 진행 등의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가 직접적으로 팀에 개입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다.
예산규모(연간)	약 2억 원 (아름다운재단 청소년진로탐색 지원사업)



### 내-일 상상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청소년과 청년이 그 지역에서 자립과 관계의 확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지역의 청년들의 생존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어떤 진로교육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완주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인 전주, 순창에서 시작했다.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진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장소, 진안 지역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로교육 인프라가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중소도시 완주에서 시작했고 그 주변 지역, 전주, 순창, 진안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진행과정에는 체인지메이커적 요소를 가지고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이외의 지역의 다양한 멘토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연결되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내-일상상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진로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나 어른들의 이야기하는 상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다. 현재는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불안과 압박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질문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파트너단체들이 지역성과 단체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각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경제, 농업, 노동 등 다양한 주제가 있다. 하지만 어떤 주제이든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활동이 진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주어야 한다. 전주 지역에서는 '노동'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문제와 연계해서 자신들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진로에 있어서 '이게 좋아! 이 방향이야!'이라고 이끄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은 실무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진로에 대한 정해진 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청소년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무자는 지역사회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다양한 기준으로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다.

### 진로와 시민의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면 나의 적성이나 소질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누구와 이 일을 하게 될지 생각하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참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때도 있다. 참가 청소년 중에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 친구들도 있다. 진로탐색 활동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활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프로젝트 실행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듣고서 진로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장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모르지만 피스메이커로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 수(창직) 있을까?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다. 장수의 청소년들은 '왜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지 않은가?', '왜 어른들은 자꾸 도시로 가라고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진로는 주어진 직업세계에서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접근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가깝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또래와 협업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 지역에 가장 남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

작년에 청소년 기획단과 함께 준비했던 결과 공유회가 기억에 남는다. 전체 참가 청소년들 중에서 기획단 활동을 할 친구들이 모집해서 함께 기획했는데 청소년들의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서 기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막해 했다.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당일에 청소년 기획단은 사회, 발표자로 만들기, 케이터링, 전시부스 관리 등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다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참여 학생들도 더욱 즐겁게 참여했다.

청소년 사람책을 진행했을 때도 큰 성찰이 있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나도 사람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제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습방법에 익숙했던 청소년들은 사람책을 통해서 누구나 사람책이 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머리를 빨갈게 염색한 한 청소년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인식되는 청소년이었는데 학교로 돌아가면 사람책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갖는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고 했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은 무엇인가

명확한 기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매년 참가하는 청소년들이나 지역파트너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관과 지역 파트너 단체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서로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이 사업이 얼마나 콜라보네이션 되는가가 중요한데 파트너와 희망제작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청소년 진로라는 주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세대들이 진로를 모색할 때를 생각하면서 가능한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지만 당장 한국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더라도 고민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다.

대한적인 진로탐색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선택권이 넓어져'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노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고용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다.

## 향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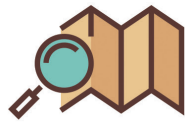
2018년도의 계획은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각 지역에서 이 활동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3년 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각 지역의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졸업을 하고 청년이 되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할 때 파트너 단체들이 행정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청년인턴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을 포함한 지역 네트워킹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순창의 경우 2차년도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자체 진행하였고, 올해는 지자체와 희망제작소가 함께 진행하면서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이 순창의 다른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이 거점이 되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순창과 같이 지역의 학교와 단체, 지자체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고 매뉴얼이 잘 만들어진다면 이 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순환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희망제작소가 진행하고자 하는 청소년 프로젝트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터뷰이 · 희망제작소 **조현진, 김수영**

인터뷰이 · 반딧불이 파트너교사 **박은주**



##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행동 비전으로 '나눔의 생활화'를 비전으로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모금캠페인을 하고, 공익활동을 서포트 하는 배분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반디>는 청소년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시민참여로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참여·실천형 나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 기관개요

기관명	아름다운재단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조직형태	재단법인
설립연도	2000년
대표자	박종문
가치	투명성, 공익성, 상호존중
단체주요활동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1%나눔(모금) 사회변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배분사업 -교육 / 환경 / 건강 / 주거 / 노동 / 안전 / 문화 / 사회
온라인	www.beautifulfund.org
문의	02-6930-4509, 4524 / edu@beautifulfund.org

### ■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나눔교육 반디
주제	팀별 자유주제

목적/목표	청소년들이 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② 지역사회와 세계의 문제를 인식하여 ③ 공익을 위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형태	인자+경험
프로그램 소개	<p>나눔교육 반디는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찾아, 모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p> <p>프로그램과정  나눔에 대한 이해 → 문제인식 및 활동주제선택 → 관련시민단체 조사·방문 → 활동계획 수립 → 나눔실천활동 → 나눔응원전 : 활동경험나누기</p> <p>진행회기 및 내용  참여하는 청소년, 선택한 주제, 교육진행환경 등에 따라서 유연하게 진행되며 평균 8-10회기 가량 이뤄진다.</p>
참여방법	<p>나눔이 가진 변화의 힘과 즐거움을 배우고, 우리 동네(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탐색해보며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함께 한다. 시간, 공간(지리), 정보 등에 있어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단직접, 학교, 지역(반디파트너)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청소년 팀 선발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다.</p> <p>1) 반디(재단직접모집운영)  - 활동기간 : 매년 12월 ~ 2월  - 지원자격 : 3~5인으로 구성된 청소년 (12~16세)  - 모집인원 : 6~8팀(40명이내)</p> <p>2) 반디학교  - 활동기간 : 학기 중  - 지원자격 : 20인 이내 학급. 팀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자유학기제, 동아리 등)  - 모집인원 : 연간 5개 이내 학교</p> <p>3) 반디파트너  - 활동기간 : 4월 ~ 12월 중 (파트너별 진행)  - 지원자격 : 나눔교육 반디를 진행할 비영리단체(미등록단체도 가능)</p>
참여대상	12~19세 청소년
참여형태	모금 캠페인 ( 팀별 활동계획에 따라 진행)
회당참여학생수	한 팀당 5명 내외로 구성
연간참여학생수	600-800명

성인멘토	반딧불이(파트너교사) - 청소년 1팀당 반딧불이 1인이 함께하며, 청소년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 - 지역 파트너 단체 활동 지원(강의 등)
예산규모(연간)	약 1억원

###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목적)/ 주요가치는 무엇인가요

나눔교육 반디는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찾아, 모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협동',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시민참여로서의 나눔', '실천(경험)'을 주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 나눔교육 반디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지식전달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생각을 통해 창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룹활동을 통해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회기를 구성했다.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다양한 모금활동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기결정권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으로 연결되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 변화 또는 지역사회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참여했던 청소년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

나눔교육 반디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활동을 했던 청소년이 유가족들을 만난 후에 차가운 천막 바닥에 앉아계시던 것이 계속 눈에 밟혔는지 등반이 의자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청소년이 생각한다. 미디어에 비취지는 하나의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공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시경쟁/스트레스'를 주제로 활동했던 청소년 중 한명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만들기' 활동가를 만난 후에 학원을 모두 끊었다고 힘주어 말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학원을 다니던 청소년이었는데, 그 만남 이후에 학원을 다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그리고 학원을 안다녀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활동 하는 내내 뿌듯해 했었다. 그것이 그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스스로가 변화이 주체가이자,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느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모금 캠페인을 하던 청소년이 활동 후에 '그래도 아직 세상을 살만하구나'를 깨달았다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자신이 활동을 지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참여해주는 사람을 만났던 경험은 자신도 누군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으며, 자신이 어려울 때도 누군가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나눔교육(청소년 지역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눔교육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활동이다. 모든 과정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야 할 수 있으며, 활동주제에 따라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살피게 되고, 실천 활동을 할 때는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받는다. 입시경쟁, 각자도생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게 협력, 연대와 같은 또 다른 가치를 알고,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참여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도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며, 그것이 나눔교육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활동인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학원 등으로 청소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청소년이 학원 대신 이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더라도 그 결정권한이 청소년에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즐거워야 하는 활동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 학교에서 청소년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일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과 만나다보니 지나치게 프로그램화되고, 짧은 시간 안에 활동을 하려고 하다보면 조금씩 때문에 일방적인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반디'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이슈와 관련 있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지역 내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비영리단체에서 청소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 방문 자체를 꺼려하거나 방문하더라도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

나눔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눔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모두 '청소년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가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고민인 셈이다.

### **실무자가 고민하는 지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청소년의 삶과 나눔교육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다. 나눔교육 반디를 처음 기획하고 진행했을 때는 대부분의 청소년팀이 '환경오염'과 같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활동주제를 선택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나친 입시경쟁, 청소년 인권침해 등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문제제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 나눔교육을 기획했을 때는 '나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나눔을 통해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청소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하게 된다.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나눔교육 콘텐츠가 그러한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요구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활동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하다보니 나눔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하는 활동과 그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함께 해결해가고 싶고,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들은 함께 공유하여 확산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하나의 단체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함께, 여러 단체가 힘을 모으면 변화를 더 쉽고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동안 각자 따로, 다른 언어로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한 번에 함께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 **성인멘토의 역할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나눔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반디라고 하고, 성인멘토는 반딧불이라고 부른다. 반디가 반딧불이의 줄임말이듯, 반디 = 반딧불이, 성인멘토와 청소년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서 의견을 내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간의 의사소통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기법들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년 여간 실제 나눔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나눔교육 반디'활동에서 가장 감응을 받았던 것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현재 상황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하는 의견에 긍정적 피드백을 주어 누구든, 어떠한 의견이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가장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방향

17년 하반기부터 청소년배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디가 '모금'을 통한 참여 활동이라면, 청소년배분위원회는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활동이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권한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2018년 청소년배분위원회 1기(시범) 활동이 마무리되면, 시민사회영역에서 청소년배분위원회처럼 청소년들과 권한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각각의 영역에서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영역을 넘나들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서로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단체들이 각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선 펼쳐보고, 차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

인터뷰이 •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안효미

국내나눔교육 현황조사보고서

한국의  
유스필란트로피를  
찾아서